

檀國大學校附屬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開館八周年紀念

第七回 學術세미나

第八回 出土服飾 特別展

學術세미나 : 1989. 5. 2. 10:00~16:00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出土服飾特別展 : 1989. 5. 2~5.11
本 博物館 중앙홀

目 次

○第七回 學術세미나

- 인사말.....石宙善.....5
- 韓·中 文官胸背樣式 比較小考.....裴貞龍.....7
—朝鮮時代와 明·清代를 중심으로—
- 居家雜服放를 통해본 朴珪壽의 服飾觀.....趙孝順.....61
- 우리나라 婚禮服의 民俗學的 研究.....高富子.....83

○第八回 出土服飾 特別展 및 傳統壽衣 復原展示

- 東萊鄭氏 出土服飾(1529~1609)
- 傳統壽衣一襲 復原
- 城南出土 東萊鄭氏 出土遺物에 관한 小考.....朴聖實·高富子.....123
- 日本の服裝史における 日·韓의關係にといで.....山邊知行.....155

번역: 石宙善

- 開館紀念行事內譯.....168
- 博物館 利用案内.....172

開館 8주년기념 제7회 학술세미나 및 8회 특별전에 즈음하여

본 박물관 개관 이래 연례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개관기념 행사로 제7회 학술세미나 및 8회 특별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점차적으로 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우리 전통 문화에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도움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우리문화를 보존·발전시키는 일은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금년 3월6일부터 일본문화여자대학 복식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가운데 한국관계자료를 조사 분류하던 중 高宗의 女 德惠翁主의 服飾類·花粧도구등을 발견하므로써 또 하나의 귀중한 자료를 찾게되어 흐뭇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비록 國末의 것이긴 하나 옹주의 어린시절 복식은 남아있는 사진자료와 함께, 또한 이미 발표한 英親王家의 유물과 함께 왕실의 복식제도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외국의 여러곳에 死藏되어 있는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를 조속히 발굴하고 정리·보존하여 올바른 문화전달과 연구가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명실공히 복식전문박물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발굴된 출토복식을 정리·복원하여 수차례의 특별전을 개최하여 同學들의 많은 격려를 받아 왔는바, 금년에도 城南 출토 東萊鄭氏 출토복식(1529~1609)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출토복식의 정리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 속에 본 박물관 연구원들의 피나는 노력의 댓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작업이 보람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1989. 5.

단국대학교 부속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장 석주선

韓·中文官胸背樣式 比較小考

—朝鮮朝時代와 明·清代를 中心으로—

淑明女子大學校 博物館
裴貞龍

- 一. 序言
- 二. 朝鮮朝時代 文官의 胸背
 - 1. 胸背制定의 歷史的 考察
 - 2. 文官의 胸背樣式
- 三. 明·清時代 文官의 胸背樣式
 - 1. 明代 文官의 補文樣
- 四. 韓·中文官胸背樣式 比較
 - 1. 朝鮮朝 初期 文官胸背와 明代 文官胸背樣式 比較
 - 2. 朝鮮朝中·後期 文官胸背와 清代 文官胸背樣式 比較
- 五. 結語

一. 序 言

文官胸背라 함은 官服에 着用되었던 官階의 表象을 일컫는 것이다. 그 以外에도 胸背는 王을 위시하여 王妃, 大君, 君, 王子, 世子嬪, 公主, 翁主等 여러 階層에서 着用되었고, 또한 武臣도 着用하였던 것이다. 王의 正服인 袞龍袍에는 補라고 하는 둥근모양에 龍文을 刺繡하여 가슴과 등, 左右어깨 네 곳에 附着하였다. 王妃의 翟衣인 大紅緞等에는 五瓜龍圓補 大禮服에는 雙鳳凰補를 着用하였다. 大君은 麒麟胸背를, 王子·君은 白澤胸背를 附着하였으며 公主·翁主는 鳳凰胸背를 使用하였다. 文武官은 胸背라 하여 官服에 着用하였는데 文武官 다같이 네모 바탕에 文官은 鶴文을, 武官은 虎文을 刺繡하여 가슴과 등 두 곳에 着用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階層의 補 및 胸背는 朝鮮王朝實錄에 「我國允制度皆從華制」라고 자주 보이는 바와 같이 胸背 또한 中國의 冠服制度를 受用 하므로서 비롯된 것이다.

本稿에서는 여러 階層의 補 및 胸背中에서 文官胸背에 그 照準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하여 朝鮮朝 文官胸背의 受容이 어느때 부터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우리 官階에 어떻게 土着化 하였고, 또한 中國, 特히 明·清代의 文官補文樣의 樣式과 比較하여 그 差異點을 考察하므로써 朝鮮朝 胸背의 樣式的 特色을 究明하고자 한다.

本稿에 引用된 清代補는 지난 1983年 10月 22日부터 11月 20日까지 1個月間 溫陽民俗博物館에서 開催된 「韓·中胸背 比較 特別展」에 出品된 遺物資料로서 選定하였음을 밝혀 둔다.

二. 朝鮮朝時代 文官의 胸背

1. 胸背制定의 歷史的 考察

胸背는 朝廷冠服의 차림에서 冠帽·帶·後綬등과 같은 尊卑의 等差를 區分지우는 것이므로 官服制度의 變遷과의 關聯性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官服制度가 이루어진 것은 「百濟古爾王 二十七年下令 六品以上服紫 以銀花郎冠 十一品以上服緋 十六品以上服青」¹⁾이라 있으니 이미 三國時代 3世紀頃 百濟 古爾王 27(260)년에 百官의 公服이 制定 되었던 것이다. 新羅에서는 金春秋에 의한 「請改其章服以從華制」(眞德王2年, 648年)하였고 그 이듬해 부터 「始服中國衣冠」²⁾이라 하여 唐의 冠服制度를 따르면서 비롯 되었다. 高麗朝에서는 高麗史 百官志에 의하면 初期에는 「高麗太祖 開國之初 參用新羅 泰封之制」라

1) 增補文獻備考79 禮考26 章服條 參照

2) 三國史記 新羅本記 眞德王 二年條 高麗史72 志卷26 輿服條 參照

하였으니 新羅의 制度를 그대로 이어 받은 것 같고 그 뒤 光宗11(960)년에 百官의 公服이 制定되었다.³⁾ 그 後 明太祖(1368~1398)가 高麗 恭愍王(1351~1374)에게 冕服과 朝臣에게까지 冠服을 賜與⁴⁾함으로써 高麗는 君臣의 衣冠이 새로운 모습으로 登場되었다고 본다.

朝鮮王朝에 들어와서는 李太祖가 即位하자 元年 12月 12일에 都評議使司에서 翌年元旦부터 冠服을 입도록 할 것을 上啓하니 禮曹로 하여금 冠服制度를 詳定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高麗末 禔王 때에 明에서 「賜與冠服」한 그대로를 襲用한 것⁵⁾이었다. 이와같이 朝鮮朝의 冠服制度는 高麗末 以後 中國에서 賜與의 形式으로 傳受된 것 같다. 그러나 14,15世紀頃 朝鮮初期에는 王의 冕服및 冠服은 賜與에만 依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中國에 秦聞要請⁶⁾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朝鮮朝의 冠服制度는 三國時代 新羅以後 朝鮮王朝에 이르기까지 模倣또는 賜與 내지는 秦聞의 形式으로 中國의 冠服制度가 流入되었다고 보겠다.

그러면 그와 같은 冠服에 尊卑 또는 品階를 區分짓는 것으로서 着用되었던 文官胸背의 受容내지 定着은 어느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朝鮮王朝實錄에 記錄된 資料를 根據로 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朝服制度 改定論中 胸背制定의 必要性을 다음과 같이 議論하고 있다.

世宗實錄卷111 28年 丙寅 1月 23日

右議政河演 右參贊鄭麟趾等議 常服衣服 不要華麗 朝廷冠服 所以明等威辨尊卑 禮文之大節 朝服公服之制 既已行之 每月朝會及朝啓賜宴等時 服色混同 尊卑無別 實爲未便 各品胸背 亦依時王之制爲之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右議政 河演, 右參贊 鄭麟趾등은 平常時 衣服은 華麗한 것이 必要하지 않으나 朝廷의 冠服은 等差를 分明하게 하고 尊卑를 分別하는 것

3) 前掲 高麗史72 輿服條 光宗11年條 參照

4) 前掲書, 恭愍王 19年條 參照

5) ①太祖實錄 卷2 元年 12月 12日條,

②柳喜卿 「胸背考」, 民俗學論叢(石宙善教授回甲記念集), p. 36.

6) 太宗實錄 卷2 元年辛巳 12月 癸亥 答曰 中國禮制 不可行於藩國 請冕服曰秦聞則當製送 世宗實錄 卷103 26年甲子 3月 答曰冕服則既已秦請 皇帝特允所請 固爲喜事

이 禮文의 大節이라 하였다. 이어서 朝服과 公服制度는 이미 行하여졌는데 每月의 朝會와 朝啓·賜宴등에는 服色이 混同되어 尊卑가 無別한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各品の 胸背도 또한 時王의 制度에 依據하여 만들 것이라고 함으로서 各品階의 胸背를 制度化할 것을 強調하고 있다.

그러나 前條에 이어서 領議政 黃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領議政黃喜議 崇儉朴抑奢靡 爲治之先務 臣常慮國家 似有文勝之弊 段子紗羅 非本土所產 而胸背尤爲難備 且尊卑等威 既以金銀角帶而定制矣 何必胸背而後別也 說者 托以野人亦着胸背 而本國反不及焉爲辭 然本國素稱禮義之邦 豈與野人爭華靡 誇富貴哉 但朝服 只宜淨潔 上從喜議

即 “儉素를 崇尚하고 사치를 抑制하는 일은 政治의 先務이다. 段子·紗羅등 비단은 우리나라 所產이 아니며 胸背는 더욱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어서 “尊卑의 等差는 이미 金銀角帶로서 制度化 되었는데 하필 胸背를 着用하고 있어야 區分이 되겠는가 野人도 胸背를 着用하고 있다. 우리는 平素에 禮儀之國이라 稱하고 있는데 어찌 오랑캐와 華靡를 다투겠는가”하며 反論을 펴니 世宗은 黃喜(1363~1452)의 論議에 따라 胸背制度를 마련하지 않은 것 같다. 이와같은 것은 世宗朝 即 1446年頃까지는 아직 胸背가 널리 制度化되지 않았고 胸背制定의 必要性만이 擡頭되기 始作하고 있음을 示唆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前言한 바와 같이 黃喜가 「胸背尤爲難備」라고 하여 胸背는 더욱 準備하기가 어렵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後代의 일이지만 中宗 11年 10月 甲戌에 傳敎하기를 “紗羅綾段은 옛부터 있었다. 지금 奢侈하기 때문에 禁하려함은 옳다. 그러나 一切 禁할 수는 없다. 天使·倭·野人에게 잔치를 베풀 때에는 입지 않을 수 없고 또한 胸背는 綾段이 아니면 붙일 수가 없다.”⁷⁾고 하였다. 또한 同年 同月 丁丑에 用漑 아뢰기를 “겉

7) 中宗實錄 卷26 11年丙子 10月甲戌 傳曰紗羅綾段 自古有之 今因奢侈而欲禁之 可矣 然不可一切禁之 天使倭野人宴享

옷은 곧 禮服인데 胸背를 무명옷에는 붙일 수 없습니다. 만일 禁한다면 朝廷의 光彩가 없어질 것입니다. 婦女들은 男便의 官職에 따르도록 한다면 等級 또한 分明해질 것입니다”⁸⁾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儉朴을 崇尚하고 奢靡를 抑制하는 것은 政治의 先務”라고 力說한 黃喜에게는 紗羅綾段이 아니면 붙일 수 없는 胸背의 脆弱性 때문인 것으로 본다. 다른 하나의 理由는 훨씬 後代의 일이지만 燕山君 10年 11월에 傳敎하기를 “胸背金線은 工程이 細密하여 만들기 어려우니 그 織工및 針線婢를 많이 익히도록 하여 能한 者는 優待하여 賞주고 能하지 못한 者는 罰을 주라”⁹⁾고 있으니 胸背製作의 어려움에 起因하였으리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前言한 世宗 28年(1446)에 胸背制定의 必要性和 不用性의 論議가 擡頭되기 앞서 世宗 8年(1426)에 禮曹에서 傳旨하기를 “使臣迎接時에 各色胸背와 紗羅匹段 11匹을 宮中에서 내다가 雜伎人에게 입을 衣服을 만들어 주도록 한 것은”¹⁰⁾ 앞서 밝힌 河演, 鄭麟趾등이 “朝服·公服은 이미 尊卑의 等威가 行하여졌다”고 한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같이 朝服·公服에 胸背가 定着段階에 이를 즈음 中國皇帝의 下賜品에서 各樣各色의 胸背가 明記됨으로서 우리나라에 胸背가 受容되는 一面을 살필 수 있다.

世宗實錄卷127 32年 庚午 閏1月 丙午

特茲詔示 賜以禮物 尙益摠忠 永固藩屏 賜國王粧花絨錦明黃一段…中略…紵絲織金胸背獅子紅一匹 織金胸背白澤紅一匹 織金胸背麒麟青一匹 織金胸背麒麟綠一匹 …下略…라고 있다 이것은 中國皇帝가 特別詔示를 내리고 永久히 諸侯國으로서 忠誠을 다짐하면서 禮物을 賜與한 것인데 그것은 織金으로된 獅子·白澤·麒麟

8) 前掲書 同年同月丁丑 用漑曰表衣則乃禮服也 胸背不可付木繇衣也 若禁之則朝采理沒 婦女從夫 則等級亦明矣

9) 燕山君實錄 卷56 10年甲子 11月辛卯 傳曰胸背金線 工密難就 其織工及針線婢 令多傳習 能者優賞 不能者決罰

10) 世宗實錄 卷3 18年丙午 2月甲申 傳旨禮曹 內出各色胸背 紗羅匹段拜十一匹 使臣迎接時 雜伎人所着衣服造給

등을 施文한 胸背였다.

그 뒤 文宗 元年 4월에 皇帝의 下賜物中에 “織錦胸背麒麟紅·靑·綠色 各各 二匹씩이고 織錦胸背白澤¹¹⁾이 있으며 同年 7월에도 “紵絲織金胸背麒麟紅·靑·綠色 各各 二匹씩과 織金胸背獅子紅·靑·綠色 各各一匹씩을 下賜하였다.¹²⁾ 勿論 以上 例示한 下賜胸背는 王公들에게 賜與한 것이지만 훗날 胸背文樣詳定에 影響된 것이라고 본다.

中國皇帝의 賜與 내지 下賜品으로서 傳受된 朝鮮朝의 胸背는 世宗朝에 諸臣에 依하여 胸背制度의 必要性이 擡頭된 以來 端宗 2年(1454) 6月初에 다시 檢訂官 梁誠之(1415~1482)가 經筵에서 啓言한 바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卽 “지금 士庶人의 儀制에 禁令이 모두 없어져서 臣은 上下가 無等한 것을 두려워하니, 請컨대 公服에 胸背를 하여 朝廷의 典章을 嚴하게 하고서”¹³⁾하며 公服에 胸背를 着用할 것을 아뢰었다.

이와같이 胸背制定의 必要性이 자주 擧論되는 가운데 그해 12월에 비로소 文武官 常服 胸背文樣이 決定되었다.

端宗實錄卷12 2年 甲戌 12月

議政府據禮曹呈啓 文武官常服 不可無章 謹稽皇明禮制 文武官員 常服胸背方花樣 已有定式 用雜色紵絲綾羅紗繡或織金 各照品級穿着 請自今 文武堂上官 並着胸背 其花樣 則大君麒麟 都統使獅子 諸君白澤 文官一品孔雀 二品雲雁 三品白鶻 武官一二品虎豹 三品熊豹 大司憲懈芴 且凡大小人 毋得着白笠 入闕門內 從之.

하였다. 上記內容을 간추려 보면 端宗 2年 文武官員 常服에 胸背를 着用하는데 그 資料는 雜色紵絲, 綾羅紗로 하고 製作方法은 繡를 놓거나 織金¹⁴⁾하였다. 그리고 胸背의 着用은 文武堂上官¹⁵⁾以上이며 그 文樣(花樣)은 大君은 麒麟, 都統使는

11) 文宗實錄 卷7 元年辛未 4月壬寅條 參照

12) 文宗實錄 卷8 元年辛未 7月辛酉條 參照

13) 端宗實錄 卷11 2年甲戌 6月壬午 檢訂官梁誠之 於經筵啓曰令士庶人儀制 禁令盡除 臣恐上下無等 請服胸背 以嚴朝章命議大臣

14) 金欄이라고도 하며 金泊을 종이에 붙여서 가늘게 자른 平金絲로 짠다.

15) 朝鮮朝 官階를 二分한 階制·文官은 正3品인 明善大夫, 奉順大夫, 通政大夫, 宗親府, 都正, 弘文館副提學, 春秋館修撰官以上, 武官은 正3品인 折衝將軍以上の 벼슬에 있는 者를 指稱함.

獅子, 諸君은 白澤이다. 文官一品은 孔雀, 二品은 雲雁, 三品은 白鷗이며 武官一品은 虎豹, 三品은 熊豹 大司憲은 懈芻로 함으로서 드디어 文武官 常服胸背의 樣式이 決定되었다.

그런데 上記한 바와 같이 이미 胸背의 品階가 詳定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56年 世祖 2年에 承政院에 다음과 같은 內容으로 傳敎를 내렸다. 即 “우리 朝廷의 1品官은 中國朝廷의 3品에 准하니 그 胸背에 分別이 없을 수 없다. 내가 都統使가 되었을 때, 이미 詳定하여 立法하였는데 近來에 宰相들의 胸背에 分別이 없다. 이제 明나라 使臣이 將次 이를 것이니 禮曹로 하여금 等殺대로 考察하여 織造해서 입는데 해당하는 자에게 내려주게 하라”¹⁶⁾고 指示한 것을 보면 品位別로 胸背의 着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 今後 品階에 따른 胸背文樣着用的 傳敎는 다음과 같다.

燕山君實錄卷60 11年 乙丑 11月

甲辰傳曰 聞中國朝士時服 不拘品秩 皆用胸背 我國允制度 皆從華制 今後東西班 自一品至九品 皆用胸背 以猪鹿鵝雁之類 定其品秩

即 이 記錄에 의하면 燕山君11(1505)년까지는 三品以上 堂上官에게만 着用되었던 胸背가 이제부터는 中國制度에 따라 1品에서 9品까지의 堂下官에 이르는 모든 官僚가 着用하게 된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나타났던 明의 冠服制度에 따른 胸背文樣과는 相異한 朝鮮朝의 特有한 文樣을 選定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서 世宗朝以來 胸背着用은 三品以上 堂上官에만 限定되어 있었으나 16世紀 以後부터 幅넓게 全官僚에게 受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樣式에 있어서도 그 主題를 돼지(猪)·사슴(鹿)·따오기(鵝)·기러기(雁)를 採擇하였는데 이와같은 文樣은 우리와 親近한 것들로서 韓國的인 것으로 土着化되어 가는 現象인 것으로 보냈다.

肅宗17(1691)年에 大運이 아뢰기를 “또한 文武官團領 胸背가 各各 定해진 制

16) 世祖實錄 卷3 2年丙子 2月條 傳于承政院曰我朝一品官 准中朝三品 其胸背不可無別 予爲都統使時 已詳定立法 近來宰相胸背無別 今明使將至其令禮曹 考定等殺織造 以賜應服者

도가 있어서 文官은 飛禽을 使用하고 武官은 走獸를 使用하는데 지금은 뒤섞여 文章이 없으니 또한 마땅히 申筋해야 합니다. 王께서는 아울러 舊制를 遵行하도록 하소서”¹⁷⁾하였고 이것과 類似한 內容이 燃藜室記述¹⁸⁾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英祖10(1734)년에 王이 召對에 납시어 敎示하기를 “章服의 等差는 스스로 定해진 制度가 있는데 近來에 심히 紊亂하다”하고 다시 “胸背에 있어서 文官은 飛禽을 繡籠고 武臣은 走獸로서 形象하여 그 取한 바의 뜻이 各各 條理가 있는데 近來에 武臣들이 或은 鶴胸背를 着用하고 있으니 今後は 特別히 申筋을 더하라”¹⁹⁾고 하였다.

以上에서 肅宗朝의 大運의 進言과 英祖의 敎示는 文武官 胸背樣式의 混用과 武臣들의 鶴胸背 着用등 으로 文武官胸背의 紊亂함을 端的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後 英祖22(1746)년에 刊行된 續大典에 依하면

堂上三品以上—大小朝儀에는 검은 綠色의 紗緞을 쓰며 胸背는 雲鶴을 繡籠고 武臣의 胸背는 大典과 같다.

堂下三品以下—大小朝儀에는 黑色 紵絹을 쓴다. 胸背는 白鷺를 繡籠는다. 武臣은 大典의 武臣堂上和 같다.²⁰⁾

고 記錄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때 부터 朝鮮朝 胸背樣式은 文官堂上 三品以上은 雲鶴文樣을 使用하고, 堂下 三品以下는 白鷺이며 武官은 堂上·堂下를 莫論하고 大典과 같다고 하였으므로 虎豹²¹⁾로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續大典의 記錄으로는 文武官 胸背樣式이 法的으로 確固하게 詳定된 것은 1746년이지만 上記한 續大典의 胸背文樣이 使用된 것은 이미 以前에 行해지

17) 肅宗實錄 卷23 17年辛未 3月 且文武官團領胸背 各有定制 文用飛禽 武用走獸 而今則混雜無章 亦宜申筋 上並令遵舊例

18) 燃藜室記述 卷13 參照

19) 英祖實錄 卷39 10年甲寅 12月丁未條 參照

20) 續大典 卷3 禮典 儀章 參照

21) 經國大典 卷3 禮典 儀章 參照

고 있었던 것 같다.²²⁾

그 뒤 高宗 2(1865)년에 엮은 「大典會通」에 의하면 文官堂上官의 胸背는 雙鶴, 堂下官은 單鶴이며, 武官堂上官은 雙虎, 堂下官은 單虎로 改定되었다. 이 制度는 高宗 21(1884)年 官制服改定때에도 “胸背를 달아서 文武階品の 區別을 삼게 한 것²³⁾을 보면 胸背着用은 朝鮮王朝末까지 그대로 이어서 使用되었던 것이다.

以上 胸背에 關해서는 大小朝儀進見과 闕内外公故가 있을 때만 重點的으로 다루어 보았다.

다음은 끝으로 宗社親祭時 또는 公除²⁴⁾後 諸臣의 冠服차림 가운데 胸背를 보면 正祖10(1786)年에 敎示하기를 “出還宮時에 임금의 無揚黑團領袍를 입었으니 百官도 마땅히 胸背와 品帶를 除去하고 無揚黑團領을 입어야 한다.”²⁵⁾고 하였다. 또한 純祖16(1816)年에도 禮曹에서 아뢰기를 “公除後…中略…殿座와 動駕때 參班하는 諸臣들은 無紋黑團領에 胸背를 除去하고 黑角帶를 하기로 마련 하였읍니다. 하니 允許하였다.”²⁶⁾라고 있다. 이것은 國喪때나 宗社親祭時에는 王을 위시해서 百官의 冠服은 簡素하고 謹嚴하였으므로 마땅히 胸背着用이 除去되었던 것이다.

2. 文官의 胸背樣式

우리나라 胸背는 中國으로 부터 下賜 및 賜與 또는 文物交換의 形式으로 受容되었다. 다음은 그러한 胸背文樣에 表現된 樣式을 分析함으로써 中國의 胸背樣式이 朝鮮朝에 土着化되는 樣相을 究明하고자 한다.

①孔雀胸背

이미 前項에서 言及한 明皇帝의 賜與品中 胸背樣式은 織金獅子·白澤·麒麟등

22) 趙英玉, 「朝鮮朝時代の 王族 및 文武官의 補·胸背制度」, 清州師範大學 「論文集」第11輯(1982. 3), p. 458.

23) 高宗實錄 卷21 21年甲申 閏5月 24日條 參照

24) 임금이나 王妃가 逝去한 뒤 一般公務를 中止하고 26日 동안 吊意를 表하던 일

25) 正祖實錄 卷21 10年丙午 6月丁亥條 參照

26) 純祖實錄 卷19 16年丙子 1月癸巳條 參照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筆者가 寡聞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밝혀진 遺物이 없는 것 같다.

孔雀胸背는 端宗2(1454)년에 文武官胸背가 制定됨에 따라서 文官一品 胸背樣式으로 詳定되었다. 孔雀胸背樣式的 制定은 明나라 制度를 따른 것으로서 「王國二等遞降原則」에 따라 明의 三品胸背花樣²⁷⁾을 朝鮮朝에서는 一品의 胸背文樣으로 使用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二等遞降의 原則은 高麗末 恭愍王때 明太祖가 下賜한 王의 冕服, 中國冠服과 아울러 群臣陪祭冠服은 模造品이기는 하였으나 中國에 比하여 「二等遞降原則」에 따라 받았던 것²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또한 그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世祖2(1456)년에 胸背等級規定을 承政院에 傳敎한 “我朝一品 准中朝三品 其胸背不可無別”이라고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孔雀胸背의 遺物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다만 國立中央博物館과 個人所藏의 肖像畫에 그려진 몇點의 孔雀胸背를 參考로 하여 그 樣式을 알아 보고자 한다.

1) 趙誼(14世紀中葉~15世紀初)의 官職은 正一品 領中樞府事이다. 그의 胸背(圖1)는 赤色바탕에 上段에는 옆으로 如意骨朶雲²⁹⁾을 配列하고 左右에는 두송이의 滿開된 牡丹이 있다. 그 사이로 한마리의 孔雀은 下向하며 나르고 다른 한 마리는 앞아서 正面을 直視하고 있으나 그 孔雀의 下半이 角帶에 가려져 있으므로 자세히 알 수 없다.

2) 張末孫(1431~1486)의 官職은 1459년에 崇文院博士·禮曹佐郎을 지내고, 1467년에는 僉知中樞院事·海州牧使등을 歷任했고, 1482년에 延福君으로 封해졌다. 그의 胸背(圖2)는 上段 中央은 如意雲文이 있고 周圍에는 藤唐草와 갈대·대잎 및 꽃잎이 가득한 가운데 公작 한 쌍이 마주보며 바위에 서 있다. 다른例의 胸背와는 다르게 密集된 構圖가 特色있다. 이 孔雀胸背는 張末孫이 延福君으로 被

27) 明會典 卷之六十一 參照

28) 柳喜卿 前掲書, p. 38.

29) 骨朶는 明代 王圻의 三才圖會에 의하면 棍棒끝에 동마늘 모양의 무쇠를 붙이는 것인데 骨朶雲은 그와 같은 모양을 일컫는다.

封된 以後 即 1482年以後의 것으로 推定할 수 있겠다.

3) 鄭琢(1526~1605)의 官은 左議政을 지냈다. 이 胸背(圖3)는 丁酉再亂 때 東宮을 扈從하여 1604년에 扈從功臣 3등에 封해졌을 當時의 功臣圖像의 胸背圖인 것 같다. 胸背의 樣式은 赤色 바탕에 上中端에는 如意骨朶雲을 配列하고 날개를 활짝 편 한마리의 孔雀이 下向하며 나르고 한마리는 上向하고 있으나 玳瑁帶에 가려져서 下端은 보이지 않지만 날개를 활짝 편 形象이 飛翔하고 있는 모습이다. 中段 左右에는 滿開된 牡丹두송이를 화려하게 施文하였고 모든 文樣色은 綠·靑·黃·白色으로 構成시켰는데 이 胸背가 화사한 것은 붉은 바탕색과 탐스럽게 활짝 편 牡丹文 때문인 것 같다. 이 다른 한 마리의 孔雀 右上向하고

4) 李山海(1539~1609)의 官職은 領議政이다. 그의 胸背(圖4)는 赤色 바탕에 上半은 左右에서 如意骨朶雲이 옆으로 흐르는 사이에 날개를 힘차게 편 孔雀이 右 下向하며 飛翔하고 있다. 下段은 滿開된 牡丹 사이에 다른 한 마리의 孔雀이 右 上向하고 있으나 아랫쪽 孔雀은 역시 玳瑁帶에 가려져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나타난 윗부분의 날개가 펼쳐져 있으므로 나르려는 姿勢로 있는 孔雀 일 可能性이 크다.

5) 李元翼(1547~1634)의 官職은 領議政이다. 그의 胸背(圖5)는 赤色絹 바탕에 上段에는 옆으로 如意骨朶雲을 놓고 中央에는 滿開된 牡丹을 사이에 두고 右側 孔雀은 怪石上에서 뒤돌아 보고 서 있으며 左側 孔雀은 조금 낮은 곳에서 右向하여 올라다 보고 있다. 이것 역시 下段은 角帶에 가려져 不明하다. 이 胸背는 全體的으로 構圖上 單調로 우면서도 自然美를 簡潔하게 調和시키고 있으며 明會典의 5品用 白鷺의 布置와 類似점이 많다.

6) 柳根(1549~1627)은 李滉의 門人이며 壬辰倭亂 때에는 王을 慶州에 扈從하여 吏曹參判에 올랐으며 그 후 都承旨·漢城府判尹·禮曹判書등을 거치고 宣祖 37(1604)年에는 扈聖功臣 三等으로 晋原府院君에 封해졌으며 39(1606)年에는 左贊成이 되었는데 이 胸背(圖6)는 그때의 것으로 文官一品 胸背樣式이다. 上半은 如意骨朶雲을 옆으로 흐르게 配列하고, 그 밑에는 滿開된 牡丹文 사이에 날개를 활짝 편 한마리의 孔雀이 下向하고 있으며 다른 한마리의 孔雀은 마주 보며 上向하고 있는데 밑부분은 역시 角帶로 因해서 그 모습을 자세히 알 수 없다. 胸背의

樣式中에서 構圖는 李山海(圖4)의 胸背와 비슷하다.

1)李貴(1557~1633)의 官職은 吏曹判書이며 1623年 仁祖反正에 참여 靖社功臣 一等으로 延平大院君에 封해졌는데 이 胸背(圖7)는 그때 것으로 推定된다. 樣式은 赤色바탕에 上段에는 左右에 五色의 渦卷雲이 있고 그 밑에는 滿開된 牡丹을 施文 하였으며 中央 上端에는 힘차게 날개를 편 孔雀이 口에는 孔雀깃털을 물고 아름다운 動作으로 下向하며 나르고 있으나 이 胸背도 역시 角帶에 가려서 下段은 不明하다. 李貴의 胸背圖는 어느 孔雀胸背圖보다 鮮明·簡潔한 布置가 印象的이다.

②雲雁胸背

端宗2年の 胸背制定에서 雲雁胸背가 文官2品으로 定해진 것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雲雁胸背 역시 孔雀胸背와 같이 遺存하는 實物이 稀貴하므로 肖像畫에 圖寫되어 있는 것을 主로 參考로 하였다.

1)申叔舟(1417~1475)는 1447年 應敎로 特進하고 1458年(世祖4年)에 右議政·左議政으로 昇任하였으며, 1460年 江原·함길도 都體察使로서 北方 野人의 征伐에 功을 세우고 領議政에 이르렀다. 이 胸背(圖8)는 緋는 綠色 안은 赤色으로된 官服에 같은 綠色바탕에 織繡한 것으로 보인다. 樣式은 上端과 中央에 結束된 如意雲文이 있고; 中間 左右側에는 영성한 나무가지에 활짝핀 牡丹이 施文 되었으며 그 사이에 1雙의 雲雁이 마주 보며 서 있다. 이 胸背圖는 1455年 佐翼功臣時의 것으로 生覺된다. 그런데 申叔舟肖像畫에 보이는 胸背圖는 朝鮮朝의 胸背着用時期를 살피는데 크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申叔舟像 以前의 肖像畫에서는 胸背着用을 볼 수 없는데 이것은 胸背施行이 世祖年間에서 비로소 實效를 거둔 때문인 것으로 思慮된다. 그런데 刺繡技法에 있어서도 申叔舟像 및 敵瀛功臣像에 보이는 胸背는 中期以後 肖像畫에 나타나는 繡胸背와는 다르게 織繡 또는 金泊胸背라는 것이 注目된다.³⁰⁾

2)洪可臣(1541~1615)은 1596년에 이르러 李夢鶴亂을 平征한 功으로 刑曹參

30) 趙善美, 「朝鮮王朝時代의 肖像畫 研究」 弘益大學校大學院 文學博士學位論文, p. 186.

判·江原道 觀察使를 역임하고, 1604년에 淸節功臣, 이듬해에 寧原君으로 封해졌으며 1610년에 刑曹判書를 지냈다. 이 胸背(圖9)는 上·中端에 如意骨朶雲, 中央에는 날개를 힘껏 펴고 下向하는 기러기와 아래에서 바라보고 서 있는 기러기가 있으며 左右에는 滿開된 탐스러운 牡丹두송이가 施文되었다. 그러나 角帶에 가려져서 윗쪽을 바라 보고 있는 기러기등 下端은 볼 수 없다.

3)申應槩(1553~1623)은 1600年 利川府使·工曹參議를 거쳐 1623년에 刑曹參議左副承旨등을 지내고 春川府使도 歷任했다. 이 胸背(圖10)는 上端을 如意骨朶雲으로 채우고, 中央에는 날개를 활짝 펴고 右下向하는 기러기와 下端에는 마주쳐다 보며 서 있는 기러기가 있으나 角帶로 因해서 不明하다. 그사이 左右에는 滿開된 여러송이의 牡丹이 華麗하게 施文되고 있어서 裝飾性이 돋보이는 意匠이다.

4)李時白(1592~1660)의 官職은 兵曹參判·工曹·吏曹判書를 거쳐 領議政에 이르렀다. 이 胸背(圖11)의 構造는 赤色바탕에 上·中端 左右側에는 길게 如意骨朶雲이 整然하게 놓였고, 中央에는 날개를 힘차게 편 기러기가 下向하고 있으며 기러기 左右에는 각기 한송이의 탐스런 牡丹을 配列하고 있다. 이 胸背 역시 下端은 鶴頂帶에 가려서 不明하지만 樣式上 特異한 것은 左右側 牡丹 아래 蓮花와 갈대잎이 새롭게 보이고 있는 点이다.

5)柳頌(1597~1666)는 官職이 僉知中樞府事·副總管을 歷任했다. 이 雲雁胸背(圖12)의 構造는 上端에 如意骨朶雲을 길게 두고 中央에는 1雙의 기러기가 上下에서 마주 보며 飛翔하고 있다. 그 사이 左右에는 滿開된 牡丹 여섯 송이를 高루 安配하여 짜임새 있고 화려하게 꾸미고 있다.³¹⁾

6)尹儁(1617~1680)는 顯宗15年 1674년에 ②品인 吏曹判書를 지냈다. 이 胸背(圖13)의 樣式은 上端에 길게 如意骨朶雲文을 配列하고 그 사이에 날개를 활짝 편 기러기가 下向하고 있으며 下端에는 위를 마주 바라 보며 서 있는 기러기가 있다. 그 사이에는 탐스럽게 滿開된 牡丹과 갈대잎이 있으나 역시 下端은 角帶에

31) 前掲書 趙英玉, 「朝鮮朝時代의 王族 및 文武官의 補·胸背制度」, p. 473.

가려서 볼 수 없다.

7) 雲雁胸背(圖14)는 1650年代로 推定³²⁾하고 있다. 이 胸背의 樣式은 上端 左右 側에 如意雲文이 있고 中央과 下端에는 날개를 펴고 下向하는 기러기와 마주 보며 怪石上에 서 있는 기러기가 있다. 그 사이에는 오른쪽에 牡丹 두송이, 왼쪽에 水蓮 두송이에 갈대잎을 施文하고 있다. 이제 까지 살피 본 雲雁胸背圖는 下端이 角帶에 가려서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出土品 胸背로 因해서 雲雁胸背樣式의 全面을 자세히 볼 수 있으므로 貴重한 資料라고 본다.

③ 白鷗胸背

白鷗胸背는 前期한 端宗2(1454)年의 胸背始制에서는 文官3品으로 制定되었으나 英祖 22(1746)年의 續大典에서는 堂下③品以下에 白鷗을 繡弄게 하였다.

1) 尹重三(1563~1618)의 官職은 戶曹參判을 지냈다. 이 胸背(圖15)의 構造는 赤色바탕에 上段은 如意骨朶雲文이 있고 中段에는 對角線으로 滿開된 牡丹을 여러송이 두고 있는 사이에 마주 보며 上下로 飛翔하는 1雙의 白鷗이 施文되었는데 主題飛禽의 크기가 全面構圖에 比해서 큰 느낌을 준다. 이 胸背圖 역시 角帶에 가려져 下段은 볼 수 없다.

2) 李士慶(1569~1621)은 官職이 大司諫이다. 이 胸背(圖16)는 正③品用인 白鷗인데 그 樣式은 赤色바탕에 上端에는 길게 如意雲文을 配列하고 中間에는 左右에서 서로 마주 보며 날으는 白鷗 1雙을 施文하였고, 下端에는 탐스럽고 큰 牡丹 한송이와 나무앞에 가려진 작은 牡丹 두송이를 圖寫하고 있다. 그런데 이 胸背는 樣式上 特異한 樣相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까지 살핀 孔雀·雲雁胸背樣式中에서 主題文樣인 孔雀과 기러기가 大部分 上下로 飛翔하고 있는것과는 달리 左右에서 마주 보며 날고 있는 点이다.

3) 張維(1587~1638)의 官職은 右議政을 지냈고 仁祖反正에 가담 靖社功臣二等에 封하였으며 新豐府院君에 封하기도 하였다. 이 胸背(圖17)는 傳張維肖像의 것인데 上記한 벼슬 以前것으로 보겠다. 그 樣式은 上端에 如意骨朶雲文을 두고

32) 石宙善著, 「胸背」 民俗資料 第1輯 (1988再版), p. 36, p. p.114 參照

中央에는 날개를 편 白鷗이 下向하고 있으며, 下段에는 마주 바라보는 白鷗의 날개 한쪽과 頭形만이 보일 뿐이고 그 左右에는 역시 滿開된 牡丹 몇송이를 施文하고 있는데 그 밑은 볼 수 없다.

以上과 같이 살펴 본 孔雀胸背와 雲雁 및 白鷗胸背의 樣式을 綜合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胸背바탕은 赤色絹地를 使用하고 있다. ②主題文樣인 孔雀과 기러기는 大部分 上下로 마주 보고 있으며, 위의 飛禽은 날개를 활짝 펴고 下向하고 있으나 아래에 있는 飛禽은 岩上에 서 있으면서 上向하는 形狀이다. ③上段은 大部分 如意骨朵雲文으로 길게 메꾸고 있다, ④中·下端 左右에는 大部分 滿開된 탐스런 牡丹을 施文 하였고, 主題文이 기러기의 경우 蓮花와 갈대를 함께 곁들인 것도 있다. ⑤下段의 樣式은 角帶에 가려져서 거의 볼 수 없다.

④雲鶴胸背

雲鶴胸背가 文官의 胸背樣式으로 改定된 것은 英祖22(1746)年인데 續大典에 있는 것은 다만 「堂上三品以上 雲鶴胸背」라고 있다. 그러나 그후 高宗2(1865)年 大典會通에 의하면 「文官堂上官의 胸背는 雙鶴, 堂下官은 單鶴」으로 되어 있으므로 文獻上으로는 雙鶴과 單鶴의 着用이 1865年 以後로 보겠다. 그러나 實際로 着用한 것은 훨씬 以前인 것으로 본다. 그 까닭은 모든 法制定은 이미 行해지고 있는 事項을 다시금 묶어서 詳定하는 것이 凡例이기 때문이다. 雲鶴胸背는 遺存하는 遺物이 많아서 多樣하게 接할 수는 있으나 그 大部分은 어느 벼슬아치의 遺品인지 그 主人公을 確認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本考에서는 考證할 수 있는 肖像畫에 圖寫된 胸背와 主人公이 確認되는 遺品 몇 點만을 選定하여 究明하고자 한다.

(1)雙鶴文胸背

1)南九萬(1629~1711)의 官職은 領議政이므로 肖像畫의 胸背圖(圖18)는 雙鶴文이다. 그 構造特徵은 上段에 五色의 渦卷 또는 如意雲文이 施文 되었으며 中央에는 날개를 활짝 편 한 마리의 鶴이 머리를 左向하고 아래로 飛翔하며 그 밑에는 火焰가운데 如意珠文으로 裝飾하였다. 下端에는 역시 날개를 편 鶴이 右向하여 마주 보며 위로 나르고 있으나 玳瑁帶와 옷소매가 가리워서 下端은 不明하다.

이 胸背에서는 樣式上 혼하지 않는 文樣이 施文되고 있다. 即朝鮮朝 胸背中에서 보기 드문 如意珠文이 圖寫되고 있는 것이 異彩롭다.

그런데 여기에서 雙鶴胸背 着用時期가 問題된다. 南九萬의 肖像畫胸背는 그의 末年의 것이라고 해도 英祖20年에 文官胸背가 雲鶴으로 改定되기 30余年前에 該當된다. 그렇다면 續大典의 記錄以前부터 3品堂上官 以上은 이미 雙鶴胸背를 着用하였거나 아니면 肖像畫가 後代에 製作되었을 可能性이 있다.

2)申翼相(1634~1697)의 官職은 肅宗時 右議政을 歷任하였다. 이 胸背(圖19)는 上·中段에는 如意骨朶雲文을 配列하고 그 中央에는 左下向하며 나르는 한마리의 鶴과 다른 한마리의 鶴은 아래에서 上向하고 서 있다. 下端은 角帶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몇개의 波壽文이 圖寫되고 있다. 이 胸背의 鶴날개깃은 길고 간격이 넓다.

3)李宜顯(1669~1745)의 官職은 領中樞府事이다. 이 胸背(圖20)의 樣式은 上·中段은 如意雲으로 메꾸고 中央에는 1雙의 鶴이 上下로 마주 보며 나르고 있다. 그런데 下向하는 鶴의 머리는 左向하고 上向하는 鶴의 머리는 右向하는 것이 常例인데 이 胸背의 樣式은 反對로 向하고 있는 것이 特異하다. 이것 역시 角帶로 因하여 下段은 볼 수 없다.

4)尹汲(1679~1770)의 官은 判書·大司憲을 지냈다. 이 胸背(圖21)의 樣式은 鴉青色 바탕에 上中段까지 如意雲文으로 가득 채워졌고 上端 中央에는 日象이 떠 있는데 이와같은 해무늬는 姜世晁(1713~1791)의 胸背圖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日象 밑에는 雙鶴이 上下로 마주 보며 나르고 있고 下段에는 怪石에 7개의 잎이 있으며 그 左右에는 波壽文이 施文 되었다. 이 胸背도 역시 角帶에 가려져 있으므로 最下段까지는 알 수 없다.

5)李周鎭(1691~1749)의 官은 禮曹·兵曹判書·判敦寧府事를 지냈다. 이 胸背(圖22)의 樣式은 上端과 中間 左右側에 如意雲文을 두고 中央에 上下로 마주 보며 날으는 雙鶴을 施文하였으며 下段은 怪石에 나무잎 세개와 波壽文으로서 꾸몄는데 下端은 소매에 가려져 不明하다.

6)李吉輔(1699~1771)의 官職은 工曹判書·大司諫·大司憲을 歷任했다. 이 胸

背(圖23)의 樣式은 上端과 中間 左右側에 약간 긴 如意雲文이 五色玲瓏하게 있고 中央에는 마주 보며 나르는 雙鶴을 配列하였다. 右側上端에는 紅色日象을 施文하고 下段에는 三山怪石에 波狀文이 보인다.

7) 洪象漢(1701~1769)의 官은 判書·世孫師傅를 지냈다. 이 胸背(圖24)의 樣式은 上段에 五色으로 如意雲文을 자수하고 中央에는 날개를 활짝 편 1雙의 鶴이 마주보며 날고 있다. 上段에는 구름에 반쯤 가려진 紅色의 日象을 施文하였고 下段은 角帶로 因해서 알 수 없다.

以上 살펴 본 雙鶴胸背樣式 以外에도 大同小異한 肖像畫가 多數 있는데 胸背樣式變遷에 重要한 資料이므로 다음에 列舉하기로 한다.

金錫胄(1634~1684, 金宗九所藏)

黃 欽(1639~1730, 洪起駿所藏)

任 望(1640~1724, // //)

申 鉉(1642~1725, // //)

李 濡(1645~1721, // //)

洪萬朝(1645~1725, // //)

李善溥(1646~1721, // //)

金昌集(1648~1722, // //)

鄭 澁(1648~1736, 趙重九所藏)

金宇杭(1649~1723, 洪起駿所藏)

申思喆(1671~1759, 國立中央博物館所藏)

尹陽來(1673~1751, // //)

趙遠命(1675~1749, // //)

趙文命(1680~1732,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所藏)

以上 胸背가 圖寫된 여러 肖像畫는 1650年代에서 1760年代까지 約110年間에 걸친 것으로서 비록 胸背의 遺物은 아니지만 當時 畫員들에 의해서 그려졌고 大

多數 考證된 資料들이므로 胸背樣式의 變遷을 살피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 時期(1650~1760)의 肖像畫胸背에는 後期 肖像畫胸背에 圖寫되는 不老草가 全혀 表現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1760年以後 1769年에 卒한 洪象漢이나 1771年에 卒한 李吉輔의 肖像畫胸背에서도 不老草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肖像畫에 圖寫된 胸背樣式을 考察하였으나 다음에는 1760年代以前에 遺物胸背 2點을 살펴 보기로 한다. 이 胸背(圖25·26)들은 現在「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의 所藏品이다.

8) 鄭泰齊(1612~1659)의 官은 吏曹參議, 承旨를 歷任했다. 이 胸背(圖25)는 菊堂 鄭泰齊의 出土遺物로 1987年 3月 京畿道 驪州郡 占東面 東萊鄭氏墓 移葬中에 多量의 服飾과 함께 出土되었다.³³⁾ 胸背의 樣式은 上中左右側에 如意骨朶雲文이 施文되었고 中央에는 날개를 활짝 편 雙鶴이 上下에서 마주 보며 날고 있다. 下段에는 怪石에 나무잎 5개, 波壽文, 波狀文등의 長生文과 珊瑚및 八寶文(혹은 七寶文中에서 輪寶로도 볼 수 있다.)中에 瓶寶 두개를 施文하였는데 하나는 珊瑚 밑에 다른 하나는 波狀文 가운데 配列하고 繡는 全面에 모두 金絲로 刺繡하고 있다. 이 胸背의 雲文은 朝鮮朝後期의 文樣과는 달리 아직도 孔雀·雲雁·白鬮의 雲文樣式인 如意骨朶雲文이 그데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雙鶴의 주둥이에는 肖像畫胸背圖에서와 같이 不老草가 施文되지 않았다.

9) 李寬(1636~1731)은 14代 宣祖의 曾孫으로 耽陵君인데 官은 五衛都摠府副摠官을 지냈다. 이 胸背(圖26)는 1981年 6月 京畿道 龍仁郡 金良場里에서 堧의 墓를 移葬할 때 多量의 服飾과 함께 出土되었다.³⁴⁾ 胸背樣式은 圖25와 비슷하나 上中段의 구름무늬가 後期樣式에 가깝고 下段의 波壽文에는 小圓形의 물방울이 있으며 그 左右側面에는 三山이 各己半쯤 表現되고 있는데 雙鶴의 긴 주둥이에는 역시 不老草가 施文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두 胸背(圖25·26)資料는 앞서 살펴 본 數點의 肖像畫에 圖寫된 胸背樣式에서 不老草가 施文되지 않은 것을 뒷받

33) 上掲書 石宙善, 「胸背」p. 115.

34) 上掲書, p. 115.

침 하여 준다고 본다.

10)姜銀(1650~1733)의 官은 禮曹判書兼大提學을 지냈다. 이 胸背(圖27)의 樣式은 暗綠色 바탕에 施文되었는데 다른 雙鶴文胸背樣式과 비슷하지만 右側上端에 日象이 있고 雙鶴주둥이에 不老草가 施文된 것이 差異点이다. 그러므로 이 胸背圖에 의해서 앞에서 考察한 21点的 肖像畫(1629~60年)에 나타나지 않았던 不老草의 登場時期는 約30年程度 앞서는 것으로 보아야겠다. 그렇다면 이 肖像畫의 製作年代를 1733년에 卒한 姜銀年의 末年作으로 보아야겠다.

11)李鼎輔(1693~1766)의 官職은 兩館大提學·知成均館事·判書·判中樞府事를 지냈다. 이 胸背(圖28)의 樣式은 上中段에 如意雲文을 가득 配列하고 中央에는 마주 보며 날으는 雙鶴을 上下에 두고 下段은 역시 怪山에 波壽文을 施文하였다. 그런데 이 胸背에서는 아래쪽에서 上向하고 있는 鶴의 주둥이에 不老草를 물고 있는 것이 圖寫되고 있다.

12)李性源(1725~1790)은 官이 左議政이다. 이 胸背(圖29)의 樣式 역시 上記한 雙鶴胸背圖와 비슷하지만 다만 下向하고 있는 鶴이 口에 不老草를 물고 있으며 또한 下段의 怪山上에도 두개의 不老草를 施文하고 있는 것이 다른点이다.

13)趙興鎭(1748~1814)의 官은 參判·漢城府右尹·副摠官을 歷任했다. 이 胸背(圖30)의 樣式 역시 上記한 雙鶴文과 같으나 中心에 上下로 飛翔하고 있는 雙鶴이 하나의 不老草를 함께 물고 있다.

14)李書九(1754~1825)의 官은 右議政이다. 이 胸背(圖31)의 樣式 또한 上記한 雙鶴文胸背와 같은데 上向하고 있는 아랫쪽 鶴의 口에는 不老草가 물려 있고 下段은 역시 三山怪石에 波壽·波狀文이 施文되고 있다.

15)金正喜(1786~1856)의 官은 大司成·吏曹參判을 歷任하였다. 이 胸背(圖32)의 樣式 또한 上記한 圖31의 雙鶴文胸背圖와 同一하다.

16)李晷應(1815~1848)은 興宣大院君의 둘째 兄인 興完君이다. 그의 胸背(圖33)는 雙鶴文이며 鴉青色 바탕에 雲寶緞이고 胸背全體를 金絲로 繡 놓았으며 다만 鶴머리 頂上만이 赤色으로 꾸몄다. 外의 樣式은 다른 雲鶴文胸背와 大同小異 하므로 省略한다. 이 胸背는 興完君이 從2品堂上官 때의 것으로 본다. 그렇

다면 興完君의 胸背는 英祖35(1759)年 以後「文官1品以下3品까지의 堂上官과 이 品位에 해당하는 宗親·駙馬는 雙鶴을 使用한다」는 記錄을 뒷받침 하고 있다. 以上 살피 본 肖像畫 以外에도 1780~1790代에 卒한 몇名의 肖像畫胸背圖가 施文된 名單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韓翼摹(1703~1781)

趙重晦(1711~1782)

徐命膺(1716~1787)

趙榮祿(1702~1788)

金致仁(1716~1790)

趙 暉(1716~1790)

權 溍(1710~1791)

姜世晁(1713~1791)

以上の 여러 肖像畫胸背圖에서도 다같이 雙鶴이 함께 不老草를 물고 있거나 혹은 한마리가 물고 있는 것을 圖寫하고 있다. 그러므로 朝鮮朝 肖像畫의 胸背圖에 描寫된 不老草는 1760年代 부터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上限線을 大略 英祖36年頃 前後로 推定해도 無理가 없을 것으로 본다. 또한 不老草는 鶴의 주둥이에만 물리는 것이 아니고 胸背 下段에 布置되는 三山怪石의 頂上에도 두개가 圖寫되기도 한다. 이것은 1790年에 卒한 李性源의 胸背圖에 보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不老草文 以外에도 胸背의 上段如意雲文 사이에 日象文을 施文 하기도 하는데 1769年에 卒한 洪象漢, 1770年에 卒한 尹汲, 1791年에 卒한 姜世晁, 등에서 紅色의 日象이 描寫되고 있다. 下段에는 三山, 波壽, 波狀文등의 長生文이 施文되고 있다. 또한 三山의 中央의 圓形 안에는 卍字 또는 七寶文中에 輪寶가 그려져 있다.

(2)單鶴文胸背

單鶴文胸背는 大典會通에 「堂下官單鶴」이라고 한 記錄으로 보아 堂下4品以下의 벼슬아치들이 着用한 것이다.

1)金堉(1580~1658)은 官職이 大司成 副提學·領議政을 歷任했다. 이 胸背(圖 34)의 樣式은 上段 左右에 몇 片의 구름이 떠있고 上端에서 中段에 이르는 中心

部の 넓은 空間에는 날개를 활짝 편 單鶴이 머리를 左向하고 입을 크게 벌리며 위로 飛翔하고 있다. 이 胸背圖 역시 角帶에 가려져 下段은 不明하다. 이 胸背의 構圖 및 意匠은 매우 簡潔하고 대담하며 生動感이 넘치고 있다. 그런데 金堉의 官職은 正3品以上 堂上官이며 領議政까지 歷任한 것으로 보아 마땅히 孔雀나 雙鶴文胸背를 圖寫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單鶴을 施文한 것은 아마도 1624年 文科及第後 그의 벼슬이 아직 正3品에 이르지 못하였을 當時의 것으로 推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肖像畫는 1636年 胡炳模筆이라는 拔文에 의하여 製作年代를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金堉은 적어도 1636年以後에 堂上官으로 登用된 것 같다. 이 胸背樣式에서도 不老草는 施文되지 않았다.

2) 尹時達의 生存年代는 자세히 밝혀진 바가 없으나 대략 17~18世紀로 推定된다. 이 胸背(圖35)의 樣式 또한 다른 雲鶴文 胸背樣式과 大同小異한데 역시 鶴의 주둥이에는 不老草가 施文되지 않았다.

3) 李載完(1855~1923)은 興完君의 아들이다. 李載完이 完順君의 君號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50才때 이므로 이 單鶴胸背(圖36)는 아직 君號를 받기前 堂下官 시절의 것이라고 본다. 그 樣式은 鴉青色 바탕에 上段은 五色瑞雲을 如意文으로 構成시키고 中央에는 입에 不老草를 문 單鶴이 위로 飛翔하고 있다. 下段은 역시 左右에 波壽, 中央은 三山에 七寶文을 施文하였고 그 밑에 重疊된 半圓의 波狀文을 配列하였다.

以上 살펴 본 雙鶴, 單鶴을 施文한 雲鶴胸背는 孔雀·雲雁·白鶴胸背의 樣式에서 普遍的으로 登場했던 滿開된 牡丹이 자취를 감추었다. 또한 구름무늬도 옆으로 길게 如意骨朵雲文 形式이던 것이 五色玲瓏한 如意雲文으로 바뀌었다. 그 뿐만 아니라 1760年代 以前에는 鶴의 주둥이에 不老草가 없으나 1760年代 以後에는 不老草와 唐草가 登場하기 始作했다. 下段의 樣式은 三山怪石에 波壽·波狀文이 施文되었고 不老草가 登場하면서 三山怪石에도 七寶文과 卍字文이 表現되기 始作했다. 또한 單鶴의 머리方向도 입에 不老草가 없을 때에는 左向하고 있으나 不老草를 입에 물기 始作하면서 單鶴의 머리는 右向하고 있다. 그런데 雙鶴胸背와 單鶴胸背의 樣式的인 差異點은 다만 主題文樣인 雙鶴과 單鶴의 差異뿐이고

長生文의 構圖·布置等の 意匠은 大同小異하다. 이와같은 胸背樣式은 朝鮮朝 國初부터 抑佛崇儒政策으로 밀리던 佛敎이지만 오랜 世月에 걸쳐 韓民族의 精神的支柱로서 어느곳에도 存在하였으니 卍字文·七寶文등 佛敎的인 要素가 담긴 造形文樣이 널리 利用되고 있었으므로 그것은 胸背樣式에서도 長生文과 더불어 많이 施文되었던 것이다.

추가)

三. 明·清朝時代 文官의 胸背樣式

1. 明代 文官의 補文樣

中國에서는 이미 唐虞時代에 服色으로서 身分의 尊卑를 區分하였다.³⁵⁾ 그 후 宋代에는 朝服着用과 服色制定이 있었고 그 뒤 元나라에서도 역시 品位에 따른 公服詳定이 있었다.³⁶⁾

中國 常服制度의 始制는 明洪武23(1390)년에 비롯되었는데 常服은 雜色の 紵絲·綾羅·綵繡를 使用하게 하였다. 그 3年後 洪武26(1396)년에 처음으로 文武官의 區分과 아울러 品階의 差等を 識別하는 補, 卽 가슴과 등에 附着하는 胸背

35) 王宇清著 「中國服裝史綱」第6章 臣庶冠服 參照

36) 上掲書, 參照

의 文樣이 制度되었다.³⁷⁾

明會典에 依한 文官의 花樣³⁸⁾은 다음과 같다.

文官 一·二品—仙鶴, 錦雞

三·四品—孔雀, 雲雁

五 品—白鸛

六·七品—鷺鷥, 鷄勅

八·九品—黃驪, 鶴鶉, 鶴鶉

또한 神宗9(1669)年에 制定된 三才圖會의 記錄³⁹⁾을 보면

文官 一品—仙鶴襟 五品—白鶴襟

二品—錦鷄襟 六·七品—鷺鷥, 鶴鶉襟

三品—孔雀襟

四品—雲雁襟 八·九品—鶴鶉, 練雀, 黃鸝襟

로 記錄되었다.

明會典花樣과 三才圖會의 花樣과는 樣式上 若干의 差가 있는데 三才圖會에 表現된 補의 花樣이 조금은 單調로운 感을 준다. 그러나 主文樣에는 큰 差異가 없으므로 明會典의 胸背花樣을 中心으로 살펴 보겠다.

그림1은 文官1品 仙鶴補이다. 胸背全體에는 中央에 結束된 如意文(一名 靈芝文)으로된 端雲으로 가득 채우고 上下中心에는 날개를 활짝 펼 雙鶴이 마주 보며 날르고 있다. 이 補⁴⁰⁾는 鶴과 구름 두 가지 文樣만으로 施文된 單調로운 樣式이다.

그림2는 2品 錦鷄補이다. 主題文樣인 錦鷄는 평과에 속하는 화려한 새이다. 胸

37) ①上揭書 第七節 明條에 「洪武26(公王 一三九三)年 定百官常服加 補」라 있음.

②韓尙洙, 「胸背」, 繡林苑編(1979.5), p.110.

③趙英玉, 前揭書, p.177.

38) 明會典 卷之61 上揭註 33에 依함

39) 三才圖會64 衣服 國朝冠服 2卷 參照

40) 中國 明會典에서는 「補」라 稱하고 朝鮮王朝實錄에서는 「胸背」라 했다.

背의 構圖는 上下를 斜線으로 二分시켰으며 上段은 結束된 如意雲文으로 메꾸었다. 下段은 怪石 위에 마주 보며 서 있는 1雙의 錦鷄가 있고 그 左右에는 奇花瑤草를 配列하였는데 自然의 아름다움에 充實한 意匠이라고 본다.

그림3은 3品孔雀補이다. 上段은 結束된 如意雲文이 드문드문 떠 있는 가운데 날개를 활짝 편 孔雀이 下向하며 날고 下段에는 怪石上에 下向하는 孔雀을 올려 보며 서 있는 또 하나의 孔雀을 施文 하였다. 下段 左右에는 1雙의 孔雀을 裝飾하기 위하여 花草를 圖寫하였다.

그림4는 4品雲雁補이다. 이 補는 上記한 2品錦鷄補와는 相反되는 構圖로서 斜線二分圖이다. 上段에는 結束된 如意雲文이 드문드문 떠 있는 가운데 기러기 한 마리가 左下向하며 날고, 下段에는 비탈진 怪石 위에 下降하는 기러기를 마주 쳐다 보며 서 있는 또 한 마리의 기러기가 있다. 그 周圍에는 滿開된 몇 대의 갈대를 描寫하고 있다.

그림5는 5品白鵞補이다. 上段에는 몇 点의 結束된 如意雲文이 떠 있고 下段에는 怪石 위에 1雙의 白鵞이 마주 보며 서 있는데 硬直된 모습이다. 中下段에는 怪石 위에 花草를 施文 하였다.

그림6은 6品鷺鷥補이다. 最上端에는 結束된 如意雲文이 두 세개 떠 있고 그 밑에 下向하는 해오라기 한마리가 날고 있다. 또 한 마리는 물 가운데 서서 下降하는 해오라기를 마주 바라보고 있으며, 다른 한 마리는 물에서 헤엄치고 있다. 左側에는 蓮花 한 송이와 荷葉 두 잎이 떠 있으며 右側에는 怪石에 갈대 3개가 늘어져 있다. 胸背樣式에서 大部分의 경우는 主題文樣인 飛禽이 1雙 또는 한 마리로 施文되고 있으나 그림6은 唯一하게 해오라기 세마리를 配置한 것은 그 中 물 가운데 놀고 있는 것은 새끼해오라기로 보겠다. 이제까지 明會典에 있는 明代 文官6品까지의 補樣式은 朝鮮朝 胸背樣式과 聯關性을 갖는 것으로서 選定하였으므로 나머지 7品에서 9品까지는 省略하기로 한다.

그러면 以上 明代의 文官1品에서 6品까지의 補樣式을 간추리면 品階의 主題文樣은 鶴·錦鷄·孔雀·기러기·白鵞·해오라기이며 飛禽은 大部分 1雙인데 마주 보며 飛翔하거나 마주 보며 서 있다. 雲文은 結束된 如意雲文으로 構成된 瑞雲이

施文 되었다. 下端은 怪石에 奇花瑤草를 配列하거나 水中에 蓮花및 荷葉을 그려 넣었다. 이와같이 明代의 補樣式은 圖式化에 置重하지 않고 自然美를 充實히 驅使하고 있다.

2. 清代 文官의 補文樣

清代의 補制度는 明의 補制度를 그대로 이어 받았으나 그 樣式에 있어서는 差異點⁴¹⁾을 보이고 있다. 卽 主題文樣인 飛禽文은 1品에서 7品까지는 同一하지만 文官8品은 黃鸝에서 鸚鵡으로, 9品및 雜職官은 鸚鵡에서 練雀文으로 變形되었다.

清代의 補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韓中胸背 比較 特別展」에 出品되었던 文官 補 60余點中에서 韓·中胸背樣式 比較 資料로서 聯關性을 가진 補를 品階別로 拔萃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1) 仙鶴補

仙鶴補는 文官1品用이다. 이 補(圖37)上段을 如意文으로 된 瑞雲으로 가득 메우고 左側에는 紅色日象이 있다. 中心部에는 山形 위에 左向하여 한 다리를 들고 서 있는 仙鶴을 施文 하였다. 그 鶴의 발밑에는 山形·波壽·波狀文으로 構成된 海水蓋牙文⁴²⁾이 짜임새 있게 圖案된 가운데 八寶文⁴³⁾中 輪寶와 瓶寶文이 插入되어 있다. 四角形의 補 周緣에는 雷文帶가 單調롭게 配列 되었다. 다른 補에도 비슷한 樣式으로 構成되었으나 구름무늬 대신에 八寶文을 配列한 것도 있다.

41) 上掲書, 王宇清著 「中國服裝史綱」第6章 第8節 清朝 參照

42) ①多采斜條文을 交叉하여 꾸민 것을 「立水」라 하고 그 위에 잔잔한 물결무늬, 山形, 左右에 파도무늬가 施文된 것을 總稱하여 일컫는다.

②李康七, 「清代龍袍紋樣小考」, 考古美術138·139, 韓國美術史學會(1978.9), p.207.

43) 佛家の 七寶와 民俗吉祥圖案을 混合해서 使用한 것.

(2) 錦鷄補

錦鷄補는 2品用이다. 이 補(圖38)는 胸背 가득히 靑色 靑色의 結束된 如意雲文으로 메꾸고, 左側上端에는 紅色日象文, 補中心에는 山形 위에 날개를 활짝 펴고 해를 바라 보고 서 있는 錦雞가 있다. 그 발밑에는 海水薑牙文이 施文되었는데 中央에 噴水처럼 左右로 흘러 내리는 파도무늬, 그 밑에 重半圓의 물결무늬로 꾸몄다. 구름 사이에는 蝙蝠 5마리를 配列하고 네모진 補周緣에는 듬성듬성 雷文이 施文된 사이마다 唐草文을 곁들였다. 그외의 補에는 海水薑牙文 대신에 多采斜條文의 立水등으로 꾸몄고 中·上端의 雲文도 雷文 또는 박쥐무늬등으로 메꾸고 있다,

(3) 孔雀補

孔雀補는 3品用이다. 이 補(圖39)는 上段에 如意雲文이 가득한 中央에 三山 위에는 깃을 편 孔雀 한 마리가 紅色日象을 바라 보며 서 있고 구름 사이에는 박쥐 5마리를 配列 하였다. 下段에는 海水薑牙文, 如意文帶, 多采斜條文의 立水文을 순서대로 整然하게 두었다. 네모의 補 周緣에는 白色의 雷文帶를 둘렀다.

(4) 雲雁補

雲雁補는 4品用이다. 이 補(圖40)는 上段과 下段 一部에 靑·淡色의 如意雲文으로 메꾸었는데 그 사이 空間에는 八寶文인 輪寶·螺寶·傘寶·蓋寶·花寶·瓶寶·魚寶·腸寶를 調和있게 配列하여 吉祥文을 充實하게 活用하고 있다. 補中心에는 한 마리의 기러기가 日象을 向하여 서 있고 그 발 아래에는 海水薑牙文과 多采斜條文의 立水가 施文 되었다. 네모의 補周緣에는 雷文帶로서 마무리 하였다. 그외에도 구름무늬 대신 갈대와 花草, 牡丹등으로 메꾸기도 하였다. 또한 彩色織繡뿐만 아니라 金銀絲만으로 織繡한것도 있다. 또한 下端이 立水文으로 된 경우는 飛禽과 立水 사이를 如意文으로 메꾸고 있다.

(5) 白鷗補

白鷗補는 5品用이다. 이 補(圖41)는 補바탕에 亞字·卍字文을 配合하여 構成한 雷文을 가득히 깔고 그 위에 날개를 활짝 편 白鷗이 右向하고 서서 日象을 바라 보고 있다. 白鷗의 발 아래에는 역시 海水薑牙文과 몇 개의 八寶文이 施文되었고 圓形의 周圍에는 雷文唐草文帶를 돌려서 內緣으로 區分 짓고 있다. 네모난 補의 四角모퉁이에는 天桃 두개씩을 配列하여 裝飾을 더 하였다. 그런데 이 補는 이제까지의 다른 補와는 樣式上 두 가지의 差異點을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補의 主題文樣을 圓形 안에 圖案하였고 또 하나는 主題文樣인 白鷗이 右向하고 있는 點이다. 아마도 이 補의 意匠은 補를 더욱 裝飾化하는데 努力한 것 같다. 그 外의 補에는 역시 下端에 海水薑牙文과 立水가 各已 施文된 것도 있고 두개의 文樣이 함께 施文된 것도 있다.

(6) 鸞鷲補

鸞鷲補는 6品用이다. 이 補(圖42)의 樣式은 補全面이 黃白色의 織金繡로 꾸며졌다. 上段에는 한 마리의 大形蝙蝠 밑에 해오라기가 서 있고 그 左右에는 역시 그보다 작은 박쥐 두마리를, 上端左右에는 꽃을 두었다. 해오라기발 밑에는 역시 海水薑牙文을 圖寫하고 네모의 補周緣에는 亞字文 바탕에 如意·唐草文帶를 돌렸다. 이 補의 樣式的 特徵은 日象文이 施文되지 않은 것이다. 그 外에 몇개는 金銀絲로 된 補인데 한마리의 해오라기에 如意·唐草·八寶文·日象文·立水文 등으로 꾸미고 있다.

(7) 鷓鴣補

鷓鴣補는 7品用이다. 이 補(圖43)는 上·中段에 빈틈없이 如意雲文과 唐草文으로 메꾸고 右側上端에는 紅色日象을, 中央에는 날개를 펴고 右向하여 서 있는 鷓鴣가 있다. 그 左右에는 牡丹·花草 등의 吉祥文을 두고, 나머지 四面에는 八寶文이 高루 施文 되었다. 鷓鴣발 아래는 역시 海水薑牙文에 如意文帶와 斜條文의 立水를 두고 있다. 이 外의 補에도 역시 모든 鷓鴣는 右向하고 있다.

(8) 鶴鷄補

鶴鷄補는 8品用이다. 이 補(圖44)의 樣式은 補全面을 黃金色으로 꾸몄으나 左側上端의 日象만이 紅色으로 表現 되었다. 上·中段 가득히 細線으로 如意·唐草文으로 채운 사이 空間에는 역시 如意·唐草文으로 構成시킨 八寶文을 곁들였다. 補의 中心에는 主題文樣인 메추리가 左向하고 서 있으며 발 밑에는 海水薑牙文과 如意文帶와 三角斜條文의 立水가 單調롭게 表現되고 있다. 此外의 補樣式에서도 메추리는 日象을 向해서 左向하고 山形 위에 서 있다.

(9) 練雀補

練雀補는 9品用이다. 이 補(圖45)는 中央에 主題文樣인 練雀이 左向하여 紅色 日象을 바라 보고 서 있다. 補의 四方周緣과 上段 中間에는 靑白色의 如意·唐草文을 整然하게 圖寫하고 그 사이 空間에는 蝙蝠 5마리를 插入하고 있다. 練雀左右에는 牡丹등의 吉祥文과 練雀 발 밑에는 역시 海水薑牙文과 八寶文中 輪寶와 瓶寶文이 施文되었고 네모진 補의 外緣에는 唐草文帶를 돌렸다. 此外의 補에는 白色의 練雀과 金色의 天桃·佛手·石榴文과 壽字文이 施文되고 있는 것도 있다.

以上 살펴 본 清代 補樣式은 補의 形態는 四角形이며 두쪽으로 된 것이 大部分이다.

四. 韓·中文官胸背樣式 比較

1. 朝鮮朝 初期 文官胸背와 明代 文官胸背樣式 比較

이미 前章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明代의 補文樣은 明會典과 三才圖會의 文武補花樣에 1品에서 9品까지 明記되어 있고 朝鮮朝는 端宗2(1454)年の 文武官 胸背文樣 制定中에 文官胸背文樣은 1品에서 3品까지 明記되어 있는 바와 같다. 그런데 朝鮮朝 文官胸背는 文獻上으로나 또는 肖像畫에 圖寫된 胸背의 文樣으로 보아도 1品孔雀, 2品雲雁, 3品白閑鷗이므로 本稿에서는 韓·中 共히 上記한 세가지 主

題文樣으로 施文된 胸背樣式을 中心으로 比較 考察하고자 한다.

(1)孔雀胸背

孔雀胸背는 明나라의 洪武禮制의 胸背制度(明史 輿服地)⁴⁴⁾에서 文官3品用이고 朝鮮朝에서는 두단계 낮은 文官1品用이다. 이것은 前言한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時王으로 대우했기 때문이다.

明會典의 孔雀(그림3)은 위로 부터 한마리가 下向하며 날고 다른 한마리는 怪石上에 앉아서 마주 보고 있다. 朝鮮朝의 孔雀文樣은 張末孫(圖2)와 李元翼(圖4)의 胸背에서 孔雀 1雙이 바위 위에서 마주 보며 서 있고 그 以外(圖1,3,5,6)는 모두 1雙의 孔雀이 마주 보며 날고 있다.

다음에 上中段의 雲文樣은 明會典에서는 4개씩 結束된 如意文을 施文하고 있으나 朝鮮朝의 것은 張末孫(圖2)의 結束된 如意雲文 以外에는 모두 左右側面에 옆으로 길게 놓인 如意骨朵雲이거나 渦卷雲으로 圖寫되고 있다.

下段의 樣式을 考證하는데에는 難點과 無理가 따르고 있다. 그것은 明會典의 그림3은 中下段에 바위와 奇花瑤草를 圖寫하고 있으나 朝鮮朝의 것은 肖像畫이기 때문에 角帶나 소매에 가려져 있어서 不明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中段에 施文된 自然怪石上에 滿開된 牡丹文樣이 그대로 下段까지 延長되었을 可能性이 있다.

裝飾性 文樣으로서 明會典에서는 여러가지 花草를 施文하고 있으나 朝鮮朝 肖像畫에는 역시 張末孫(圖2)의 것을 除外하고는 모두 滿開된 몇송이의 牡丹으로 꾸미고 있다.

(2)雲雁胸背

雲雁胸背는 明代에는 文官4品用이고 朝鮮朝에서는 文官2品用이다. 明會典의 雲雁補(그림4)는 上中段의 雲文과 기러기의 布置圖가 孔雀補의 樣式과 同一하지

44) 韓國의 美, 「人物畫」中央日報 季刊美術20(1985.7), p.226.

만 다만 下段의 怪石이 비스듬이 놓였고 孔雀의 奇花瑤草 대신 갈대 몇대를 施文하고 있는 點에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朝鮮朝의 雲雁胸背도 主題文樣인 거러기가 孔雀과 같이 마주 보며 飛翔하고 있는 樣式(圖1, 3, 5, 6)과 同一하지만 다만 申叔舟(圖8)의 胸背圖에서는 1雙의 거러기가 바위 위에 서서 바라 보고 있다. 그런데 雲雁胸背에서도 역시 滿開된 牡丹 몇송이를 施文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갈대와 蓮花가 새롭게 圖寫되고 있다.

(3) 白鸛胸背

白鸛胸背는 明代에는 文官5品用이고 朝鮮朝에서는 文官3品用이다. 明會典의 白鸛補는 上段에 몇點의 結束된 如意雲文을 配列하고 中下段에는 怪石上에 1雙의 白鸛이 마주 보며 앉아 있다. 朝鮮朝의 白鸛胸背는 樣式上 雲雁胸背와 構圖·意匠이 大同小異하지만 다만 主題文樣이 거러기에서 白鸛으로 變形되었고 갈대 무늬가 施文되지 않은 點의 差異가 있을 뿐이다.

以上과 같이 살펴 본 明會典의 孔雀·雲雁·白鸛의 胸背 樣式으로부터 朝鮮朝前期 胸背樣式에 受容된 文樣은 主題文樣인 飛禽과 구름무늬, 怪石등이다. 그러나 主題文樣인 飛禽도 明代의 것은 주로 바위에 直立하고 있는 靜的인 動作이 大部分인 것에 反해 朝鮮朝의 禽鳥들은 한 두點을 除外하고 모두 幻想的이며 飛翔하고 있는 動的인 表象이다.

雲文樣에 있어서도 明代에는 몇개로 뭉쳐진 如意文구름이 드문드문 施文되고 있으나 朝鮮朝에서는 길게 橫一字로된 如意骨朶雲文이거나 渦卷雲文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와같은 骨朶雲은 中國皇帝의 下賜品에 「暗花骨朶雲綠二匹」⁴⁵⁾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朝鮮朝의 文樣에도 영향을 미쳤을 可能性이 있다.

裝飾的인 花文樣에 있어서 明代에는 여러가지 奇花瑤草를 描寫하고 있으나 朝鮮朝에서는 牡丹文一色으로 꾸몄고 간간이 갈대와 蓮花를 곁들이고 있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牡丹이 우리나라에 처음 傳해진 것은 新羅 26代 眞平王(579~623)

45) 文宗實錄 卷8 元年辛未 7月辛酉條 參照.

때이며 唐에서 꽃과 그림과 種子가 왔다고 한다.⁴⁶⁾ 그 後 朝鮮朝에 이르기 까지 오랜 歲月동안 모든 工藝品, 刺繡品등에 널리 利用되어 吉祥文으로서 매우 玩賞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牡丹은 꽃중의 王으로서 尊貴한 品階에 權威의 象徴으로서 胸背에 施文된 것이라고 思慮된다.

2. 朝鮮朝中·後期 文官胸背와 清代 文官胸背樣式 比較

우선 清代의 補를 보면 前言한 바와 같이 明의 補制度를 그대로 이어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品階에 따른 補의 主題文樣인 禽鳥에 限한 것이고 나머지 樣式에 있어서는 差異점이 크다.

朝鮮朝中後期 胸背는 英祖20(1744)年の 續大典에 「堂上三品以上 雲鶴胸背」, 그 後 高宗2(1865)年の 大典會通에는 「文官堂上官胸背 雙鶴, 堂下官 單鶴」으로 記錄된 것은 이미 밝힌바와 같다.

清代 胸背樣式은 1品에서 9品까지의 各種 飛禽과 長生文등을, 그리고 朝鮮朝中後期는 堂上官의 雙鶴과 堂下官의 單鶴및 長生文등을 雲鶴으로 묶어 다루어 보고자 한다.

清代 文官胸背는 1品에서 9品까지 各品階를 象徴하는 主題文樣인 飛禽 卽, 錦鷄·孔雀·雲雁·白鷺·鸞·鶴·鸚鵡·鶴鶉·練雀의 差異가 있을 뿐이고 그 外에 文樣, 構圖등의 樣式과 意匠에 있어서는 大同小異하다.

構圖上으로는 上·中·下段으로 區分지어 볼 수 있다. 上段에는 雲文과 日象도는 八寶文을 施文하고 있다. 中段 中央에는 主題文樣인 禽鳥가 한발을 올리고 怪石上에 서 있는데 大部分의 飛禽은 左向하며 紅色日象을 바라 보고 있으나 몇 點의 補는 右向하여 日象을 바라 보고 있는 것도 있다. 또한 中段의 左右側面에는 上段과 同一한 雲文으로 채우는 것이 많다. 下段은 中央에 三山怪石, 그 左右側에 重圓의 波狀文과 힘차게 솟는 波壽文으로 꾸민 海水蓋牙文만으로 施文된 것이 있고, 그 外에 海水蓋牙文 밑에 如意文帶를 두고 그 밑에 다시 三角形斜條文

46) 金富軾 「三國史記」第5卷, 新羅王家, 善德王條 參照

立水を 施文한 것도 있다. 이와같이 下段의 樣式中 三角形斜條文立水가 施文된 것은 年代가 後代인 것으로 推定된다. 그 까닭은 海水薑牙文만으로 된 下段인 경우는 明代樣式인 結束된 如意雲文이 施文된 反面 三角形斜條文立水인 것은 단순한 如意文이거나 如意唐草文으로 施文되는데 그것은 明代樣式の 영향이 衰盡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까닭이다.

그외에 特徵的인 樣式文樣으로서 八寶文·蝙蝠·四君子등 吉祥文의 새로운 登場을 꼽을 수 있다. 其中 八寶文은 補全面에 高루 施文 되거나 海水薑牙文中에 몇개를 圖寫하기도 한다. 清代胸背의 樣式中에서 또 하나의 特徵은 四角形의 胸背周緣을 만들어 裝飾하고 있는데 亞字文이 主流를 이루고 있으며, 如意·如意唐草 및 박쥐·壽字文 등으로 꾸미기도 하였다.

以上の 清代 補樣式은 明代 補樣式에 比하여 自然美가 缺如되고, 反面 象徴的으로 圖式化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 밝혀 둘 것은 明代補樣式은 實存하는 遺物을 接하지 못하고 圖版에만 依存한 까닭에 樣式比較에 無理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明代와 清代補의 樣式上 差異點은 清代에 와서는 主題文樣인 禽鳥가 1雙에서 한마리로 되고, 또한 그 禽鳥는 三山怪石上에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形象으로 나타 난다. 그외에도 새로운 文樣의 登場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日象文과 八寶文, 海水薑牙文인데 이것들은 全品階의 胸背에 高루 施文되었으며 後代에 오면서는 三角形斜條文立水가 描寫되고 있는 것이다.

朝鮮朝의 雲鶴文胸背도 雙鶴·單鶴을 莫論하고 다 같이 構圖上으로는 上·中·下의 3段으로 構成되었다.

上段의 樣式은 五色의 如意雲文이 橫一字로 길게 또는 짧게 몇片 떠 있다. 中段은 中央에 上下로 날개를 활짝 펴고 다리를 쪽뻗은 雙鶴 또는 單鶴이 입에는 不老草를 물고 飛翔하고 있는데 이 樣式은 朝鮮朝後期에 나타나는 것이다. 下段은 三山·波壽·波狀文으로 構成된 海水薑牙文이 施文되고 있다. 그뿐만아니라 三山위에는 不老草가 있고 바위 가운데에는 輪寶가 圖寫되었으며 海水薑牙文 中에는 珊瑚文이 施文된 것도 있다. 그 外에도 日象文도 몇點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까지 살펴 본 清代와 朝鮮朝 中後期 胸背樣式을 詳細하게 比較表에서 보기로 한다.

文樣名補	朝鮮朝中·後期	清 代
雲 文	橫一字로된 긴 如意文 渦卷文이 드문 드문 施文	如意文·如意唐草文
日 象	몇 點을 除外하고는 大部分 없다.	1品~9品까지 모두 있다.
禽鳥의 形象	• 雙鶴-날개를 활짝펴고 上·下에서 마주 보며 飛翔 • 單鶴-날개를 활짝펴고 다리를 쪽 뻗고 위로 飛翔 鶴머리 左向-不老草出現以前 鶴머리 右向- 〃 〃以後	品階에 따라 해당 禽鳥가 한 마리며 怪上山에 한 다리를 들고 大部分 日象을 向하고 있다.
不 老 草	①1730年代 以後로는 鶴의 口에 물고 있음 ②三山怪山에 施文	없 음
波 狀 文	重半圓으로 施文	重半圓 또는 약간 角形등 多樣
波 壽 文	파도무늬 左右에 힘차게 뻗쳐 있으며 물방울 施文	파도무늬 左右에 힘차게 뻗쳐 있으며 물방울도 있음.
三角形斜條文立水	없 음	大部分있다. 後代에 나타남.
八 寶 文	약간 나타남(瓶寶)	大部分 八寶 모두가 施文 되기도하고 波狀文 가운데 2~3개만 施文되기도 함.
七 寶 文	1730年 前後에서 부터 나타나는데 三山 中央에 輪寶로서 施文됨	없 음
卍 字 文	1730年 前後에서 부터 나타나는데 三山 中央에 輪寶대신 施文하기도 함.	補 바탕에 亞字文과 같이 施文됨.
珊 瑚 文	波狀文中에 있음	波狀文中에 있음
胸背周緣裝飾	끈사로 가늘게 징금수	亞字文·박쥐文·壽字文·天批文·

以上 胸背文樣 比較表에 列擧되지 않은 것은 朝鮮朝 雙鶴胸背樣式 中에서 밑에서 上向하고 있는 鶴의 다리는 거의 모두가 두다리를 쪽뻗고 있는데 田聖潔氏所藏의 鶴이 三山怪石위에 한쪽다리를 들고 서 있는 形象은 (圖46)清代胸背樣式과 同一하다.

그런데 清代의 1品用仙鶴補인 圖37의 樣式은 朝鮮朝中後期 雲鶴胸背樣式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은 胸背의 構圖, 布置, 文樣등이 거의 同一하게 表現되고 있기 때문이다. 以上과 같이 살펴 본 韓·中胸背樣式 比較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中國의 胸背는 明代에는 自然美를 充實히 描寫한 것이고 清代에는 象徴的이며 表現主義的인 意匠을 갖춘 圖式化된 樣式이라고 본다.

朝鮮朝의 胸背는 初期에는 明代樣式을 많이 追從한 것 같다. 그러나 中後期에 오면서 實學의 영향을 받아 朝鮮朝의 諸般文化에서와 같이 無條件 받아 들이지 않고 自己들의 趣香에 맞는 것만 取舍選擇하여 選別的으로 受容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 民族의 宗教 및 思想的인 根源과도 聯關性을 갖고 받아 들인 것 같다. 明·清代의 補에는 구름, 仙鶴, 海水薑牙文 등의 長生文이 圖寫되었으며, 또한 佛家의 七寶文과 民俗吉祥圖案이 複合的으로 活用된 八寶文이 壓倒的으로 施文되고 있으므로 中國에서는 長生文과 吉祥文이 多樣하게 構成되고 있다.

이것에 比하여 朝鮮朝胸背는 主로 長生文이 施文되고 있다. 그런데 朝鮮朝에서도 佛敎的인 要素가 全혀 排除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 輪寶나 卍字文 등의 施文이 그것이다. 그러나 全體的인 胸背樣式에는 主로 長生文인 구름, 학, 물결, 바위, 不老草, 珊瑚등이 圖寫되고 있다. 特히 主題文樣인 鶴을 1品에서 9品까지 全品階에 施文한 것은 長生을 象徴한 点과 高孤한 선비의 表象이라는 데서 選擇된 것으로 思慮되다.

끝으로 胸背의 製作法을 簡略하면 明·清代는 織金繡, 織繡 또는 刺繡를 利用하고 있으나 朝鮮朝에서는 宮家를 비롯해서 大部分 刺繡로서 만들어졌다.

胸背의 形態는 韓·中 共히 四角形으로 되었는데 中國의 補는 半開되어 두쪽이고 朝鮮朝의 胸背는 하나로 되었다. 그것은 官服의 構造上 中國은 앞이 터져 있으므로 襟가 두쪽이고 우리나라의 官服은 左襟이므로 가슴에 하나로 着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五. 結 語

朝鮮朝의 胸背는 端宗2(1454)年에 文武官胸背制定에서 文官1品孔雀, 2品雲雁, 3品白鷗으로 決定된 以來 英祖20(1744)年의 續大典에서의 文官堂上官 3品以上の 雲鶴胸背와 高宗2(1865)年 大典會通의 文官堂上官 雙鶴, 堂下官 單鶴이 詳定되기까지 多様な 變遷過程을 지냈다.

中國의 補는 明代에는 洪武26(1393)年에 1品에서 9品까지 文武官補가 制度化되었고 그 後 清代(1644)에 오면서도 明의 制度를 그대로 承襲하였지만 中 一部 即 7~9品까지의 主題文樣에 變形이 있었다. 이와같은 兩國의 胸背樣式 變遷過程에서 朝鮮朝의 胸背는 明·清朝의 皇室에서 下賜및 賜與의 形式으로 受容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胸背樣式的 受容은 中國의 補樣式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은 아니다. 다음에서 制度的, 樣式的인面, 製作技法, 形態에서 그 差異點을 比較할 수 있다.

1. 制度的인 面—朝鮮朝의 胸背着用은 初期에는 堂上官에만 限定되었던 것이 中·後期에는 堂上官과 堂下官으로 區分지어 全官員에게 着用하도록 하였다. 이것에 比하여 明·清朝는 共히 1品에서 9品까지 全品階에서 着用하였다.

2. 樣式的인 面—①主題文樣인 飛禽—朝鮮朝初期에는 明代의 「我朝一品 准中朝二品」의 原則에 따라 두 段階 낮추어서 施行하였다. 그러나 朝鮮朝는 後代 오면서 堂上官은 雙鶴, 堂下官은 單鶴으로 되었다. 그러나 明·清代는 1品에서 9品까지 品階에 따라 9개의 飛禽으로 圖寫되었다.

②長生文·八寶文·七寶文·吉祥文—朝鮮朝初期는 長生文과 吉祥文으로 施文하고 中·後期에는 다만 長生文과 七寶·卍字文으로서 裝飾하고 있다. 그러나 明代에서 長生文과 吉祥文을 圖寫한 것은 朝鮮初期와 같으나 清代에는 長生文과 八寶文等を 多様하게 施文하고 있다. 이 中에서 清代의 長生文樣式이 朝鮮朝에 많이 影響을 미쳤다.

3. 製作技法—우리나라는 宮家를 비롯하여 모두 刺繡技法을 使用하고 있다. 中國은 緯絲之法의 織繡나 刺繡를 利用하였다.

4. 形態—兩國이 모두 四角形인데 官服의 構造上 中國의 補는 全面이 半開되었고 우리나라의 胸背는 앞·뒤 모두 트이지 않았다.

以上과 같은 中國의 補와 朝鮮朝胸背의 差異點은 各已 處해 있는 民族의 歷史, 生活環境, 宗教, 思想의 差異에서 오는 必然的인 條件이라고 본다.

그러나 보다 重要한 意義는 朝鮮朝에서는 胸背樣式 受容에 있어서 中國의 補樣式을 無條件 模倣하거나 받아 들이지 않고 우리의 傳統性에 맞추어 選別的으로 受容하여 獨自的인 胸背樣式을 이룩한 데 있다.

參考文獻

1. 金富軾 「三國史記」
2. 朝鮮王朝實錄(太祖, 太宗, 世宗, 世祖, 中宗, 文宗, 端宗, 燕山君, 肅宗, 英祖, 高宗實錄등)
3. 增補文獻備考
4. 高麗史
5. 燃藜室記述
6. 續大典
7. 大典會通
8. 經國大典
9. 王宇清著 「中國服裝史綱」
10. 明會典
11. 石宙善著 「胸背」
12. 繡林苑編 「胸背」
13. 繡林苑編 「李朝의 刺繡」



一品官用 仙鶴



二品官用 錦雞



三品官用 孔雀



四品官用 雲雁



五品官用 白鶴



六品官用 鶯鷺



七品官用 鶯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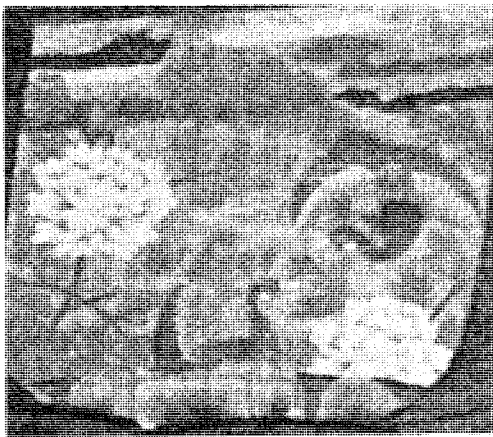
八品官用 黃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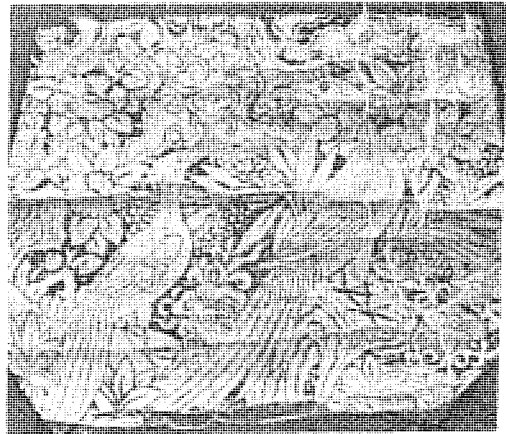
九品官用 練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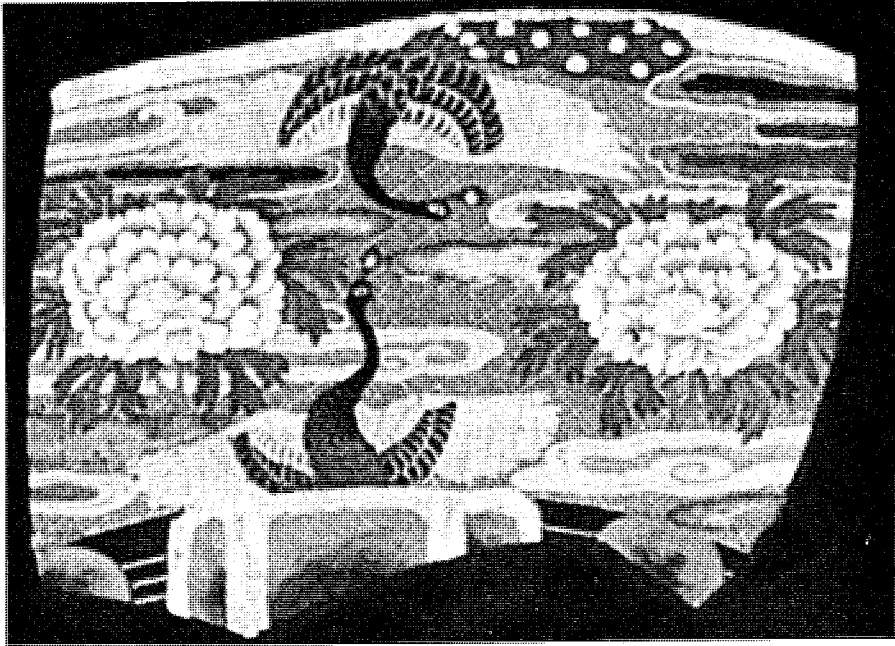
九品官用 鶴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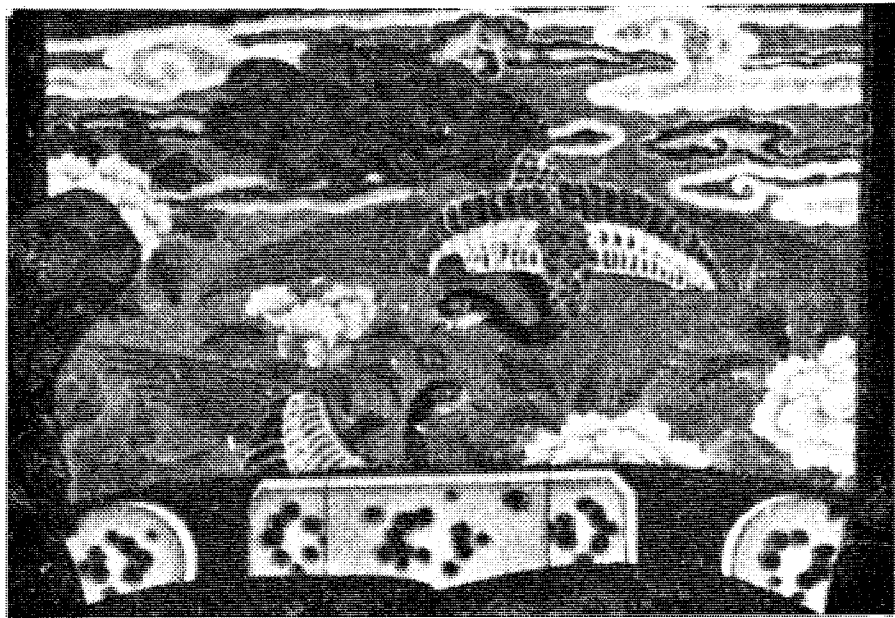
〈ㄊ 1〉 趙 誼 14C中葉~15C初 孔雀胸背
國立中央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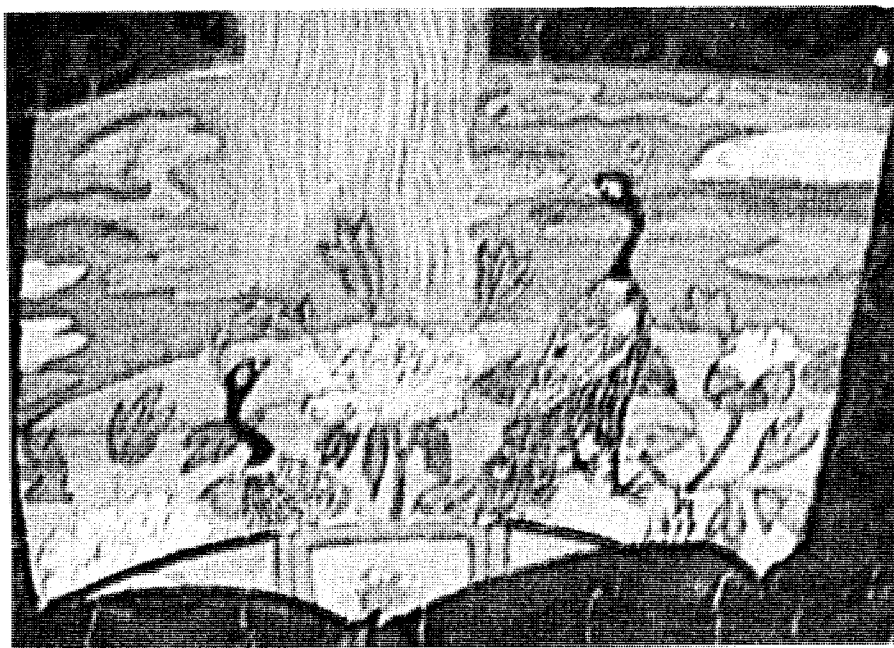
〈ㄊ 2〉 張末孫 1431~1486 孔雀胸背 張惠必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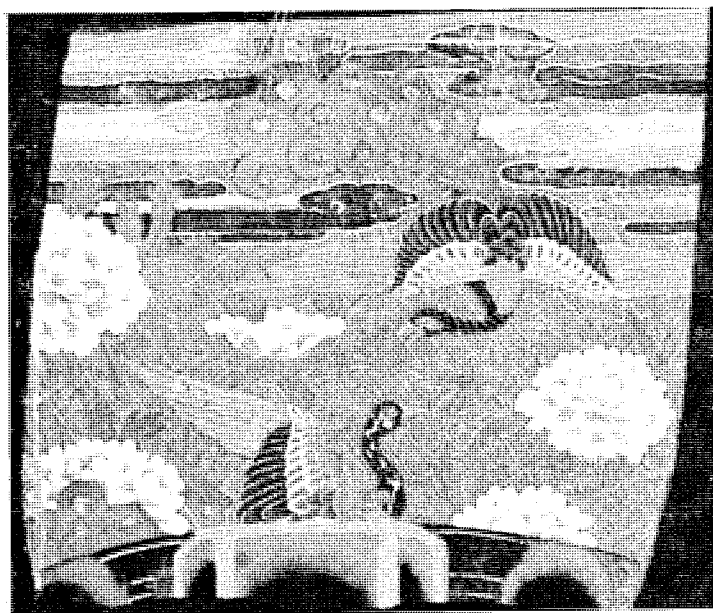
〈도 3〉鄭 琢 1526~1605 孔雀胸背 鄭完鎮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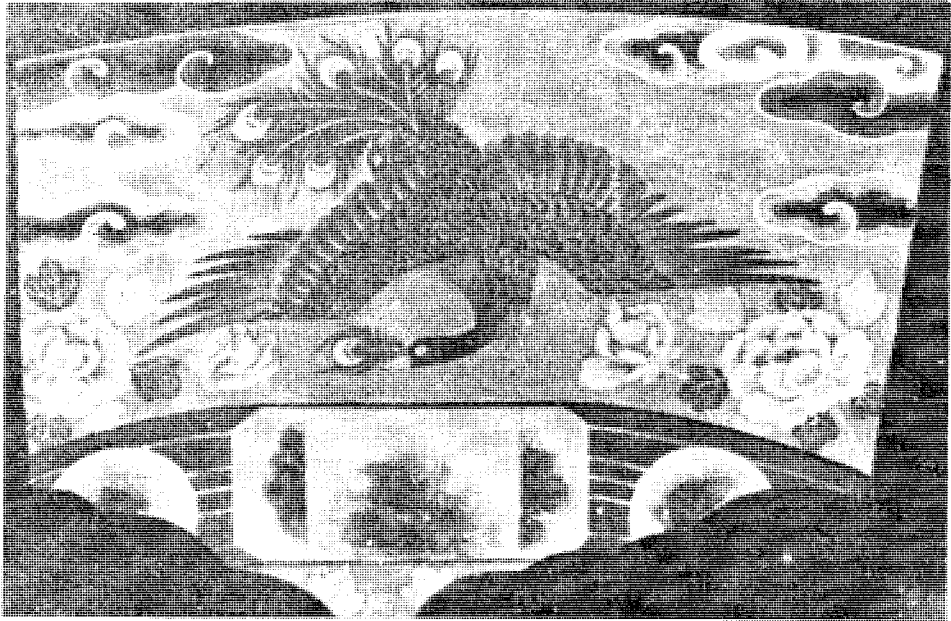
〈도 4〉李山海 1539~1609 孔雀胸背 國立中央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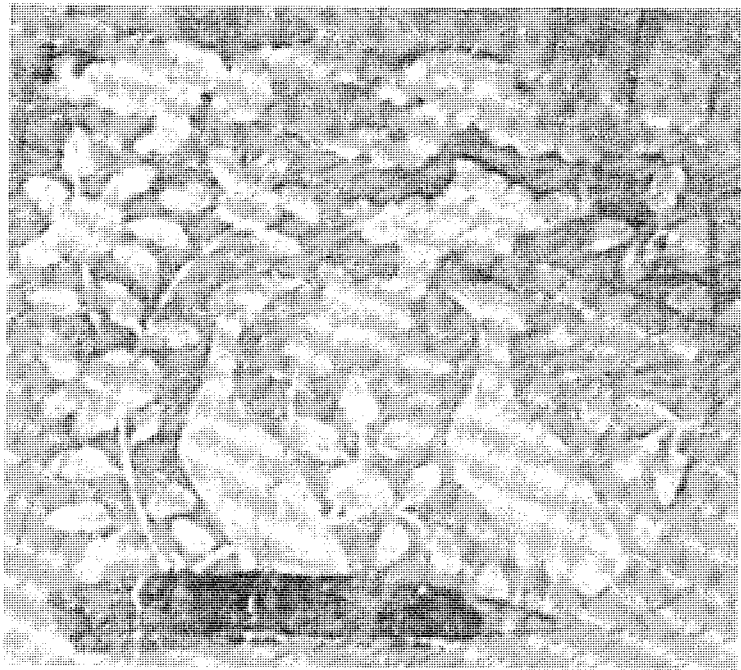
〈도 5〉 李元翼 1547~1634 孔雀胸背 國立中央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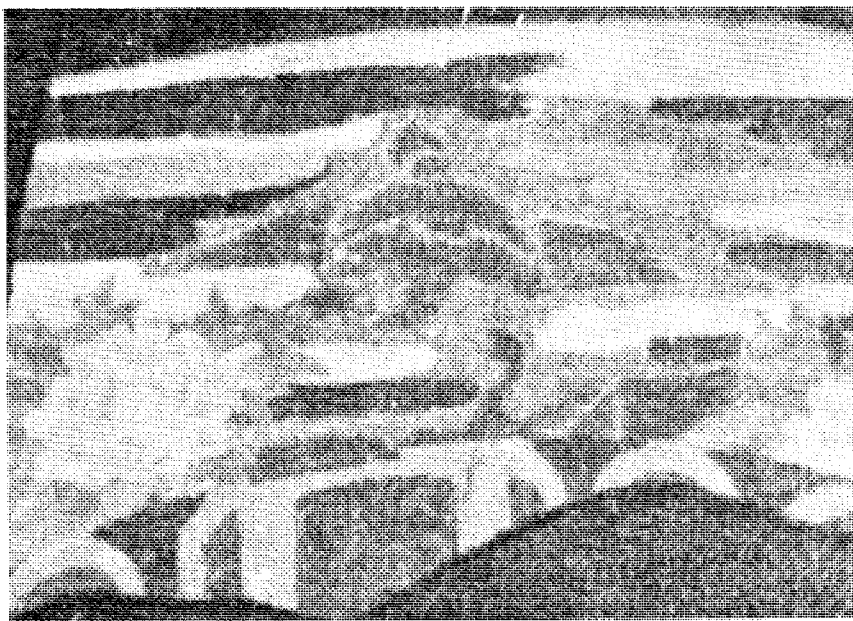
〈도 6〉 柳 根 1549~1627 孔雀胸背 柳海益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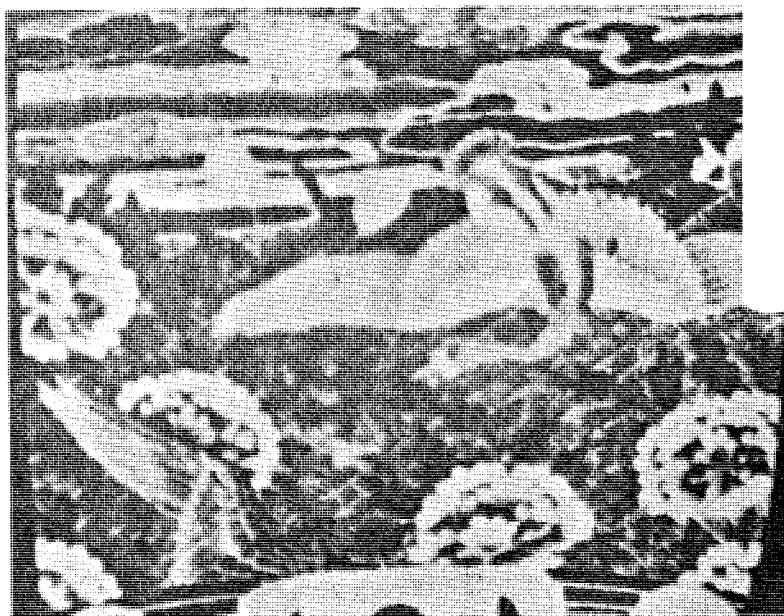
〈도 7〉李 貴 1557~1633 孔雀胸背 國立中央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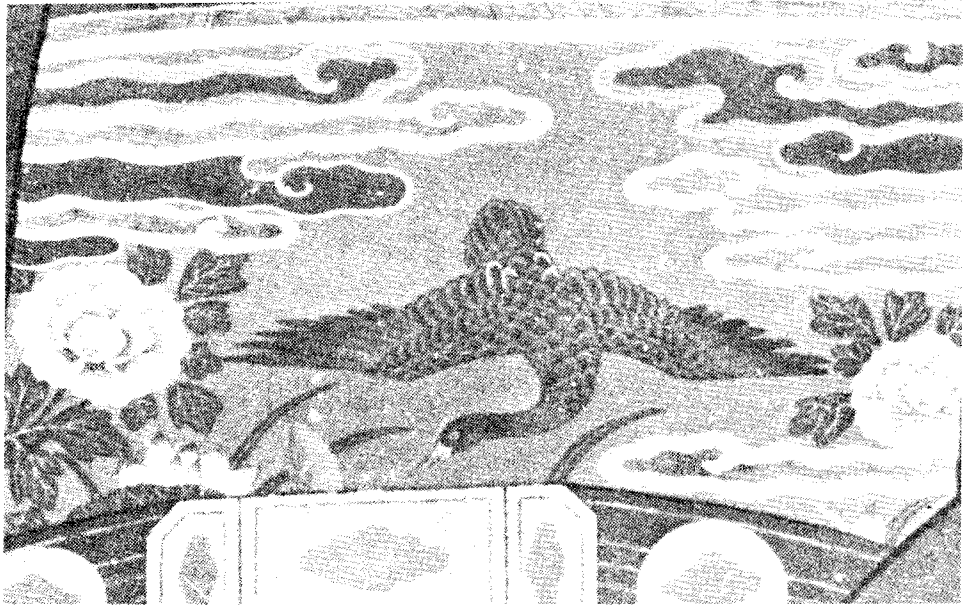
〈도 8〉申叔丹 1417~1475 雲雁胸背 高靈申氏門中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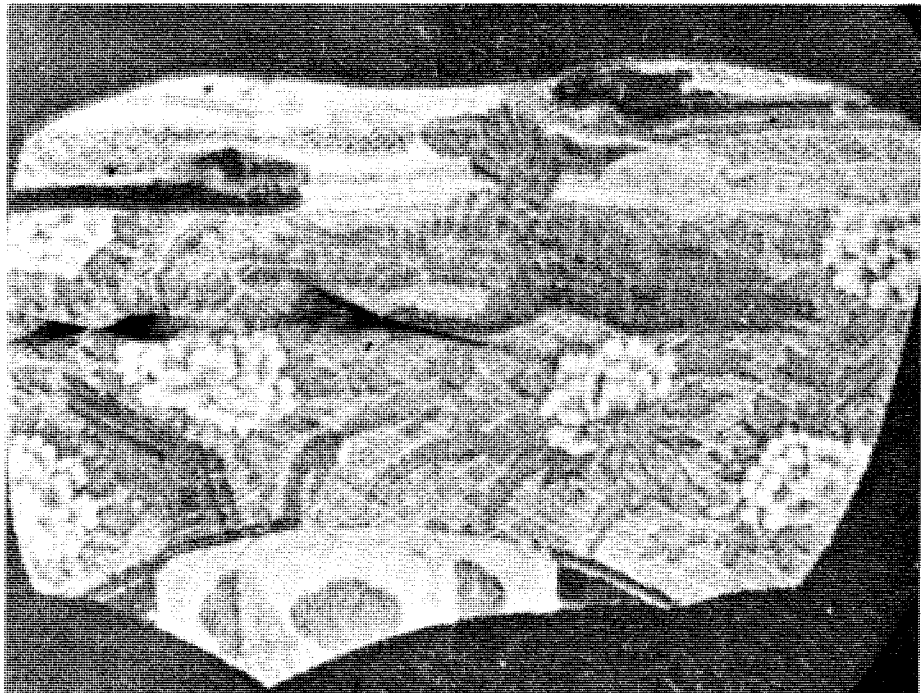
〈図 9〉 洪可臣 1541~1615 雲雁胸背 國立中央博物館所藏



〈図 10〉 申應棻 1553~1623 雲雁胸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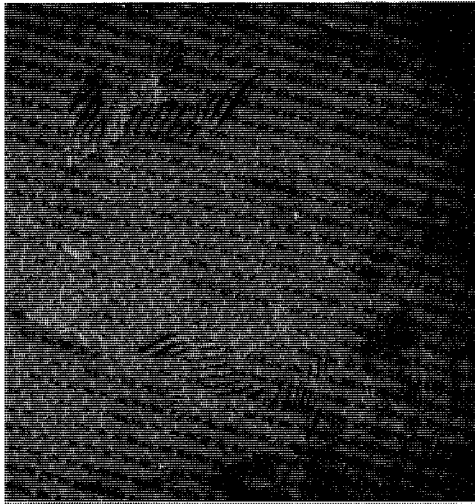
〈도 11〉 李時白 1592~1660 雲雁胸背 國立中央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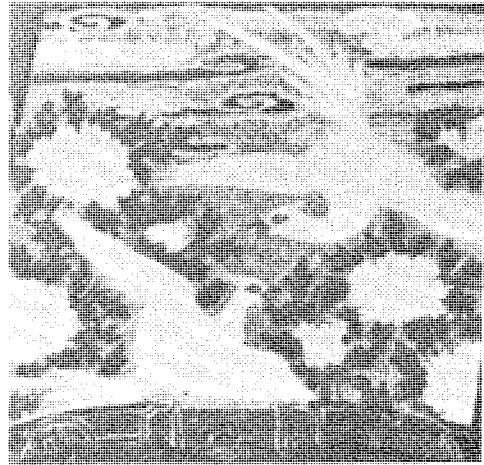
〈도 12〉 柳 頤 1597~1660 雲雁胸背 槐山花嚴書院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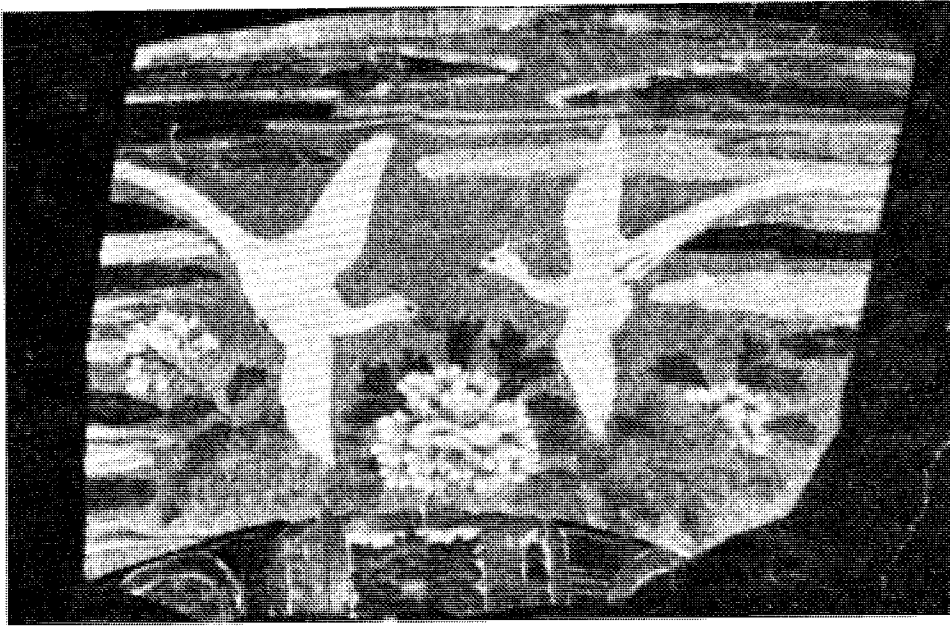
〈도 13〉尹 鎬 1617~1680 雲雁胸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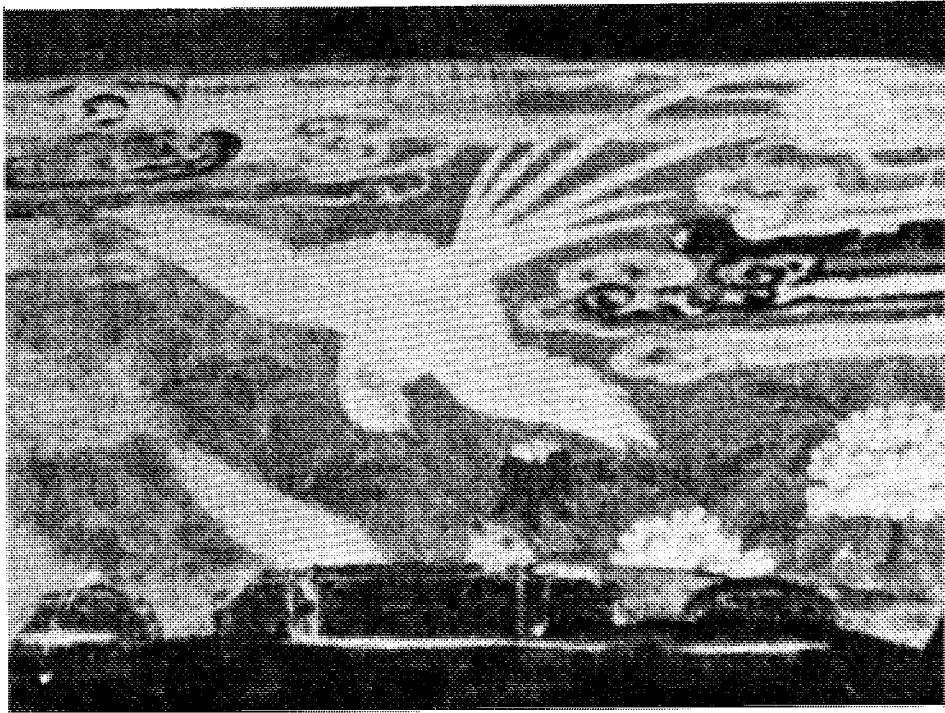
〈도 14〉出土品 1650 雲雁胸背
石宙善民俗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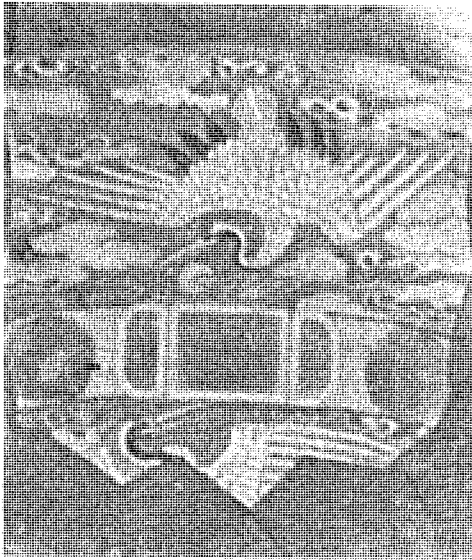
〈도 15〉尹重三 1563~1618 白鵞胸背
國立中央博物館所藏



〈图 16〉李士庆 1569~1621 白鵞胸背 國立中央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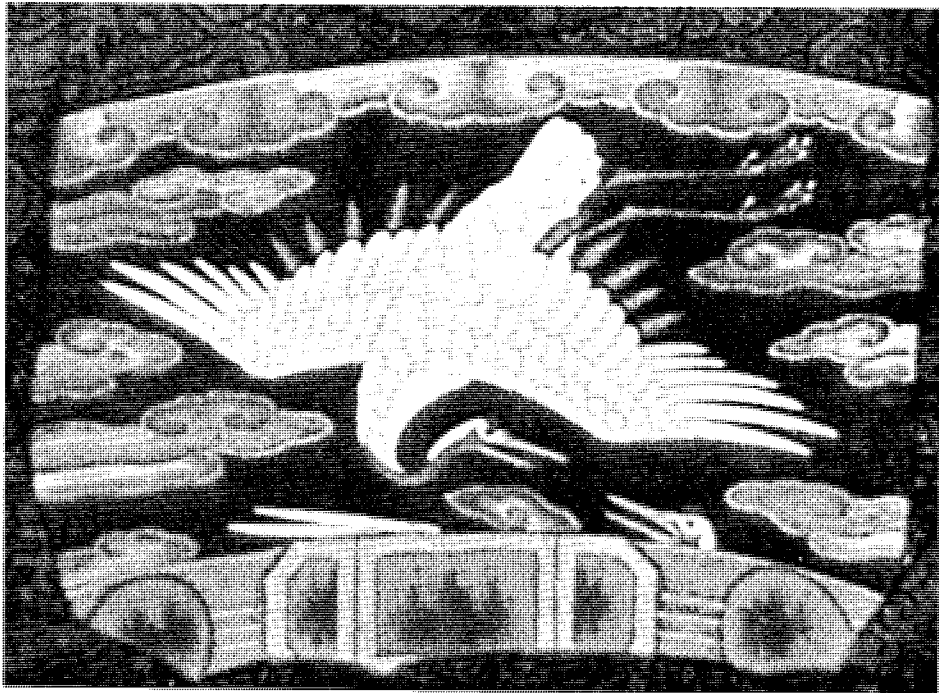
〈图 17〉張維 1587~1638 白鵞胸背 國立中央博物館所藏



〈도 18〉 南九萬 1629~1711 雙鶴胸背
國立中央博物館所藏



〈도 19〉 申翼相 1634~1697 雙鶴胸背



〈도 20〉 李宜顯 1669~1745 雙鶴胸背



〈도 21〉尹 汲 1679~1770 雙鶴胸背



〈도 23〉李吉輔 1699~1771 雙鶴胸背
國立中央博物館所藏



〈도 22〉李周鎮 1691~1749 雙鶴胸背 國立中央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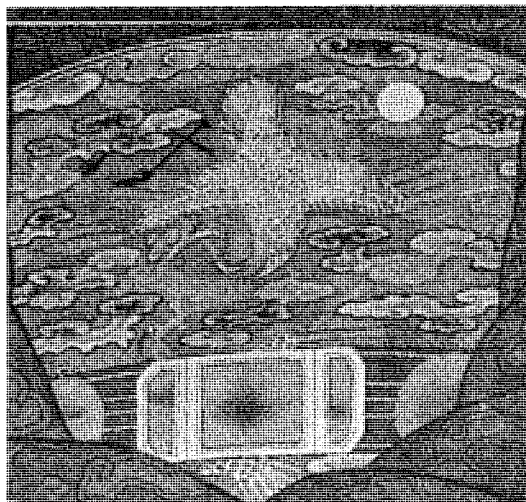
〈도 24〉 洪象漢 1701~1769 雙鶴胸背 國立中央博物館所藏



〈도 25〉 鄭泰齊 1612~1659 雙鶴胸背
石宙善民俗博物館所藏



〈도 26〉 李 寬 1636~1731 雙鶴胸背
石宙善民俗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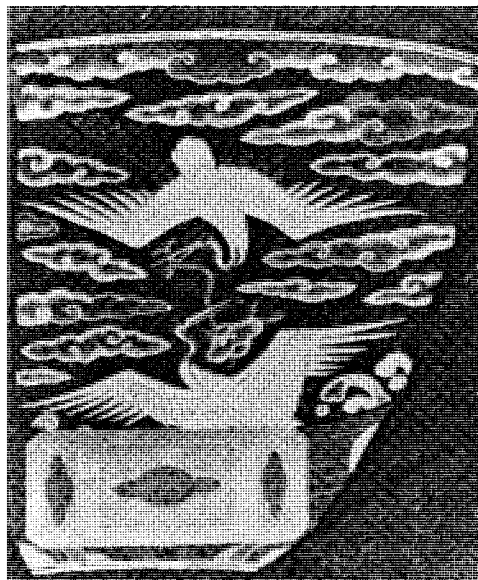
〈ㄊ 27〉 姜 銳 1650~1733 雙鶴胸背 姜永善所藏



〈ㄊ 28〉 李鼎輔 1693~1766 雙鶴胸背
國立中央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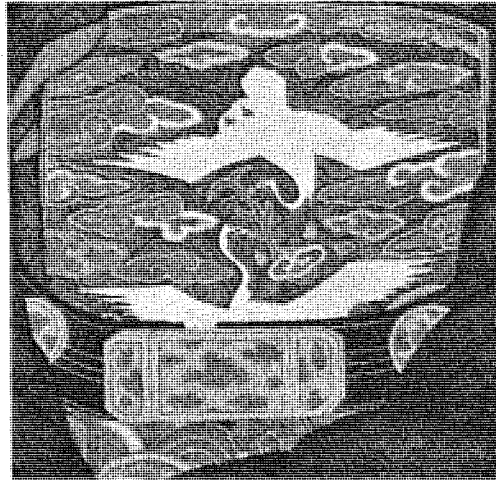
〈ㄊ 29〉 李性源 1725~1790 雙鶴胸背
國立中央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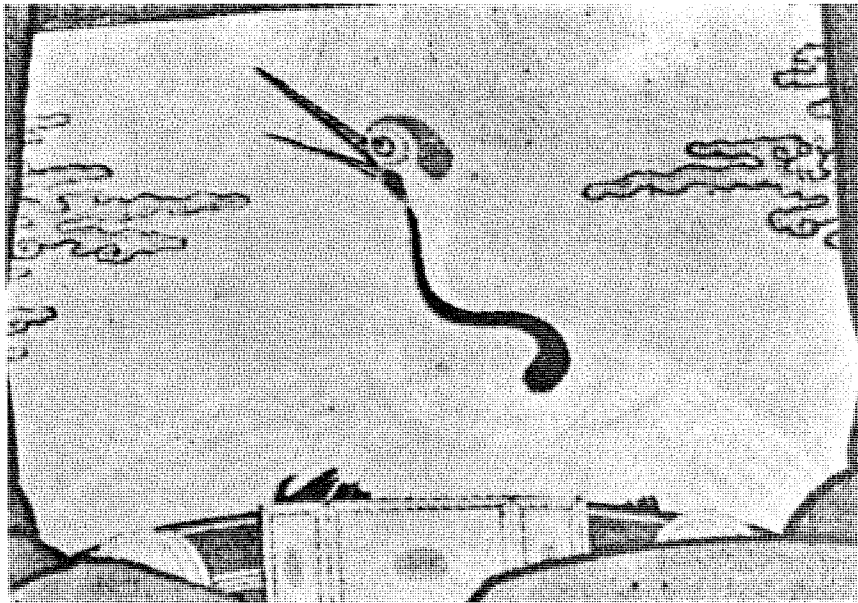
〈ㄊ 30〉 趙興鎮 1748~1814 雙鶴胸背
國立中央博物館所藏



〈도 31〉 李書九 1754~1825 雙鶴胸背
國立中央博物館所藏



〈도 32〉 金正喜 1786~1856 雙鶴胸背 金聲基所藏



〈도 34〉 金 埴 1580~1658 單鶴胸背



〈도 33〉 李益應 1815~1848 雙鶴胸背
淑明女大博物館所藏



〈도 35〉 尹時達 17C~18C 單鶴胸背
國立中央博物館所藏



〈도 36〉 李載完 1855~1923 單鶴胸背
淑明女大博物館所藏



〈도 37〉 清代文官1品 仙鶴補



〈도 38〉清代文官2品 錦鷄補



〈도 39〉清代文官3品 孔雀補



〈도 40〉清代文官4品 雲雁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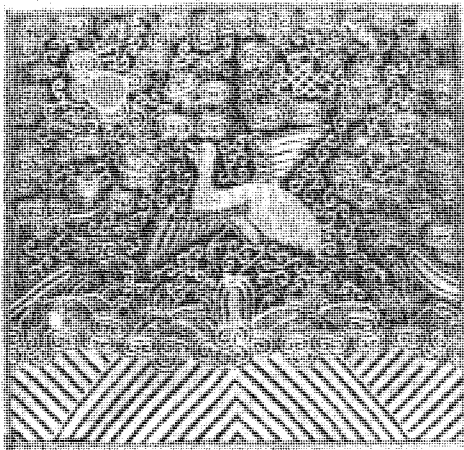
〈도 41〉清代文官5品 白鷺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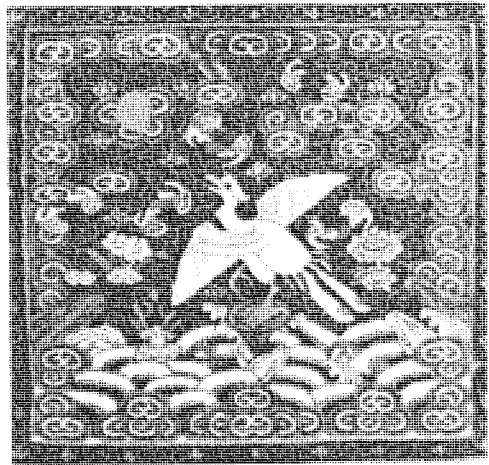
〈ㄊ 42〉 清代文官6品 鸞鶴補



〈ㄊ 43〉 清代文官7品 鶴鶴補



〈ㄊ 44〉 清代文官8品 鶴鶴補



〈ㄊ 45〉 清代文官9品 練雀補

居家雜服攷를 통해본 朴珪壽의 服飾觀

趙孝順

서론

박규수의 복식 復古論

1. 外服에 있어서의 복고론
2. 內服에 있어서의 복고론

3. 幼服에 있어서의 복고론

박규수의 實學的 복식觀

결론

서론

朴珪壽는 1807년(순조7)음력 9월 27일에 서울 嘉會坊에서 縣令 朴宗采의 삼남 중 장남으로 태어나, 1876년 음력 12월 27일 서울 齋洞에서 70세를 일기로 시상을 떠났다. 그가 살다 간 시대, 그 중에서도 박규수가 왕성한 활동을 벌이던 19세기 중엽은 韓國史에 있어서 중세와 근대가 교체하는 역사적 대 전환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의 최일선에 서서 그는 격변하는 상황에 대응하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하여 이 시대의 선각자로서 소임을 다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훗날 그에게 붙여진 평가는 최후의 實學思想家이자, 최초의 開化思想家였다. 생각해 보면 박규수에게 실학사상가란 호칭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의 祖父가 바로 실학자로 일세를 떨치던 燕岩 朴趾源(1737-1805)이기 때문이다. 당대의 대실학자로 현실 사회의 모순을 신랄하게 풍자 비판하던 할아버지 박지원의 혈통을 이어 받아, 훗날 그의 학문이 실학적 경향으로 흘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박규수의 사상을 이루는 기본 정신은 自主와 平等이었다. 이중 자주정신은 주로 華夷思想에 대한 비판정신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北學派의 華夷思想 극

복론과 일치하는 견해였다.” 또한 평등정신은 그의 瓊齋集 雜文에 나타나 있는 평등적인 직업윤리로 집결된다. 여기서 그는 선비를 農·工·商과 동일한 계급에 두고, 농·공·상의 직분을 학문적으로 보다 잘 수행하는 전문가가 선비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조선조 말의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시대를 풍미하던 박규수는, 또한 앞시대의 실학과 학자들이 그랬듯이 매우 博學多識하여 정치·경제·金石·書畫·服飾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글을 남기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박규수의 많은 관심 분야 중에서 특히 복식에 대해 그의 생각을 펼쳐 본 居家雜服考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복식관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한 시대를 열심히 살다간 대학자의 복식관을 살펴 본다는 것은, 그 시대의 복식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는 데에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이 글의 자료로 사용된 居家雜服考는 한국학문헌연구소에서 影印한「박규수전집 하권」에 수록된 것임을 밝혀둔다.

박규수의 복식 복고론

1. 外服에 있어서의 복고론

박규수는 그의 저서인「거가잡복고」에서 남성의 복식을 外服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는 당시의 외복이 先王의 제도나 經傳의 제도에 크게 어긋난다며, 최소한도 禮服만이라도 古制로 돌아가야한다고 衣裳復古論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특히 남성의 예복으로 추천하고 있는 것은 深衣와 玄端이다. 그는 이들 의상이라면 관례나 혼례는 물론 선조의 제사등 집안의 어떤 禮事에 입었더라도 예의에 어긋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심의와 현단이 예복으로 적당한 이유를 그는 또, 이 두가지 옷이 뭇옷의 표본으로 현단은 天子에서 선비까지 다 입으며, 심의는 천자에서 서민까지 모두 폭 넓게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여기서 심

1) 李完宰, 朴珪壽의 生涯와 思想, 한양사학 제3집. p. 61~62

의와 헌단이 예복에 적당한 이유를 박규수의 의견을 들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深衣

심의를 중국의 문헌인 「禮記」王制篇에 벌써 나와 있듯이, 衣裳制度和 더불어 옛부터 중국 고유복식의 二大主流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하여 周代에는 天子를 비롯한 士이상의 계급에서 燕居服으로 사용되었고,²⁾ 秦·漢代에는 천자의 常服으로 사용되었으며, 魏晉南北朝時代에는 8품 이하 流外四品 이상의 公服으로 사용되었다.³⁾ 이어 隋代에는 深衣制에 의거하여 천자의 絳紗袍가 만들어졌고, 唐代에는 士人계급에서 심의가 착용되었으며, 宋代에는 사대부가의 관례·혼례·제례·燕居·交際의 通服으로 착용되었다.⁴⁾ 또한 明代에는 황제의 연거복으로 황색심의가 착용되었다.⁵⁾

그러면 이렇듯 중국 사람들의 衣生活를 지배해온 심의가 우리 나라에 전래된 것은 언제쯤일까? 우리 문헌에서 심의에 관한 기록이 보이는 것은 「高麗史」가 그 처음이다. 곧 睿宗條에 “癸丑에, 寮의 祭奠弔慰使가 숙종의 虞宮에서 祭하였는데, 왕이 深衣를 입고 祭奠을 도왔다”⁶⁾고 하여 심의가 왕의 喪服으로 착용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고려에서 심의가 착용된 예는 그 뒤 고려 말엽의 성리학자였던 李齊賢(1287-1367)의 초상화에서 이다. 이와같이 볼 때 고려에서는 宋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심의가 같이 들어와 왕의 喪服으로 착용되었고, 말엽에 이르러서는 儒學을 숭상하는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착용된 것으로 추정된다.⁷⁾

심의는 그 뒤 조선시대로 이어져 儒家의 法服으로 여전히 유학자들 사이에서 착용되었고, 朱子家禮에 의거한 四禮의 예복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

2) 「禮記」, 玉藻篇

3)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臺北 中華大典 編印會, 1969, p.185.

4) 王宇清, 앞의 책, p. 191~193.

5) 王宇清, 앞의 책, p171.

6) 譯註 「高麗史」第二卷,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編, 1971, p. 72.

7) 金仁淑, 深衣考, 服飾 創刊號, 韓國服飾學會, 1977, p.104.

는 도포류가 크게 유행하던 때이므로 심의가 그다지 일반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박규수가 外服으로서 도포류 대신 심의가 착용되기를 극구 주장했는지도 모른다. 앞서 서문에서 밝혔듯이 박규수는 華夷思想의 배격론자이다. 그럼에도 중국 전통의 심의를 일반 예복으로 주장함으로써, 박규수 스스로 華夷思想 배격론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은 매우 재미있는 일이다. 그러면 박규수는 어떤 이유로 하여 심의의 일반화 내지 예복화를 주장하고 있는가 그는 먼저 君子가 심의를 입어야 하는 까닭을 낱낱이 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군자는 만물을 포용하는 모든 사물을 두루 다스려서 각박함을 나타내지 않아야 하는데, 군자가 심의를 입음으로써 너그럽고 넓은 마음을 보여 그 道가 어디가나 태평 아님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군자는 말이 많으면 덕을 손상하게 되므로 말을 적게 해야하는데, 군자가 심의를 입으면 그윽하고 깊게 두루 가리워서 신중하고 은밀해 진다는 것이다.

셋째로 군자는 거동에 있어서 엄숙해야 하는데, 심의를 입으면 머리 모양을 바르지 않게 하고, 손모양을 공손하지 않게 하며, 발모양을 진중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군자의 거동 용모가 포박하고 거만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넷째로 군자는 지혜를 운용함이 공정해야 하는데 심의를 입어 소매가 둥글을 보이면 군자가 지혜를 운용함이 비틀리거나 꼬이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군자는 천하를 끝은데에 있게 하고자 하는 바, 군자가 심의를 입어 치마깃의 앞·뒤·좌·우의 꿰매이 끝은 것을 보이면 군자의 도는 어디가나 끝지 않는 것이 없고 주변의 모든 사람도 끝게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로 달리고 쉬지 않는 것은 둥글만한 것이 없고, 그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네모만한 것이 없는데, 군자가 심의를 입어 모를 쓴 당연한 마음을 보이면 군자의 마음 다스림은 도가 있고 자기의 행동을 꼭 정방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로 군자는 한편으로 치우친 행동이나 모질고 궁색한 절개를 귀히 여기지 않는 바, 심의를 입어 아랫단이 고른것을 보이면 군자의 中庸이 어디가나 평상하

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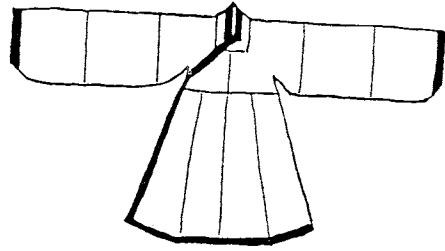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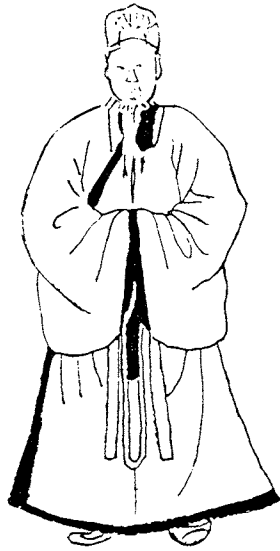
여덟째로 심의의 모나고 둥글고 굽고 곧은 것은 천하의 지극한 모양이요, 크고, 작고 길고 짧은 것은 천하의 지극한 數字이므로, 심의는 임금과 신하가 함께 입어도 참람하지 않고, 귀천이 같이 입어도 문란하지 않으며, 남녀가 같이 입어도 음란하지 않고, 길흉에 함께 입어도 문란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박규수는 이밖에도 深衣로 復古돼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용이한 재료의 취득과 그 재료의 질기고 튼튼함을 들고 있다. 곧 그는 심의를 짓는 옷감이 麻布·苧布·綿布등인데, 이들 옷감은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가 있고 천이 튼튼하고 질겨 쉽게 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열거된 심의 예찬론이 심의의 상징성을 염두에 둔 다분히 추상적인 이론인데 반해, 심의의 재료에 대한 이 내용은 실용성과 현실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박규수는 심의의 制道에 있어서 무조건 중국 古禮의 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近世諸家와 우리나라 先儒의 여러 식을 취해서 몸에 편하게 맞도록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는 남성의 겉옷이나 예복을 중국의 예복인 심의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충분히 소화시켜 착용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衣 次 服

衣 深



(2) 玄端

玄端은 周代의 예복으로, 衣裳連衣인 심의와 달리, 裳이 衣에 이어지지 않고 주름이 있으며 양옆이 터져있는 옷이다. 박규수는 중국의 賈公彥이 현단을 종묘에 들어갈 때의 祭服으로 본점, 鄭玄이 현단을 관례나 혼례의 예복으로 본 점, 현단이 의상의 시초로 九服의 의외에 있으면서도⁸⁾ 九服의 근본이 되고 있는 점등을 들어 집에서 하는 모든 禮事에 현단의 착용을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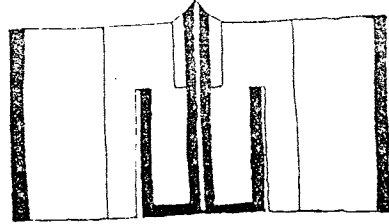
또한 박규수는 大夫와 士가 각기 다른 예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玄端으로 모두 통일한다면, 간단하고 질박한 道에 합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 그는 특히 혼례때 신랑의 예복으로 현단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혼례가 인륜의 시초이고 만세의 근본이므로 현단을 입고 예를 이룬다면 예의 情義에 적합하지 않겠느냐는

8) 「周禮」外司服 天子以下 九服에 玄端은 들어있지 않음

것이 박규수의 지론이다. 당시 신라의 혼례복은 烏沙帽, 犀束帶에 紫羅 圓領袍로 대군·왕자의 평상 조회복이었다. 이러한 신라의 혼례복에 대해 박규수는 지금 풍속의 신라 옷은 法服도 아니오 사대부의 命服도 아닌 즉 예에 맞지 않고 또, 冠帶 燕服과도 다름이 없으니 당연히 옛 제도를 따라 신라의 혼례복을 현단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한편 박규수는 심의에서 그랬던 것처럼 현단을 착용함에 있어서도 중국의 옛제도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예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서 입을 것을 중용하고 있다. 먼저 그는 현단에 있어서 衣부분은 가는 베에 검은 물을 들여 만들라 했고, 裳부분은 본래 중국에서는 선비의 계급에 따라 검은색, 누런색, 잡색으로 구분하여 입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중간 색인 누런색으로 일정하게 통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단에 대는 선은 검은색으로 하면 옷색깔이 검으므로 구별이 안되고, 붉은색은 옛날 爵弁의 선이므로 본 받을 수 없으며, 흰색은 凶制에 가깝고, 누런색은 보고 들은데에 맞지 않으므로 푸른색 선을 두름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박규수가 말하는 이러한 형태의 현단이 조선조 말에 어느 정도 착용되었는지는 고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박규수 개인의 이론 전개에 그쳤을 뿐 거의 착용된 것 같지는 않다.



2. 內服에 있어서의 복고론

박규수는 남성복을 外服이라 칭한데 대하여 여성복을 內服이라 칭하였다. 내복에서 그가 復古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겹옷의 부활이다. 예전에는 여성에게도 겹옷이 있었는데, 임진란이후 겹옷이 없어지고 속옷이던 저고리와 치마가 겹옷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집안에서는 임진란 이후에도 집안의 복식에 법에 따라 부녀자들이 겹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때에도 통일신라시대 金春秋가 唐으로부터 衣帶를 수용한 이후 우리옷이 중국의 제도로 고치게 하고 문무왕 4년에는 부인복과 여자혼례복을 수용하여 혼례식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여성들도 紅長衫·圓衫·唐衣등과 같은 겹옷을 갖추어 입기는 했다.⁹⁾ 그러나 박규수는 紅長衫에 대해 “이옷은 붉은 비단 바탕에 연꽃 수를 두루 놓아서 만든 것으로 그것이 비록 화려하고 고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한 몸을 가리기에

9) 朴京子, 우리나라 혼례복에 관한 研究,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8.

너무 넓고 흩어져 있다”고 하여 예복으로 적당치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圓衫에 대해서는 “그 색깔은 녹색인데 긴 옷자락과 넓은 소매로 되어 있고 양쪽 다리 근처는 잘 휩싸이지 않아서 벌어진다”고 하여 이 또한 예복으로서 단정함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唐衣에 대해서도 “소매는 좁고 아랫도리는 벌어지며 길이는 겨우 배를 가릴만한 것이다”고 하여 예복으로서의 부당성을 논하고 있다.

박규수는 그의「거가잡복고」내복편에서 宵衣는 부인 예복의 시작이라하고 冠婚喪祭禮의 중요한 四禮에는 반드시 表衣을 입어야 하는데 士와 士妻의 근본이 되는 宵衣를 입어야 하고 이어서 혼례복에는 纁紺을 둘러 紺衣로 착용해야한다고 했다. 이는 혼인이란 人倫의 시작이며 만대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그때에 부녀자들이 흔히 외출할 때 입던 納衣와 背子에 대해서도 그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들 옷이 겹옷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納衣는 본래 중들의 옷으로서 불교를 숭상했던 遺俗이므로 빨리 고치는 것이 마땅하고, 배자도 宋代의 俗制일뿐 古禮는 아니므로 여성의 겹옷으로서 적합치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이어 그는 여성의 예복겸 겹옷으로서 宵衣가 復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규수는 宵衣의 안에 입는 옷으로서 이즈음의 치마 저고리 대신 예전의 裙·儒가 복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 宵衣

宵衣는 조선조 숙종때 李紱가 편한「四禮便覽」昏禮條에 시부모를 뵈올 때의 諸具중의 하나로 되어 있다.¹⁰⁾ 또한 이 책에는 “紺衣·宵衣·襟衣는 똑같이 한 가지의 옷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¹¹⁾ 따라서 소의는 上衣와 下裳이 이어진 옷으로 「사례편람」에 의거한 四禮의 예복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복식의 사치화로 예복이 홍장삼·당의·원삼 등으로 화려하게 바뀌어져, 박규수가

10) 李紱, 「四禮便覽」, 卷之二, 昏禮, 醮女.

11) 바로앞과 같음.

활동을 하던 조선조 말엽에 와서는 거의 예복으로서 자취를 감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때에 박규수는 또다시 여성의 겉옷으로서 또한 예복으로서 宵衣의 복고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그가 이상의 겉옷내지 예복으로서 소의가 적당하다고 본 것은, 이 옷이 예로부터 선비의 아내된 사람의 겉옷으로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에 반드시 이 옷을 입고 행하였다는 데에 있다. 게다가 본래 장부와 부인은 그 옷에 있어서도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을 예로 여겼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장부의 예복이 현단이라면 현단에 상대되는 옷이 바로 소의라는 것이다. 또한 소의는 현단이 남성복의 시초이듯이 부인복의 시초로 六服이외에 있으면서도 육복의 근본이 되므로 예복으로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다.¹²⁾ 따라서 그는 혼례에는 물론 笄禮나 祭禮때 또는 평상시에 시부모를 뵈때도 소의를 갖추어 입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례편람」 관례 笄禮立條에도 笄禮복으로, 婚禮見舅姑條에는 혼례복으로 기록되어 있다. 소의의 형태는 上衣下裳을 나누어 재단하고 다시 붙여 꿰맨다. 몸전체의 품과 소매통이 넉넉하며 넓고 깃·끝동·치맛단에 靑緣을 들렀고 허리에는 紅色의 緣을 한데에 다시 絲帶를 매고 雜佩를 한다.

한편 소의를 짓는 옷감에 대해 儀禮士昏禮에 宵衣의 宵는 綃로 읽어야 하며 〈魯詩〉에는 綃를 綺의 일종이라 했고 古今圖書集成에서는 姆도 玄衣에는 綃를 가지고 領을 만들기 때문에 綃衣또는 宵衣란 이름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은 緣衣에다 綃를 이용하여 領을 만들기 때문에 純衣와는 구별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儀禮特生饋食禮〉에 “主婦纒笄宵衣立于房中南向”라 있어 주부의 宵衣는 綃로 한다고 했고 士昏禮에는 姆도 소의에 綃로 領을 만든다고 하였으므로 소의의 재료는 주로 綃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박규수는 外服에서 그러했듯이 우리 실정에 맞도록 꼭 비단으로 하지 않고 베[布]로 해도 괜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장부의 현단이 베옷이라면 아내의 옷도 응당 베로 해야 마땅한데다, 베로 하든 비단으로 하든 그것은 없고 있고의 차이일뿐 예의와 무관하다고 본 때

12) 「周禮」內司服 王后以下 六服에 宵衣는 들어있지 않음.

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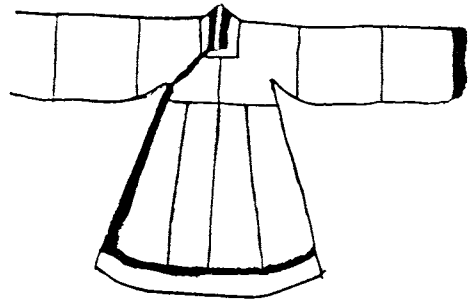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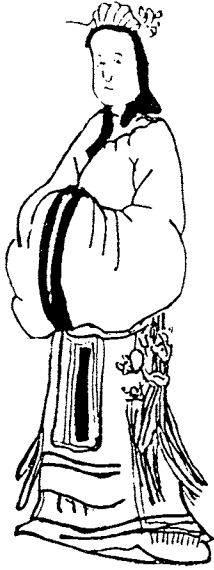
이밖에 그는 소의의 색깔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소의의 上衣 부분과 下裳부분은 같은 색이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부인은 오로지 잡된 것이 없는 한결같은 덕을 숭상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박규수는 그의「거가잡복고」내 복편에서 宵衣의 본래 緣은 청색인데 혼례복으로 할때는 陰陽이 서로 교합하여 의지 한다는 뜻에서 纁紺의 緣을 본래의 청색 연위에 덧붙인다고 했고 그러므로 그 명칭을 紺衣라 한다고 했다. 또한 소의는 純衣·緣衣와 같으며 염의와 같고 제도는 玄衣의 深衣제도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염의는 紅長衫이 되었고 이것은 다시 활옷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고려도경」에 보이는 大紅衣·丹衫이나 활옷[華衣]은 국속화된 우리나라 혼례복으로 정착되었음을 시사해 준다.¹³⁾ 박규수는 또한 紺衣·宵衣·緣衣는 모두 같은 제도로 보았고 다만 염의에는 혼림을 두른것이 다르다고 하였으며 宋尤庵은 염의도 역시 深衣제도인데 다만 紅色緣을 두른것이 다르다고 하였다. 〈禮記玉藻篇〉에도 소의는 玄色 즉 黑色¹⁴⁾이라 했으며 〈周禮天官內可服註〉에도 “남자의 緣衣는 검은색이니 여자의 단의도 검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남자의 단의는 玄端을 말하는 것으로 판례시를 제외하고는 부인의 단의와 같게 衣와 裳을 연결시켜 만들었으며 緣의색은 역시 검은색임을 알 수 있다. 박규수는 단의에 대하여 六服中에 가장 下位의 옷인데 士妻의 上位의 옷이 되고 단의 밑에 宵衣가 사처들의 喪服이 되었고 단의와 소의는 서로 같은 제도이며 단의가 黑色이라 한다면 소의도마땅이 黑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조선중기 왕비가례에도 시녀의 의복에 黑長衫이 보이며 〈儀禮士昏禮鄭玄〉의 註에도 “女從者畢衫玄”이라고 있어 혼례복과 혼례에 참여자의 복색이 黑色이었음을 시사해 준다. 박규수는 또한 소의에 대는 선의 색깔에 대해 붉은 선은 단의에 대는 색이므로 쓸수 없고, 그 나머지 다른 색도 다 마땅치 않으며 오직 청색만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것은 남자의 예복인 현단의 선이 푸른색이므로 여자의 예복인 소의도 여기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3) 李能和 朝鮮女俗考, 新轉書林, 1973, p.233.

14) 「禮記」玉藻篇, 男子之緣 黑則是亦黑也

衣育笄纓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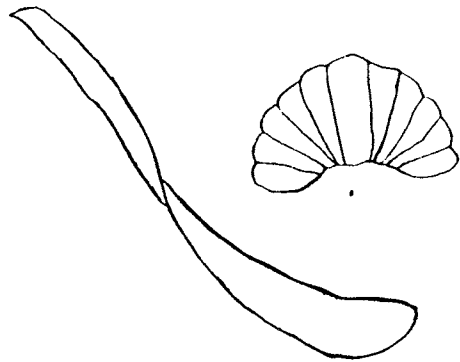
衣



笄

纓

服



(2) 裙과 儒

박규수는 부인의 평상복으로 裙과 儒를 입고 그위에 겹옷을 입어 禮服으로 하여 古制의 복식풍속에 復歸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고려의 비루한 복식제도를 고쳐야 하므로 中華의 제도를 따라 宵衣를 上服으로 制定하고 있다.

「사례편람」(婚禮見舅姑條)에는 신부가 시부모를 뵈때 笄·冠·宵衣·帔를 착용하며 소의의 형태는 염의에 緣을 두루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大衣와 長裙을 입는다고 주장하여 예복에 있어서 裙과 儒를 소의 기본 복식, 나아가서 禮服化의 襲用을 권장하고 있다.

박규수는 당시의 치마[裙]가 10여폭을 주름잡아 만든 것임에도 뒤로 여미는 까닭에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면 이리저리 벌어지거나 끌려 행동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을 들어, 예전의 치마제도인 裙으로의 복고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에 따르면 裙은 漢代이후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 여미는 곳이 몸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롭게 행동해도 벌어질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박규수는 裙의 제도법을 전체를 주름잡아 뒤에서 여미는 그 때의 치마제도법과 달리, 양옆구리에만 주름을 잡아 오른쪽에서 여미도록하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그즈음에 크게 풍속을 이루고 있던 짧고 좁은 저고리가 비루하다며, 예전의 형태인 儒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박규수가 살던 시대의 저고리는 조선조 중기부터 짧아지기 시작한 등갈이가 한층 짧아져 심한 경우 14.5cm밖에 안돼 겨우 유방을 가릴정도 였다.¹⁵⁾ 그런가하면 직배래의 筒袖였던 소매가 이때를 기해 곡배래로 변화하면서 부리[袖口]끝동도 매우 좁아진 상태였다.¹⁶⁾ 이러한 여성의 저고리를 놓고 벌써부터 사대부들 사이에 비판이 많았던 바, 박규수의 눈에는 이러한 여성복이 마땅할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그는 소매가 직배래 통수로 길며 등갈이가 허리밑까지 내려오는 예전의 儒제도로 복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박규수는 儒의 제도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를 짓는 천에 있어서 색깔은 적당히 쓰되 유

15) 拙著, 「轉國服飾風俗史研究」, 一志社, 1988, p.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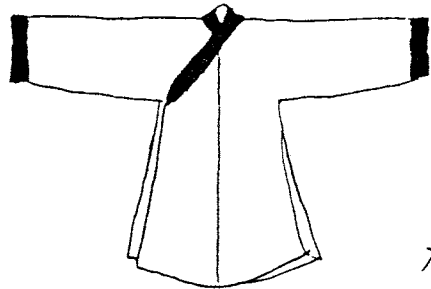
16) 바로 앞과 같음

의 너비는 한자 길이는 손을 가리울만큼 옷깃과 비끼게 하고, 겨드랑이 솔기는
 곁들여 입는 옷 옆 잔허리뼈에 해당하는 곳에서 각기 한자쯤 터지게 하여 움직이
 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옷깃과 소매부리에는 검고 푸른 단을 두르되 너비는
 한치 반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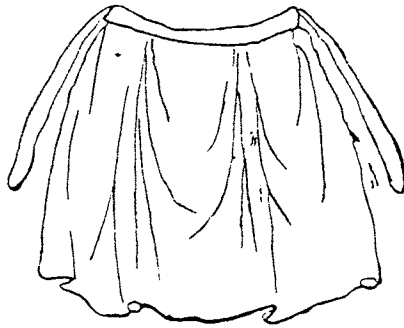
이밖에 그는 “큰 예나 높은 손님이 아닐 때 혹은 보통 집에 있으면서 단정히
 예를 차리고자 할 때, 옅은 색의 조금 짧은 치마를 속옷 위에 걸쳐서 저고리 위
 에 묶고 치마허리에 색실 허리띠를 묶어서 襦褌와 宵衣중간급 옷으로 삼아도 된
 다”고 하여 준 예복급 평상복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박규수가 여기서 소개한 평상복은 예의와 편리함을 염두에 두었을 뿐
 옷을 입는 여성의 처지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여성복에 반드시 수반되기 마련인
 풍속과 유행을 전혀 도외시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논의는 개인의 이론에 머물
 렸을 뿐 실제로 여성복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찌됐건
 자기 시대의 문란한 복식풍속을 고발하고 또, 나아가서 자기 나름대로 한 제도를
 상고하여 제정할 의도를 보였다는 것은 크게 평가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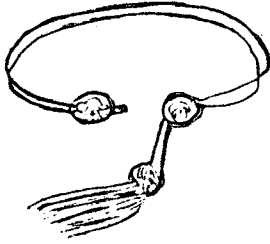
襦褌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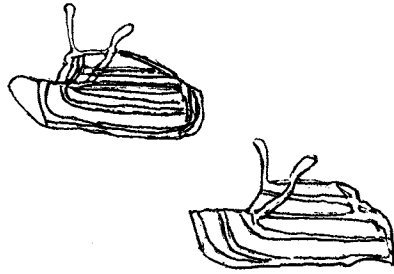
褌



帶 絲



屨



(3)帶

帶는 紅色으로 緣을 두른다고 하였는데 宋尤庵선생의 학설을 따라 纁緣한다 하고 그 제도가 매우 華美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紅과 纁은 陰의 본색이기에 紅緣의 상징성을 따라 그 제도를 삼고 大帶를 묶은 끈[條]은 絲帶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4)신[屨]

박규수는 신의 색은 치마의 색을 따른다고 하고 條의색은 흑색이므로 신도 靑色으로 絢·纁·純을 장식한 黑屨를 신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부인이란 오로지 一德을 숭상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絢는 신코를 말하고 신바닥과 신둘레를 縫綴한 곳에 끈으로 매는 것을 纁이라하며 발이 들어가는 주의에 緣을 둘러는 것을 純이라 했다.

3. 幼服에 있어서의 복고론

박규수는 동자와 처녀[室女]의 首服에 대해 雙紉纁總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어서 辨髮은 오랑캐의 풍속이며 상투를 틀기전에 머리결을 정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옛 제도에 관례전까지 미혼남녀의 대표적 수복이었던 쌍상투[雙紉]와 머리묶음[纁總]으로 복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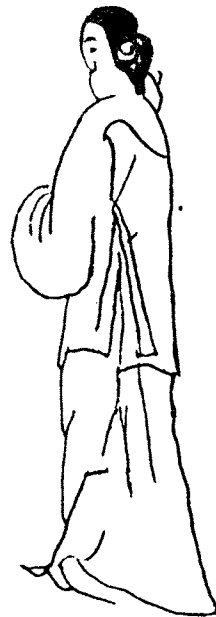
옷은 緇布衣를 입어야 하고 비단띠[錦紳]를 띠는데 붉은 비단으로 한다.¹⁷⁾ <옥

17) 「居家雜服攷」卷三, 幼服篇, p. 9. 錦紳以朱錦 大帶無緣約總之組以錦爲之赤用朱錦.

조예기동자상복조)에는 동자는 總服없다고 하였는데 처녀의 소의에는 동자의 치포의에 반하여 푸른선을 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처녀의 띠[紳]도 靑錦이나 赤錦이 마땅하며 이 띠에는 향수 주머니인 容臭를 패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또한 동자와 처녀의 신도 치포의와 치마의 빛을 따라 검은 색신을 신는것이 좋으며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신코와 신들베를 없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미혼 남녀의 복색에 대하여 무색을 쓰며 素色을 쓰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물안들인 비단은 壯氣를 해치므로 總이나 멩기 금신의 색은 모두 붉은 색으로 하는 것이며 동자가 자라서 文德높기를 바라는 뜻이라고 개성적인 복식론을 펼치고 있다.

紵 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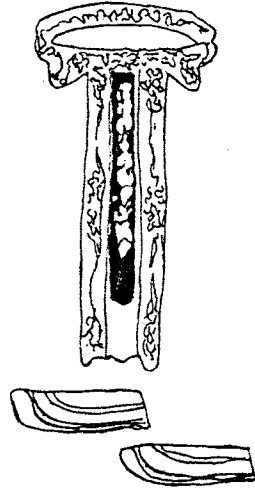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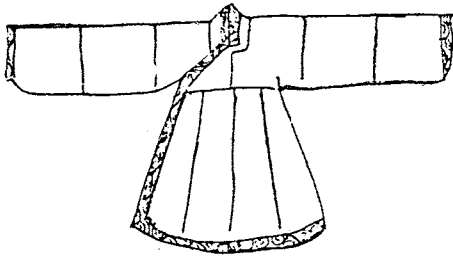
紵 履



衣布縮

童子服圖

組錦紳錦



박규수의 실학적 복식관

박규수의 실학적 복식관은 대략 편리함과 검소함, 그리고 청결함으로 집약된다. 먼저 그는 深衣제도에 있어서 “몸에 맞는 그윽한 실용을 요하는 것이요, 모나고 둥글고 평평하고 곧은 여러가지 꾸밈이 차례로 어울려 합치될 뿐이다”고 하였다. 또한 몸에 편하게 맞지 않는다면 五法을 써서 옷을 지었다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몸에 편리하게 맞으면 의복의 아름다움은 자연히 생겨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규수의 실학적 복식관은 여성복에서 더욱 착실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대개 사치하고 불결한 여성 복식에 대한 질타로, 검소하고 청결해야 한다는 그의 복식관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먼저 박규수의 首服에 대한 논의를 보면 여성예복의 구성은 宵衣·總·笄·纜·絲帶·屨·雜佩를 하며 평상시에는 總을 하고 비녀笄명기하고 裙襦를 입는다고 하였다. 소의에 纜笄總한다고 하였는데 먼저 총으로 속발하여 계를 짓고 비녀로 가로 꽂아 굳게 고정시키고 명기로

싸맨다는 것이다. 〈禮記內則註〉에는 布總의 색은 黑色이며 재료는 纈이고 그 길이는 6寸이다. 「거가잡복고」에는 髮根을 묶는데 적당한 길이로 하고 뒤에 늘어뜨리는 것은 一條로 한다고 하였다. 비녀는 吉禮에는 象笄를 한다하고 부인은 笄가 冠의 대용이므로 笄首에 장식의 鷄形을 조각한다하고 사서인의 妻의 수식을 鍍金은 銀·銅을 허용하고 있다. 纈는 紵라고도 하며 綃纈으로 만들고 넓이는 一幅으로 그 넓이는 二尺이며 길이는 6척이다. 그런데 동자와 처녀 것은 그 치수가 다르다고 하였다. 멩기의 역할에 대하여 鄭氏玄은 “머리카락을 감싸맨다”하였고, 賈公彥과 熊氏는 “머리카락을 감싸서鬢를 짓는다”고 했다. 「사례편람」에는 “계를 에워싸는 것인데 남녀공용이며 지금은 남자의 網巾에 이제도가 남아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박규수는 盧直의 멩기는 계를 싸는 것이다”라는 衣冠의 實用性을 위주로 한 盧直의 설에 동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선조의 수복품인 福巾·僕頭·망건등은 멩기의 제도에서 유래된 것임을 시사해 준다.¹⁸⁾ 그는 또한 당시 髮制開革까지 일으켰던 여성의 가발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다. 사실 조선시대의 여성의 修髮형태는 큰 가발을 머리에 얹는 얹은 머리고, 19세단이 이미 실학자들에 의해 크게 논의된 바가 적지 않았다. 가령 李德懋(1741-1795)는 「靑莊館全書」에서 가발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요즘 한 부자집 며느리가 나이 13세에 다리를 얼마나 무겁게 하였던지,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서자 갑자기 일어나다 다리에 눌러 목뼈가 부러졌다.¹⁹⁾

또한 1781년 씌여진 「秋官志」에도, 얹은 머리에 드는 비용이 中人十家의 생산보다 더 많다고 그 사치성이 지적된 바 있다.²⁰⁾

이러한 여성의 가발풍속은 그 뒤에도 사대부들간의 꾸준한 문제성 제기와, 英祖의 뒤를 이은 正祖의 가발금지령 등에 힘입어 박규수가 살던 시대에는 여성의 修髮형태가 쪽머리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박규수에 따르면 이때에도 또

18) 李緯, 「사례편람」卷之一, 冠禮, 陳服條, 纈黑纈長六尺(周尺) 紵爲之自頂前交於額上却續於髻, 一名紵 古者男女通用今男子網巾, 即此遺制.

19) 李德懋, 「靑莊館全書」, 士小節, 婦僂服食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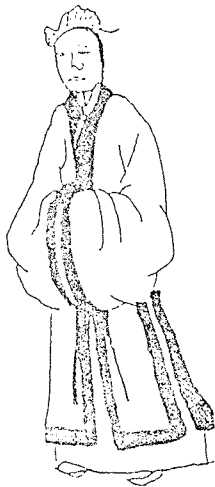
20) 「秋官志」, 第四篇, 掌禁部, 申章奢侈

한 娘子頭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가발이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娘子頭는 처음에는 작게 만들어 쪽머리 위에 붙였으나 해가 갈수록 점점 커지고 길어져 목과 어깨 사이에까지 메고 다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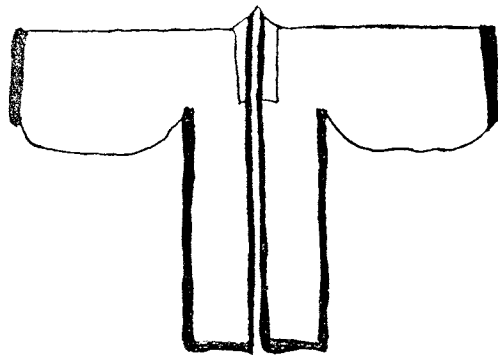
이같은 여성의 가발사치에 대해 박규수는, 누구의 머리털로 만든 것인지도 모를 가발로 사대부 부인의 머리를 장식한다는 것은 매우 불결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천한 사람의 머리털을 빌어 귀한 사람의 머리를 장식한다는 것은, 사람은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그는 비경제적이고 불결한 가발대신 부녀자의 修髮은, 자신의 머리에 멩기를 드려 비녀를 꽂는 것이 가장 청결하고 검소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규수는 한편 無足裾이라하여 치마속에 10여 가지를 끼입는 여성의 속옷 풍속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부녀자들이 치마속에 속옷을 많이 끼어 입었으니, 부인들은 십여개씩 그리고 젊은 여인들이라도 5-6겹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만큼 끼어 입고도 만족함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입는

衫襟四服



衫 襟 四



방식은 짧은 치마[短裙]를 속에 입고 차례대로 길게 해서 허리에 들렀는데, 이때 그것들은 다 갓풀로 힘껏 붙여서 불룩하게 보이도록 했기 때문에 허리 이하의 배가 마치 독이나 종을 얹어 높은 것처럼 불룩하고 둥글게 보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박규수와 비슷한 시대의 사람인 李寅文(1745-1821)의 美人圖 등에서 이러한 복식을 한 여인의 모습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부녀 복식에 대해 박규수는 이렇듯 둔한 차림으로는 시부모 앞에서 간편하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없고, 문에 드나들 때나 부엌에 드나들때도 불편하므로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실용적 실학적 복식관은 남자아이들의 평상복으로 四揆衫을 추천하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四揆衫을 만듬에 있어 이즈음의 사람들이 통뚝으로 그것을 만들어 양옷 설에 해당하는 두 겹을 터버린다면, 이러한 제도법은 古制와 비교해 볼 때 처진 곳이 너무 많아 옷 자체가 너무 벌어져 있으나, 평상시에 활동하기는 아주 편해서 남자아이들의 옷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규수가 禮法이나 古制보다 실용성을 앞세웠다는 것은 꽤 중요한 사실로 기억될만 하다 하겠다.

한편 박규수는 백관들이 조현(朝見)할때 朝服에 갖추어 손에 쥐던 笏의 생활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笏이란 조정의 백관들의 옷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집에 있을 때의 옷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집에 있을 때에도 부모를 섬기거나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있을 것인 즉, 자신의 기억력만으로 이런 일을 완벽하게 해내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笏에 기록하여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매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규수의 이러한 제의는 그야말로 의복의 계층화를 극복한 제의로, 그의 사상의 기본 구조였던 평등정신이 복식관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 론

지금까지 박규수의 복식관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그의 복식관은 중국의 옛전적(典籍)에 기준을 둔 복식제도로 되돌아 가야한다는 복고적 복식관과, 의복이란 편리하고 청결하고 검소해야 한다는 실용·실학적 복식관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중국의 옛복식제도에서 개혁의 원류를 찾으려했던 복고적 복식관은 그의 중심 사상이었던 華夷思想 배격에 절대적으로 모순되는 일이었다. 또한 그가 자신의 문집인 「瓊齋集」권8(書牘)에서 우리는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 서야한다고 주장한 사실에도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일이었다. 이렇듯 그의 사상이 모순점을 낳으면서까지 중국의 옛 복식제도를 따르려했다는 사실은, 조선의 유학자 대부분이 가졌던 공통적인 복식관으로 실학사상을 거쳐 개화사상에 앞장섰던 박규수의 한계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풍속과 호기심 내지는 유행심리가 항상 동반되기 마련인 여성의 복식을 유교적 예의관이나 經傳의 제도에 갖다 부쳐 비루하다 몰아세우고, 중국제도에 기준을 둔 宵衣나 裙·襦로 복고해야 한다고 한 것은 박규수 복식관의 커다란 미비점이었다. 그러나 박규수의 내복고 여성 예복 복고론은 紅長衫이 紺衣가 되고 다시 활옷이 되어 혼례복으로 국속화되었다고 볼때 우리옷의 혼례복 제정에 크게 영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실학적 복식관은 매우 고무적이고 획기적인 사실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첫째 박규수가 의복의 기준을 편리함과 검소함 그리고 청결함에 두고 평가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아름다우면서 활동적이고 경제적이며 위생적이어야 한다는 현대의 의복 기능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19세기에 벌써 한 실학자의 복식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식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는 그가 복식을 개혁함에 있어 계층의 구별을 의식한 양

반주의적 관념을 깨뜨렸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등주의적 복식관은 그의 사상의 기본이었던 평등정신과 일치하는 것으로, 아직도 계층의 구분이 확연했던 시대에 벌써 이러한 복식관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박규수와 같은 선구자적 개혁의지가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다.

박규수라는 조선조 말의 한 실학자를 통해 본 이상과 같은 복식관은, 그것이 비록 여러 정황상 실생활에 반영되지는 못했다해도 우리 복식사의 한 역사적 사실로는 기억되어야 할 일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婚禮服의 民俗學的 研究

—南韓을 中心으로—

高富子

- | | |
|--------------|---------------------|
| 1. 머리말 | 2) 女 |
| 2. 調査對象 | 4. 婚禮服의 着裝에 나타난 특징 |
| 3. 婚禮服의 着裝실태 | 5. 婚禮服에 關連된 民俗 |
| 1) 男 | 6. 맺는말 |

1. 머리말

本 研究은 우리나라 南韓地域을 中心으로 土着庶民의 婚禮服飾에 關한 民俗學的 的 調査에 의하여 정리된 것이다. 南韓地域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우선 現地 住民이 居住하는 出生地 및 成長地를 위주로 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土着民을 통하여 그 地方의 固有風俗을 파악하기 위함에서이다. 따라서 가능한 人的 物的(遺物)資原을 同時에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期待 때문이기도 하다.

本 調査 對象者들의 연령은 1880년부터 1950年代까지 그 폭이 7~80년의 時間差를 두고 있으나 婚姻時期가 대부분이 1900~40년대를 대상으로 하여 資料수집의 下限時期를 1940년대까지로 하였다. 이 時期는 朝鮮王朝의 몰락과 1894年 甲午更張으로 인한 衣制改革 및 1895년 斷髮令을 거치면서 日帝 침략기로 傳統의 식이 서서히 붕괴하여가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資料의 限界性을 보이게 된다.

本 調査에서 다룬 服飾의 범위는 醮禮廳에서 婚禮의식을 치루는 주인공인 새끼 새서방이 갖추는 服飾 전반에 대한 着裝 실태를 형태 명칭 재료 특징등을 民俗學的인 견지에서 정리하였다. 現地 土着住民을 통하여 그들의 경험담과 나아가 그들의 주변에서 보고 들은 자료들을 직접 口傳을 통해서 얻어내야만 하므로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로한 作業이다. 調査者가 目的한 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구차한 序論과 인간관계가 원만히 맺어진 다음에야 시작되며 많은

시행착오와 반복을 거듭함으로써야 방향설정의 실마리를 얻어내게 된다. 아직 同 研究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특히 服飾研究가 미비한 것은 다양하지 못한 素材 때문에 資料의 限界性이 있고 또 항상 접하고 있었던 누구나가 다 알고 있고 언제나 얻을 수 있다는 安逸性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作業이라는 데서 라고 본다. 또한 民俗調査는 직접 현장에 가서 부딪혀야 한다는 空間的 制約이 큰 애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土着庶民에게서 수집된 자료는 一次資料로 原本이 되며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하여 그들의 思想과 人生觀을 찾아 내어 한 民族의 脈을 찾는 指標가 되기도 한다.

갑자기 변모해가는 이 시점에서 傳統의 脈, 固有의 脈을 찾아내는 작업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순수한 우리 傳統風俗 속에서 生存했던 古老들이 他界하기 전에 올바른 資料를 수집 정리하여야만 바른 傳統과 바른 意識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調査對象

1) 時期

濟州島는 筆者가 1968년부터 濟州島의 服飾 및 風俗의 研究를 위하여 20여년간 얻어진 資料¹⁾를 土臺로 하였으며, 陞地部 全域은 1986년 이래 계속 수집되고 있는 資料를 정리한 것이다.

2) 調査(面談)對象者 및 調査地域

(1) 面談對象者

나이가 많이 든 女性 중에서도 같은 地域에서 오랫동안 住居한 土着民을 中心으로 하였으며, 上層社會 또는 氏族集團의 특색을 살피기 위하여 宗家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女性은 집안이나 마을의 大小事 때 주로 음식장만이라든가 衣服을 마련하는 일 특히 婚事 때는 본인이 직접 새각씨 단장에 주인공이 되므로 많은 識見과 體驗을 갖고 있으며, 高斷者는 傳統文化속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자들로 그 자신과 그들의 부모나 祖上 및 이웃을 통하여 傳受되고 익혀진 固有風俗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居住地 移動이 잦은 사람은 이곳 저곳에 대한 風物을 널리 알 수 있어 比較전달은 되지만 그렇게 되면 本地域의 특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祖上 때부터 일정한 곳에서 뿌리 내린 土着原住民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특히 宗家는 그 좋은 예가 된다.

面談대상자들의 婚姻時期는 1920年代가 가장 많으며 1910~1940年代가 중점을 이룬다(表1 참조)

〈表1. 面談대상자 出生 연령 및 혼인연령〉

년 도	婚 姻 인 원	出 生 인 원
1881-1890	1	
1891-1900	8	
1901-1910	31	3
1911-1920	41	17
1921-1930	21	37
1931-1940	6	29
1941-1950	1	15
1951-1960		8
계	109	109

各 道別 면담인원 [資料提報者人의事項참조]은 서울特別市 5名, 京畿道 10名, 慶尙北道 17名, 慶尙南道 12名, 忠淸北道 3名, 忠淸南道 9名, 全羅北道 5名, 全羅南道 16名, 江原道 7名, 濟州道 25名, 合計 109名이다. 이 숫자는 여럿을 한꺼번에 면담했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경험과 기억이 확실한 한 사람만을 택한 것이므로 본 자료에는 훨씬 많은 수치의 인원이 첨가되어 있다.

(2) 調査地域

本 稿에서는 면담자 109여명과 南韓全道[表2참조]에서 60여개 地域(마을)에 대하여 수집된 資料를 분석한 것이다. 더 넓은 지역을 확대시키면 많은 자료를 補完시킬 수도 있겠지만, 워낙 광범위하므로 면담대상자라든가 면담지역을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人的交流가 닿는 곳을 無作爲로 한 것임을 밝혀 둔다.

따라서 本 作業은 全國 규모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一次조사이며 앞으로 좀 더 세밀한 地域단위의 조사를 위한 作業의 出發인 셈이다. 아울러 婚禮전반에 걸친 기타 연구도 並行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本 意圖는 筆者가 1986년부터

〈표2. 조사지역〉



濟州島服飾의 民俗學的 調査를 실시한 이래 他地와의 比較할만한 資料가 빈약하였기 때문에 1986년부터 陸地部조사를 실시하게끔 된 것이다.

3. 婚禮服의 着裝실태

婚禮服 준비는 집안 直系에서 벼슬한 祖上의 내림옷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와, 宗中에서 벼슬한 祖上의 것을 이용하는 경우, 자기의 家門에 없을 때는 他 집안의 것을 빌려다가 사용하였다. 그러나 朝鮮朝 末期 이후부터는 官服이 제작되지 않을 뿐더러 구하기가 어려워지므로 해서 마을에서 契를 조직하여 새로 제작하여 빌려 입게 되었다. 婚禮服은 男子 집안에서 준비하여 婚禮날 가져오는 것이 常禮이지만 여의치 못할 경우는 男子집에서는 男子것만 마련 하기도 하였다.

醮禮廳에서 禮를 올릴 때는 새각씨는 圓衫 簇頭里를, 새서방은 紗帽冠帶가 正裝 禮服이다.

本章에서는 男·女로 분류하여 머리에 쓰는 冠 및 치장(女)과 입는옷 신발에 이르기까지 형태와 명칭 재료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男

(1) 頭飾

머리에는 반드시 紗帽를 쓴다. 주로 추운 계절(봄, 겨울, 가을)에 婚禮式을 치루게 되므로 紗帽 속에다 幅巾(사진 5·6·8참조)이나 휘항 남바위등 放寒用帽(사진 2·7·10참조)를 걸들이기도 하였으며, 나이 어린 새서방일 경우는 草笠을 쓰기도 하였다(慶北 安東). 紗帽는 양쪽에 角(뿔)이 두개 달려 있는데 두불장가일 때는 뿔 하나를 뽑고 세불 장가 일 때는 뿔을 모두 뽑는다고 하나 보기 드문 일이다.

(2) 衣

① 表衣

面談者中 1名을 제외하고 모두 官服 차림이었다. 1名은 14세로 키가 작기 때문에 몸에 맞는 衣冠을 구할 수가 없어서 두루지(두루마기)와 戰服을 입고 草笠을

썼다(1930년 강화). 이 때 새각씨는 치마 저고리를 입고 簇頭里를 썼다.

王室과 관련이 있던 이규동(서울 1919년 혼인)은 “첫장가 갈 때는 紫朱色 官服을 입고, 두불 장가 때는 수박색 官服을 입는다”고 하나 이런 일은 예외였다.

②表衣：官服의 반침옷

ㄱ) 두루마기(두루지：후리매)

官服을 입을 때는 안에 반침옷을 입게 마련이다. 따라서 아무리 가난해도 바지 저고리 위에 바로 官服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반침옷을 갖추어 입었다.

色상은 婚禮 때는 玉色 물을 들어 입는 것을 常禮로 생각하고 있으나 주로 흰색을 사용하고 있다. 섬유로는 明紬가 가장 좋은 것이었으나 걸은 綿으로 안은 明紬를 받쳐 만들기도 하고, 안 밖을 모두 綿계통으로 하기도 한다.

두루마기는 朝鮮朝末 甲午更張(1894년) 이후 道袍 대신 쓰이게 된 것이지만 士大夫家나 儒林에서는 계속 道袍를 지켜왔다. 濟州島에서도 두루마기를 이용하면서도 두루막힌 옷, 간소화한 옷이기 때문에 禮服으로는 어긋난다 하여 기피하였다. 이는 옷 자체가 두루막혔기 때문에 본인이나 後孫들의 앞길이 和通하지 못하고 막히므로 儀禮 때는 물론 壽衣라든가 심지어 棺속에 補空으로 넣는 것 까지도 禁忌하여 왔다.

ㄴ) 道袍(道服)

官服의 정식 반침옷으로, 또한 通常禮服으로 반드시 입는 옷이라고 하면서도 두루마기가 代用됨으로 해서 그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해졌다. 道袍는 成人이 된 후부터는 通常禮服으로 일생동안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옷이며 衣冠을 갖추지 않고는 즉 갖과 道袍를 갖추지 않고서는 儀式에 참여를 못하였으며 衣冠이 없으면 스스로 사양하였으니 그만큼 道袍는 큰 옷으로 구실하였으며 죽어서는 壽衣로 쓰이게 되는 옷이다. 그러므로 婚禮는 成人이 되는 關門이므로 이 때에 준비하여 입게 된다.

道袍는 婚禮 때는 吉服이라 하여 靑道袍를 입는다. 이 靑道袍는 婚事 때라든가 벼슬이 있는 사람 또는 靑衿(成均館이나 鄉校등에 드나드는 儒生들을 말함)쯤이

나 되어야 입을 수 있다 하며 보통 흰색과는 格을 달리 하고 있다. 道袍가 준비된 경우는 받침옷으로 다시 두루마기를 껴 입는다. 두루마기가 보급되기 전에는 道袍의 받침옷으로 창의를 입었다고 하는데 본 면담자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없었다.

두루마기나 道袍는 대부분이 여자집에서 마련하는 것이 常禮였다. 그래서 婚嫁날을 받으면 男子집에서 衣樣이라고 하여 男子의 도포치수를 적은 것을 여자집으로 보낸다. 받침옷(주로 도포)을 만들어가지 못해서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금도 江原道 江陵지방에서 갖추는 집안에서는 女子집 婚需의 필수품으로 남아 있다.

ㄷ) 戰服(快子, 쾌지)

흔하지는 않지만 두루마기 위에 官服의 받침옷으로 입기도 한다. 明紬나 紗로 된 것으로 주로 監色 또는 玉色이며 가는 細條帶를 멘다.

②上衣

表衣나 裏衣를 제외한 上體에 입는 옷 즉 윗도리로 基本이 되는 赤衫과 저고리 외에 조끼 마고자 襟子가 있다. 그러나 赤衫과 저고리는 누구나 필수로 갖추어 입지만 조끼나 마고자 배자는 흔하지 않았으며, 1930~40년대부터 나타난다.

赤衫은 물을 들이지 않은 흰색(素色)으로 木綿類로서 무명이나 광목 옥양목 삼베 당목 등이 이용되었다. 1940년대에는 속적삼 대신 메리야스제품이 既成化되어 이용되기 시작 하였다.

저고리는 明紬가 주로 쓰이고 호사로 玉色물을 들이기도 하였고 어린 새서방일 때는 분홍물을 들여 입히기도 하였다. 또한 저고리는 반드시 솜저고리를 입어야 하는데 솜옷을 만들지 못할 경우는 옷의 일부에 즉 옷고름이나 옷설 고대등에 조금이라도 넣어야 한다. 남자 저고리를 全南地方에서는(順天等地)“뚝지”라고 한다 (예 : 치마·저고리, 바지·뚝지).

조끼는 綠色(배추색) 監色(파란색) 玉色등의 물을 들여 호사로 입는데 明紬나 비단으로 한다.

③下衣

下體에 입는 즉 아랫도리로 중이 (숨)바지이다.

중이는 赤衫과 같이 제일 속에 입는 옷이므로 綿계통으로 흰색의 홉으로 한다.

바지는 대부분 明紬로 하고 주로 흰색을 사용하지만 염색할 경우 회색(오동색)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저고리에 玉色물을 들이는 일 보다는 흔치 않다. 바지에도 저고리에서와 같이 솜을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솜을 넣지 못할 경우는 허리춤치에 조금 넣기도 한다.

(3)버선 및 신발

버선은 반드시 흰솜버선으로 하며 綿종류의 무명이나 광목으로 한다.

신발은 官服의 一襲인 木靴를 신는다. 검정우단이나 옹으로 된 목이 긴 長靴形 신발로 앞 쪽에는 빨강띠를 둘러 美的감각을 낸것도 있다.

(4)帶

官服에 달린 角帶를 사용한다.

(5)遮扇

양손에 들어 얼굴을 가리는데 쓰인다. 주로 紗나 明紬로 되었으며 紅 또는 黃色이다. 차선을 드는 이유는 점잖게 보이기 위함이라고도 하고 邪惡한 雜鬼의 犯接을 막는일, 얼굴의 흉(언챙이, 곰보등)등을 가리기 위함등이다.

2) 女

(1)頭飾 및 化莊

女子에 있어서 婚禮는 일생에 단 한번 밖에 허용 안되는 사회규범 속에서 신분에 맞는 최고의 盛裝을 하고자 한다. 잔치날 새 색씨를 丹莊시키는 사람은 類似律의 원리에 따라 첫 결혼에 첫 아들을 낳고 남편과 부모가 生存한 最上의 福德을 갖춘 女性이 담당한다. 거기다가 손재주까지 겸비해야 하므로 색씨를 꾸미는 사람은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고 또 그 일을 담당하게 된 사람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많은 곳에서 초청받게 된다. 婚事에 과부나 팔자가 기구한 여인

들은 새사람(새각씨·새서방) 가까이는 하지 않는 것이 禮儀였다.

①頭飾

ㄱ) 머리치장

뒤로 달아 내렸던 땡기 머리를 풀고 남자머리로 한다.

이 때 처녀 때에 땡았던 귀밑머리(귀영머리, 귀땡머리)는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올케나 오빠등 直系家族 중에서 풀어 준다. “귀밑머리 마주 푼 사람”이라하여 첫날밤 新房에서 서로가 푼다고 하지만 모두가 잔칫날 아침에 풀었다.

이 때는 冠禮가 생략된 시대이기 때문에 男子들의 상투를 뜨는 冠禮에 대하여는 알고 있으나 女子들의 笄禮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귀밑머리를 푼 다음 여러개의 달비를 얹어서 남자머리(사진1 참조)를 하는데 이 때 쓰이는 달비도 男子집에서 婚禮服이 올 때 갖추어 온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조금만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女子집에서 준비하기도 한다. 남자머리를 할 때는 귀가 보이지 않게 귀쌈머리를 한다(慶北 奉化). 남자머리는 달비를 많이 들여서 크게 할 수록 호사이고 자랑이라 하여 되도록 크게 하였으므로 너무 무거워서 하루 종일 보통 苦役이 아니었으며, 또 남자머리를 만드느라고 머릿발을 잡아 당겨서 머리맡에 상처가 생겨 오래동안 고통을 받은 일이 많았다.

濟州島에서는 1930년대까지 장옷을 입었을 때는 없은머리(사진 10참조: 방애(패)머리 고부랑전지 코머리)를 하였다. 여러개의 달비를 들여서 왼쪽 이마 위에 새의 둥우리처럼 동그랗게 사려서 없었기 때문에 머리가 풀리거나 밑으로 쏟아져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멍거리(사진10 참조)로 동여 맨다. 이멍거리는 머리에 매는 띠이며 검정색으로 주로 한다. 이멍거리도 男子의 집에서 婚禮의복과 함께 갖추어 오는 것인데 빠지고 없을 때는 정성이 부족하고 준비성이 없음을 나무라는 벌칙으로 새서방의 대님을 풀도록 하여 이마에 매기도 한다.

• 비녀

남자머리가 클 수록 많은 비녀를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보조비녀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모자랄 경우 젓가락 다섯개를 꽂기도 하였다(全南, 장기순). 비녀는 銀비녀가 가장 좋았으며 형태나 크기를 붙여서 큰비녀 죽절비녀 금봉채 龍비녀 등이

있었는데 龍비녀는 귀하여 보기 힘들었는데(全北 김연 1, 1904년 혼인) 나중에 딸이 시집 갈 때는 龍비녀를 썼다. 이는 婚禮服이 民間에서 제작되어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갖추어졌음을 말해준다.

• 簇頭里 花冠 향건

남자머리를 꾸미고 나서 簇頭里를 얹는데 족두리가 벗겨지지 않도록 첩지를 얹기도 하였다. 족두리를 쓸 때에는 으레히 첩지를 얹는 것이었지만 차츰 첩지가 귀하여지자 족두리만 이용되었다. 처음에는 족두리가 검정색에 장식이 많지 않았으나(사진1 참조), 유풃과 人造絹이 나오고 마을에서 옷을 만들기 시작하는 1930년대부터는 구슬 달린 화려한 족두리(사진2·6·7·8·9 참조)가 많이 보급되었다.

그러나 족두리 대신에 花冠(사진 3·5 참조)을 쓰거나 (경기도 김봉진, 전북 송위비, 제주 강씨), 족두리가 없어서 향건을 쓰기도 하였다(慶南 固城지방). 花冠은 족두리보다 더 화려하고 또 뒀에서나 썼던 귀한 것이라 하여 아무나 쓰지 못하였다. 이것도 나중에는 민간에서 많이 만들기도 하였다.

향건은 明紬 한폭너비에다가 한자 길이 정도에 청·홍색으로 끈을 달고 머리에 쓰는 쓰개인데 족두리를 쓰고도 위에다 얹기도 하였다(慶南 山淸).

족두리는 솜을 넣어 만든 솜족두리(사진1 참조)와 속을 비고 딱딱하게 만든 홉족두리가 있다. 족두리도 치마자락 여밈과 같이 家門과 地域에 따라 老論계열은 솜족두리를 少論과 南人계열은 홉족두리를 쓴다(서울 정양원, 박경희, 이규동등의 고증)고 하나 본 조사에서는 특별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 멩기

멩기는 족두리와 비녀에 짝을 지어 딸린 것으로 뒤에 드리는 큰멩기(판멩기)와 앞으로 늘이는 앞(줄)멩기가 있고, 색상으로는 주로 검정이나 빨강 자주색도 있으며 紗나 緞 人造絹으로 하여 金箔을 찍거나 玉板을 곁들이고 있다. 뒤쪽 큰 멩기는 초례청에 나갈 때 앞으로 내려 새각씨의 얼굴을 가리는데 쓰이기도 한다.

• 장옷쓰기

濟州島에서는 장옷(사진11 참조) 한 벌은 입고 한 벌은 머리에 뒤집어 써서 얼굴을 가린다. 陸地部 婦女子들이 外出할 때 얼굴을 가리는 것과 같다.

②化粧

새각씨 丹粧은 婚禮날 몇일 전부터 얼굴의 잔솜털과 양 이마간의 잔머리털 및 눈썹을 뽑기 시작한다. 얼굴의 솜털을 뽑는 것은 粉이 잘 받게하기 위함이고, 양 이마간의 잔머리털을 뽑아 이마가 각이 나고(사진4 참조)반듯하게 다듬어야 족두리를 썼을 때 시원해서 보기 좋았으므로 유행하였다(강원도 정선). 얼굴에 잔털은 실을 팽팽하게 꼬은 뒤 꼬운실을 살갓에 갖다대고 팽팽한 실을 풀어 놓으면 꼬였던 탄력에 의해 잔솜털이 실에 감겨져서 뽑히게 된다. 눈썹이나 이마의 잔 머리털은 족집게로 뽑았다. 털뽑기를 하고 나면 얼굴이 빨강게 달아오르고 아프기 때문에 몇일전에 해야 한다. 얼굴에 털을 뽑는 일, 화장시키는 일을 “시민시킨다(全南)”, “성적 시킨다(大田)”, “신부 다룬다(江原道)”, “어여한다(陝川)”, “새각씨 꾸민다(濟州)”고 한다.

婚禮날 새각씨는 “연지찍고 분바른다”고 한다. 粉은 박가분 또는 통분을 접시에 개어서 발랐는데 貴했기 때문에 누구나 바르지 못하였다.

연지와 곤지는 바르는 위치에 대하여 일정치 않고 혼동하고 있다. 연지는 “월연지”(安東 이절) 또는 “월지”(진양 정순달, 합천 김규화)라고 하며 이마에 찍는 것이라고 하는데 “연지 분 바르고” “불연지 찍고”라는 점에서 연지는 볼에, 곤지는 이마에 찍는 것이다. 연지·곤지는 빨강색을 쓰는데 빨강색 珠砂(부안 宋氏), 빨강색 형걸(김규화 이절)을 쓰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이 종이(韓紙)에 빨강물을 들어서 동그랗게 올려서 붙인다. 빨강물감이 귀한 곳에서는 빨간고추(全南지방)로 하였다. 빨간고추는 살갓에 닿으면 자극성이 있으므로 고추 안쪽에 종이를 덧붙이거나 밥풀을 으깨 바른뒤 얼굴에 붙인다.

연지나 곤지는 상황에 따라 쓰지 않을 경우가 있다. 연지 곤지를 모두 찍는(붙이는)경우도 있고(사진4 참조), 곤지만 찍고(사진1, 참조) 연지는 분만 바르는 경우도 있고, 제주도에서는 연지 곤지 찍는 일은 없었다. 또 부모의 生存과도 관계가 있었으니 兩부모(주로 孀家)가 모두 生存했을 경우 연지 곤지를 할 수 있으나 한분이라도 안 계시면 생략되기도 한다. 또 兩家の 兩主가 모두 生存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연지분 만드는 방법에는 홍화꽃을 이용한다(慶北 奉化). 홍화가루를 물에 타서

砂器접시에 담아서 햇볕에 쪼여 여러차례 水分을 증발시키는 일을 계속하면 접시 밑 가에 연지粉의 앙금이 쌓여서 미세한 붉은빛 粉末이 쌓이게 되는데 홍화꽃 필 때에 여러개 만들어 두었다가 사용하였다.

(2)衣

①表衣

男子는 紗帽冠帶가 正裝인데 반하여 女子는 圓衫을 구하기가 어려울 경우는 치마 저고리 차림도 많았다. 드문일로 활옷차림도 있었으나 일반화된것은 圓衫이다. 濟州島에서는 1930년대 이전에는 장옷을, 그 후 잠깐은 장옷과 圓衫의 混用期가 되다가(사진 5·6·9·10) 圓衫 專用期가 된다. 婚禮服은 婚禮날 函이 올 때 男子집에서 준비하여 오는 것이 常禮이지만 女子집안에서 친정내림이 있다든가 여유가 있을 경우 여자측에서 준비하기도 한다.

ㄱ) 圓衫

綠色길에(배추색 푸린색) 색동소매와 소매 끝에 汗衫을 달고 紅帶를 갖춘다. 주로 紗로 되어 있으며 緞은 귀하다. 지역에 따라 호칭이 다르다. 지역에 따라 원삼 활옷 장옷 나삼이라고 부르는데 서울 충청도 전라도 경상북도 지방에서는 원삼으로, 강원도 강릉을 중심으로 한 곳에서는 나삼으로, 강화도와 경상남도에서는 활옷으로, 전라남도의 珍島와 부산 울주等地에서는 장옷이라고 부른다.

ㄴ) 장옷

濟州島에서만 行하여 졌던 일이다. 外出用 쓰개였던 장옷을 입고(사진 9·10 참조) 쓴다. 입는 것은 주로 친정에서 마련하여 주는데 이것은 나중에 壽衣로 쓰이게 된다. 친정집이 여의치 못하면 준비 못할 경우도 있으나 그래도 딸의 혼례옷은 호상옷(壽衣)까지 입고 가는 것이라 하여 되도록 마련하여 주었다. 장옷은 綠色길에 빨강(또는 자주)으로 소매 끝동과 깃 고름을 (또는 앞섶까지 하기도 한다) 다는데 겹으로 한다(사진11 참조). 역시 옷감은 明紬가 최상의 비단이기 때문에 명주로 하는데 여유가 있으면 물색장옷(염색한 것을 말함)으로 해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흰색으로 한다. 그러나 흰색도 겹으로 만들기가 어려우면 홑으로 하며 이것을 창옷이라고 한다. 위에 뒤집어 쓰는 물색장옷(男子집에서 준비하여 오는 것은 반드시 물색장옷으로 하여 온다)은 男子집에서 준비하기도 하고 女子집에서

준비하기도 한다.

ㄷ) 圓衫이 없을 경우

• 函속에 온 옷감으로

원삼을 마련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함속에 넣고온 옷감으로 대치한다. 지방에 따라 저고리감과 치마감의 쓰임이 다르기도 하고 함 속에 오는 옷의 명칭도 다르다. 慶南 固城 山淸지방에서는 상불과 중불이라고 한다. 상불로는 연두색 저고리감에 빨강치마감을, 중불로는 남치마 한감을 넣는다. 이 때 상불을 꺼내서 치마감은 어깨에서 돌려 내리고 저고리감은 허리에 원삼띠를 매듯이 한다. 慶北 安東 陝川 奉化지방에서는 函속의 현훈으로 한다. 이 현훈도 저고리 치마감인데 저고리감을 현, 치마감을 훈이라고 하고 현은 어깨에 두르고(사진8 참조)훈으로는 폭을 네번 접어서 길게 끈처럼 만들고 허리에 맨다. 圓衫을 입고도 函에 온 옷감으로 두르는 경우도 있다(합천 사진7·8 참조).

• 치마 저고리 차림으로

면담자중 약 20여명이 되며 주로 京畿道의 江華지방에 많았다. 이들은 주로 1920~30년대 혼인한 사람들이고 그 당시는 원삼 구하기가 어려워 못 입었는데 그후 마을에서 공동제작하여 흔하게 입었다. 치마 저고리 차림이지만 족두리는 모두 갖추었으며 (사진2 참조), 손에는 느림(름)수건을 돌려 손과 얼굴을 가렸다. 여자가 치마 저고리 차림일 때도 남자들은 紗帽冠帶를 갖추었다.

②上衣

上體에 입는 옷으로 속옷인 赤衫과 겹옷인 저고리가 이에 속한다. 衣次는 대강 다음 세가지형으로 나타난다.

1 속적삼→속저고리→옷(겉)저고리형과, 2 속적삼→저고리형, 3 속적삼→속저고리→저고리→옷저고리형인데 가장 많은 것은 1번형이고 3번형은 3名 뿐이었다. 2번형은 주로 江華와 濟州地方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1번과 같이 저고리를 두벌 입을 경우 속에 입을 것을 속저고리라고 하나 제일 겉에 입는 옷은 옷저고리라고 부르며, 3번의 경우 저고리를 세벌 입을 때는 “저고리 三作”이라 하여 綠色겉(푸른저고리, 또는 배추색, 연두색 저고리라고 함)에 紫朱 또는 빨강색의 회(호)장을 달아 삼(반)회장 저고리라고 한다. 이 綠色

삼희장저고리는 嫗宅에서 며느리에게 주는 관례백금이라 한다.

ㄱ) 속적삼

홀으로 만든 저고리형이며 속에 입는 옷이므로 주로 綿계통의 무명이나 광목 당목 옥양목 人造絹과 삼베 명주 호박단등 고급 옷감도 쓰인다. 江華에서는 1930년대 한 때 빨강 모달리(용)로 속옷을 해 입으면 재수가 좋다하여 유행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이용된 것은 綿인데, 다음이 삼베나 모시도 이용되었다. 특히 서울 지방에서는 모시를, 경기도 충청도 경상남도 等地에서는 모시나 삼베를 선호하였다. 모시나 삼베옷을 입는 이유는 시집가서 시원하게 잘 살라는 意圖에서이고, 호사로 분홍물을 들이기도 하였다.

濟州島에서는 장옷을 이용하였을 때는 손을 가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속적삼에 명주라든가 綿종류의 옷감으로 汗衫을 달았으며, 壽衣로 마련되는 속적삼에도 같이 한다.

1940년대부터는 메리야스 속옷을 입기 시작한다.

ㄴ) 속저고리

속저고리는 속적삼과 옷저고리를 입었을 때 그 사이에 입는 옷저고리의 받침옷이다. 반드시 솜저고리로 하며 옷감은 비단계통도 있으나, 역시 明紬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색상도 흰색이 많다. 그러나 잘 차리는 경우는 속저고리는 노랑반회장을 갖추는 것이 제 格이라고 하는데, 노랑색만 하고 회장을 못 하는 경우도 많으며 분홍색과 玉色도 쓰고 있다. 저고리 三作을 갖추는 때는 속저고리 가운데 두 벌중 안에 입는 저고리는 분홍으로 하고, 겉쪽의 것은 노랑반회장으로 하는 것이 格에 맞다. 속저고리는 친정에서 만들어 입는 옷이며 솜저고리를 못할 경우 솜은 조금만이라도 넣는다.

ㄷ) 옷저고리

가장 곁에 입는 옷으로 홍(빨강)치마감과 함께 시집에서 보내오는 관례백금이다. 옷감이 혼례전에 보내오면 초례지낼 때 입지만, 혼인날 함속에 넣고 왔을 때는 新行때 만들어 입는다.

대부분 옷저고리는 綠色 반(삼)회장 저고리를 입고 있다. 저고리 색상에 대한 명칭도 초록저고리 연두저고리 배추색저고리 푸린색저고리등 다양하다. 회장색

상은 紫朱色을 쓰는데 가끔 빨강색도 쓴다. 그러나 빨강색은 賤해 보이고 주로 기생이나 아랫사람들이나 쓰는 색상이라하여 피한다.

옷저고리는 관례백금인 만큼 재료도 주로 明紬를 쓰고 있지만, 양단 호박단법단 모초 삼팔 人造絹등 최고로 좋은 섬유로 택하여 매우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사진 25·26·27 참조).

③ 下衣

衣次는 거의 同一하며 4~5벌을 입는 것이 가장 많다. 가장 많은 것은 다섯벌을 입는 경우로 1 속곳→(숨)바지→단속곳→속치마→웃치마인데 이 때는 치마를 두벌 입으며, 다음이 2 속것→(숨)바지→단속곳→치마형으로 치마를 한벌만 입는 경우다. 이 외에 3 속곳→고쟁이→(숨)바지→단속곳→속치마→웃치마, ② 속곳→단속곳→치마, 5 소중이(또는 속곳)→(숨)바지→치마(1~2벌)를 입는 형(제주도)이다.

섬유나 색상은 대부분이 비슷하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ㄱ) (속)속곳

속곳 또는 속속곳이라 하며 지금의 팬티처럼 가장 속에 입는 옷으로 가랑이가 넓기 때문에 허리끈을 풀지 않고도 가랑이 한 쪽을 걷어서 大小便을 보게 된다.

주로 염색하지 않은 綿종류를 사용하고 있으나, 삼베(주로 경상도 지방)도 쓰였다. 호사로 분홍물을 들여 입었다고 하나 극소수였다(경북 김효중, 전남 추순악).

새각씨는 첫날밤에 배속곳을 입고 자거나 요 밑에 깔고 자야 홍이 빠져 나가서 좋다고 한다(경상도지방).

濟州島에서는 他地方에서 볼 수 없는 소중이(사진 28 참조)라는 옷이 있다. 평상시 內衣用으로 입는 것은 소중이라고 하고, 바닷가 潛女들이 바닷물속에서 潛水作業할 때 입는 것은 물소중이라고 하는데 소중이에 비해 물소중이는 허리가 길고 어깨에 끈이 달려 있고 좀더 단단하게 만들어진 것이 다를 뿐이다. 이 옷들은 제작법에서나 실용성에서도 매우 합리적이므로 옷감이 많이 들고 거추장스러운 속곳에 비하여 해변가 여자들은 많이 이용하였다. 그러나 兩村(농·산촌)사람들은 어촌(개촌·浦村)사람들 특히 潛女들을 천대시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입는 옷을 꺼려해서 기피하였다. 그러나 兩·賤의식이 사라져가고 또 실용성이 높기 때문

에 島全域에서 입기 시작하였다.

ㄴ) (솜)바지

바지는 솜을 넣은 솜바지라야 한다. 가끔 겹바지도 있으나 겹으로 할 경우 또 여름 婚事이거나 솜이 귀했을 경우라도 허리끈에라도 조금은 뒤야 한다. 색상은 주로 흰색이지만, 호사로 분홍 또는 玉色을 選好하였다. 재료는 明紬가 가장 많으며, 짙은 明紬로 안은 綿으로 하기도 하고 비단 양단 같은 고급 옷감도 쓰인다.

ㄷ) (단)속곳

속곳과 형태는 같으나 치마의 받침옷으로 좀더 크고 넓으며 옷감도 좋은 것으로 한다. 평소 집안에 있을 때는 치마 代用으로 입기도 하였다. 婚禮때의 단속곳은 대부분이 明紬로 하며 분홍물을 들이기도 한다. 지방에 따라 명칭도 다른데 慶北 全南일부에서는 단의로, 全北 江原道에서는 단중우(의), 濟州島에서는 굴중이(사진31 참조)라고 한다. 재료는 明紬 외에 充羅 하브단 노방주 도리사 비단 人造絹 광목 옥광목등 매우 다양하다.

ㄹ) 속치마

속치마는 겹에 입는 치마에 對應하는 말로 형태는 겹에 입는 옷치마와 같다. 그러나 1940년대 주로 人造絹이 나오면서부터 속치마는 완전히 겹치마의 부속옷으로 그 형태는 통치마가 된다. 그러나 婚禮때 입는 속치마는 형태도 겹치마와 같이 자락(꼬리)이 터져 있어서 平常時에는 독립되어 겹치마로 사용되는 옷이다.

婚禮때 입는 속치마는 藍(靑)치마로 하는데, 이는 二姓之合은 陽과 陰의 만남이요, 陽과 陰은 男女를 하늘과 땅을 상징함이니 그 색상이 하늘과 땅의 조화를 맞춰 紅과 靑을 겹쳐 입는 것이다. 옷감은 明紬가 가장 많이 쓰이고, 甲紗나 국사 人造絹이 쓰인다.

ㄹ) “새 각씨는 藍(靑)치마 紅(빨강)치마 입는다”고 한다. 옷치마는 옷저고리와 함께 관례백금으로 시집에서 보내오는 옷이므로 속에 입는 속치마는 藍色으로 준비 못하더라도 옷치마 만큼은 누구나 紅치마를 갖춘다. 색상이 紅이 아니면 유사한 계통으로 분홍으로라도 한다. 색상에 대한 명칭도 홍치마라든가 빨강치마 분홍치마라고 하지만 빨강색은 대부분 기생들이 쓰는 賤한 색이고 색의 농도가

자극적이라하여 지나친 색상을 꺼려하였다.

재료는 역시 “明紬가 비단이다”고 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나 호사하는 집에서는 甲紗도 많이 쓰고 있다. 이외에도 영초 국사 모본단 경도양단 꼭두선이 물들인 모시(全北 김연여)도 있고, 1930~40년대는 유흥이 크게 유행하였으며, 1950년대 부터는 人造絹이 많이 이용되었다.

이 때까지도 치마는 홑치마를 입었는데, 서울 이규동(1919년 혼인)과 崔富貴(1925년 혼인)는 속치마와 겹치마를 모두 겹으로 하였다.

웃치마의 거죽은 紅色紗로 하고 안은 분홍 明紬로 받쳤으며, 속치마의 거죽은 藍色, 안은 흰색을 넣었다.

ㄴ) 손집(찌) 및 느림(름)수건

婚禮式 올리는 장소를 醮禮廳(서울·경기·강원지방)이라든가 行禮廳, 大禮廳이라고 부르는데, 넓은 마루나 마루가 없을 때는 마당에서 하게 된다. 慶北지방에서는 式 올리는 일을 “꼬꼬재배”라고 한다. 새각씨는 圓衫에 달린 汗衫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다시 1폭짜리 明紬를 땅에 끌릴 정도로 길게 하여 손에 걸기도 한다 (사진1 참조). 원삼을 못 입었을 경우는 느림(름)수건만 손에 감아 내려서 얼굴을 가린다. 또한 느림수건만 하거나, 느림수건이 없을때 손집(찌)이라는 것으로 두 손이 안보이게 한다(사진7·8 참조 주로 경상도지방). 손집은 卍手처럼 漢紙로 만든 것을 손에 끼는데 媿宅에서 幣帛올릴 때도 사용한다.

(3)기타

①버선

반드시 흰솜버선을 신는다. 겉에는 솜버선을 속에는 겹버선을 신어 두 켤레를 신기도 한다. 재료는 綿계통으로 무명이나 옥양목 광목이 주로 쓰였고, 호사한 집에서는 명주버선도 있으나 아주 드물다.

②신발

신발은 명칭이나 재료 색채등이 매우 다양하다.

명칭은 (비단)마른신, 가죽신(꽃 마른 점정 분홍 점정우단 파랑 초록 빨강 연두등), 꽃신, (꽃)唐鞋, 雲鞋, (탄)총백이, 초신, 짚신, 짚짚, 징신, 꽃창신, 감악창신, 물까신등 가지각색이다. 특별히 짚짚은 全羅道지역에서, 감악창신 꽃창

신 물깍신은 濟州島에서 불리어 진다.

재료나 형태에 따라 분류시키면 크게는 가죽신과 비단으로 만든 마른신과, 식물성 섬유로 만든 짚신이 있다. 위 종류에서 마른신 가죽신 꽃신 깃짚은 마른신類로 바닥이 가죽으로 되고 볼쪽은 옷감으로 짚는데 연두색 분홍 파랑 빨강 초록 등 색상이 다양하며, 신발의 코와 뒤축에는 다른 色線과 紋樣을 넣어 더욱 아름답게 한 것도 있다. 징신은 밑바닥에 징을 박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역시 마른신 계통이다. 마른신 가운데 무늬를 넣은 雲鞋라든가 唐鞋의 명칭을 아는 사람은 10名 내외였다.

짚신은 짚을 재료로 만든 草鞋이지만 평상시 신는 것과는 다르다. 벼이삭을 탈곡하고 난 꼭짓대를 뽑아서 잣물에 담갔다가 여러 색상으로 물을 들여서 곱게 만든 것으로, 이것들을 (탄)총뵈이 嶺南 固城 물깍신(濟州島)이라고 부르며 신 바닥 안쪽에도 색상무늬를 넣어 호사한 것도 있다. 마른신은 婚禮 때 男子집에서 圓衫과 함께 一襲으로 팔려 오는 것이지만 이런 草鞋를 친정이나 시댁에서 특별한 호사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마른신이 발에 맞지 않거나 좋지 않을 경우 빌려 신기도 할 만큼 고왔다. 1930년대 이후부터는 고무신이 처음 나오자 호기심에서 고무신 신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으며, 40~50년대 부터는 많이 보급되었다(사진7·8·9 참조).

濟州島의 감악창신은 마른신으로 바닥은 가죽에 징을 박고 붙은 검정우단으로 되어있어 붙여진 이름이고, 꽃창신은 비단으로 된 신발을 통털어 하는 말로 매우 귀하었으므로 주로 감악창신을 신었고 그것도 귀하여 물깍신을 신었다.

4. 婚禮服 着裝에 나타난 특징

1) 表衣 및 裏衣

(1) 表衣

本 조사에 의하면 男子는 紗帽冠帶 차림에 女子는 圓衫 簇頭里 차림이 婚禮服의 正裝이며, 갖추지 못할 경우 형편에 맞게 대처하고 있다. 濟州島 만은 예외로 없은머리에 장옷차림이다(사진10 참조). 그러나 장옷차림도 해방전후 되면서 圓衫 簇頭里에 밀려나는 것을 보면(사진5·6 참조) 역시 장옷이 정식 婚禮服은 아니지만

그곳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본다. 이런 현상은 濟州島는 他地方에 비해 宗家라든가 官職者들이 적고 더우기 婦女子들은 同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더욱 빌려 입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 庶民들의 儀禮服도 着用상황이 달라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官服을 통하여 朝鮮朝가 文官우대와 철저한 계급사회로 上層者 우대 社會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宗家에서 또 直系 祖上에서 내림옷이 있을 경우는 그 祖上의 官職에 맞는 胸背라든가 官服의 부속물이 이용되었는데 반하여(사진1 참조), 王朝가 몰락하여 班賤의 개념이 사라지는 後代에 와서 제작된 官服에는(사진13~19 참조) 모두 雙鶴胸背를 달고 있다는 점이다(사진13 참조). 이는 朝鮮朝 정치체제와 民間의 官職 選好思想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一例이다.

ㄴ) 裏衣

古老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는 가장 큰 옷이 道袍(服)였기 때문에 官服을 받쳐 입는 옷도 道袍였으며 또 道袍의 받침옷으로는 창의(옷)를 입어 왔다고 하지만 창의는 사라지고 道袍에다가 다시 두루마기를 받쳐 입었다 한다.

이 받침옷들은 男子집에서 女子의 관례백금을 준비하는 대신 女子집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만약 여자집에서 장만을 못 해가면 고된 시집살이를 당했다는 예는 “나 데려올 때 반물치매 한벌 해 주었는가”고 시집살이 시키는 시 부모에 대한 항변을 민요로 나타내고 있는 것(濟州島)과 일맥 사통하는 일로서 禮에 답한다는 朝鮮朝 倫理觀으로는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러나 시집에서 여자에게 옷한벌씩 해주는 일(관례백금)에 비하면 반드시 여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拘束性은 덜 했던 것 같다.

濟州島에서는 官服 속에 道袍(사진12 참조)를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두루마기를 입기는 하지만, 두루마기는 형태가 두루막혔다든가 도 간편하게 간소화 시킨 옷이기 때문에 禮를 차리는 점잖은 자리에서는 격이 떨어진다고 하여 쌍사람 아랫사람들이나 입는 옷이라하며 천시하였다.

이외에도 예외이긴 하지만 나이 어린 새서방이 몸에 맞는 옷을 구할 수가 없어서 두루마기에 戰服을 입고 草笠을 쓴다든가, 1930년대부터 조끼와 마고자를 덧입

기 시작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2) 옷감재료

官服의 섬유라든가 크기 등을 고려할때 官職者의 子孫들은 官服과 그 부속품이 品階에 맞게 갖추어 입었으나, 官服 구하기가 어려워지가 市販되는 것으로하여 매우 조잡하여 진다(사진13~24 참조).

또한 “비단하면 明紬였다”고 하듯이 서민들에게는 明紬도 웬만한 사람들이라야 婚禮 때나 얻어 입고, 죽어서 입는 壽衣에나 쓰게 되었다.

그러나 본 면담자료에 의하면 1910~30년까지는 甲紗 영초 모본단 법단등이 최고의 호사품으로 여기면서 있는 者들의 호사품이고 전용물이었던 것이 人造絹이 등장하여 庶民들도 흉내를 낼 수 있게 되었고, 1930~40년대에는 유흥치마에 호박단 모본단 법단 저고리를 입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 때는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婚需 준비에 애를 썼다. 속옷감도 人造絹으로 호사를 하였으나 대부분이 속옷으로는 삼베나 무명에서 차차 광목 당목 옥양목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메리야스 제품이 나오자 內服은 메리야스로 바뀌면서 속옷들에는 人造絹이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3) 치마여밈

흔히 차마자락의 여밈을 보고 “양반이다” “쌍놈이다”고 하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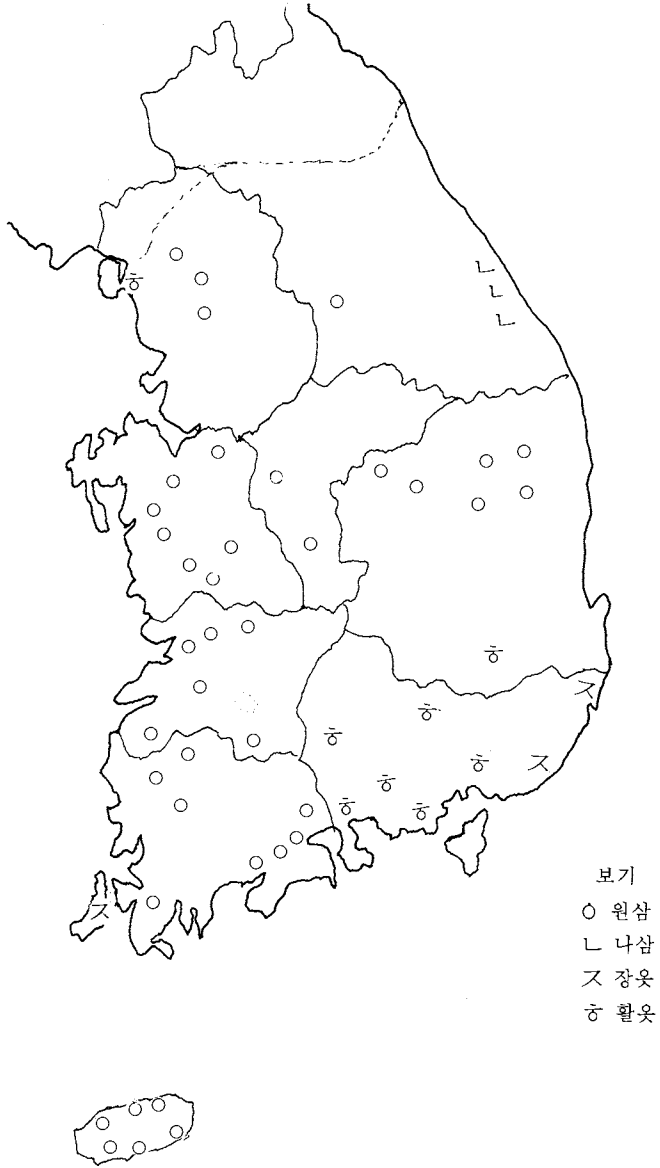
트임이 있는 치마를 꼬리치마 자(짜)락치마 깎치마라고 불렀는데 이도 지역에 따라 다르니 꼬리치마는 江原道 慶尙道지방에서, 자(짜)락치마는 서울 京畿 全羅道 및 忠淸道지역에서, 濟州에서는 깎치마라고 한다.

여밈에 있어서도 왼쪽으로 여미는 곳은 서울 京畿 忠淸 全羅(사진30 참조) 江原道地域이며, 慶尙道쪽은 일부를 제외하고 오른쪽이며 全南에서도 珍島만이 오른쪽여밈이며(사진31 참조), 濟州島는 全地域이 오른쪽으로 여민다(표3 참조). 여밈에 대하여 서로가 자기들의 출신지역이라든가 家門과 달리 반대 방향으로 했을 경우 모두 쌍놈이라든가 기생이라든가 아랫것들로 一蹴하고 있다. 여밈이 가장 복잡하게 混存하고 있는 곳은 慶尙北道인데, 이곳에는 義城金氏라든가 豊山柳氏 安東金氏 安東權氏등 名門家가 집결하고 있는 곳이며, 朝鮮朝後期 南人系가 당당한 勢力을 장악하고 있었던 곳이다. 家勢를 자랑했던 소위 그들이 말하는 兩班들은

〈표3. 치마여밈〉



〈표4. 圓衫에 대한 명칭〉



老論계열은 원자락치마를, 南人계열은 오른 꼬리치마를 입었는데 이 곳은 두 형태가 共存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도 6.25이전까지만도 당파사움의 잔재가 깔려 있어서 서로 通婚도 禁했으니, 서로 다른 쪽과 하는 일을 色婚이라 하여 家門의 수치로 생각하여 꺼려 하였다. “安東地方의 老論은 심한 설움을 받고 살았는데 죽은 徐氏 한 사람이 산 李氏 열을 당해 낸다”는 말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파벌의식은 많이 찾아 낼수가 있으니 특히 치마여밈은 아직도 남아 있다.

慶北 奉化郡 趙氏는 친정과 시백이 南人계열이라 通婚이 되어 시집을 갔는데 친정에서 오른꼬리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리 하였다. 媿宅에는 당시 宮女였던 媿祖母가 生存해 계시면서 원꼬리로 바꾸라고 하여 3대가 모두 그렇게 따랐다. 또 같은 마을에 바로 윗집에는 旴州 康氏가 살고 있는데 이宅은 老論계열로 원꼬리치마를 입었다. 또 老論계열인 達城徐氏와 南人계열인 韓山李氏도 여밈이 달랐다.

4) 圓衫에 관한 명칭

〈표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마다 명칭이 다르다.

서울 忠淸 全羅 慶尙道와 江原道의 서울 隣近 地域에서는 圓衫명칭圈이고, 慶尙南道와 그 인접한 慶尙北道 일부 地域및 江華에서는 활옷으로 부른다. 江原道 江陵을 中心으로한 地域에서는 나삼으로, 全南 珍島와 부산 蔚州에서는 장옷으로 부르고 있으나 濟州島에서 사용되었던 장옷과는 다르다. 江陵地域에서는 똑같은 圓衫을 가지고도 婚禮 때는 나삼으로, 壽衣로 입을 때는 圓衫으로 부르는 것은 특이한 例이다.

5. 婚禮服에 관련된 民俗

婚禮는 人倫之大事이며 二性之合은 百福之源이라 한다. 二姓이 결합해서 새 가정을 이루는 첫 출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福된 일만 있기를 바란다. 물론 타고 난 運命이요 四柱八字라고 하지만 他人에 의해서 傳移되어지는 惡運을 원치 않고 있다. 이는 “類는 類를 낳는다”는 類似律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 새사람 옷은 八字 좋은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 과부나 소박당한 여자는 새각

씨 옷을 만들지 않는다. 첫 婚姻에 첫 아들을 낳고 福德이 좋은 여자가 새사람 옷을 만들어야 그 薰氣를 받아 福 좋게 잘 살게 된다.

- 새 각씨 입을 圓衫은 無病長壽한 老人이 입을 壽衣로 만들어 놓은 것을 입으면 좋다(전남 담양).

- 두블 가장 갈 때는 紗帽 뿔 하나 뽑고, 세불 장가 갈 때는 둘다 뽑는다.

- 새 각씨 속적삼은 모시로 만들어 입는다(경기, 충남, 서울). 모시는 조직이 성글어 살거로운 맛이 있으므로 구멍사이로 흥이 빠져나가고, 시집살이에 속담답한 일이 생겨도 막힘이 없이 쭉쭉 통과하고, 夫婦間에 문제가 생겨도 시원하게 通하여 해결이 되고 和습하기를 바람에서이다.

- 새 각씨는 첫날밤에 삼베 속곳을 입거나, 촉감이 거칠어서 입지 못할 경우에는 이부자리 밑에 속중이나 바지 속곳등 삼베로 된 여자의 속옷을 깎다(慶南 山淸 光州). 삼베는 울이 곧고 바르며 얽히거나 엉크러지는 일이 없이 시작과 끝이 한결 같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동안도 시작처럼 끝도 고르게 순조로운 삶이 되기를 기원하며, 삼베가 성글어서 바람이 잘 통하듯이 시원한 일만 생기고, 또 성근 사이로 흥이 빠져 나가서 시집살이가 원만하게 지나기를 바란다.

- 오뉴월 三伏 더위 婚事에도 솜옷을 입어야 한다. 婚事는 대부분이 가을이나 겨울등 추운 계절에 하게 되므로 저고리나 바지에는 솜을 든 옷을 입게 마련이다. 그러나 피치 못할 여름 婚事이거나 더운 계절일 때 또는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한 때는 저고리나 바지에 조금씩이라도 솜을 둔다.

솜은 순백한 하얀 색상과 포근하고 폭신한 감각과 눌러도 부풀어 오르는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서로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고 財産도 솜처럼 부풀어 오르고 子孫번창 하기를 바란다.

- 새서방 道袍는 女子집에서 만들어 간다. 道袍는 成人 男子에 있어서 通常禮服이며 衣冠을 갖추는데 있어서 갓과 道袍는 필수이므로 婚禮 때는 靑道袍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도 江陵地方에서는 女子의 婚需 필수품이라고 할 만큼 중요시하고 있으며, 도포를 만들어가지 못할 경우 독한 시집살이를 당해야 하므로 빚을 내서라도 만들어 간다.

또 강능지방에서는 소박당한 여자가 도포를 찾아가서 속옷을 해 입으면 男子 집안이 망하기 때문에 도포시비가 종종 있었다.

6. 맺 음 말

우리나라 婚禮服은 紗帽冠帶와 圓衫 簇頭里를 代名詞로 하고 있다.

이 옷들은 朝鮮朝 官職者와 그 婦人이 입는 禮服으로서 일반인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는 官職者 專用物이었다. 따라서 婚禮날 하루는 官職者의 옷을 입고 官職者의 예우를 받는 一生最上의 호사를 하게 된다. 男子들에게는 一生에 한번 이상의 기회도 주어질 수 있지만 女子들에게는 단 한번 밖에 없는 일이므로 最上의 단장을 하고 있다.

새서방의 服飾차림을 보면 表衣로는 紗帽冠帶(紗帽 官服 木靴 帶 遮扇을 갖춘 형태) 차림에다가 받침옷으로 道袍와 두루마기를 입는데 극소수이나 두루마기에 戰服을 입기도 한다. 속에는 韓服 固有형인 上衣로는 적삼 저고리에, 下衣로는 중이 바지가 기본이다. 1930년대 후에 오면서 조끼나 마고자를 호사로 입기도 하였다. 男子가 일률적으로 차림이 단순한 반면 女子들은 매우 복잡하다.

새각씨는 表衣로 圓衫 簇頭리에 韓服基本形인 치마 저고리에 속옷차림이다. 男子는 表衣 밑에 裏衣로 袍 종류인 두루마기나 道袍를 입는 대신 女子는 받침옷이 없으나 치마 저고리를 두벌씩 갖춤으로써 받침옷의 구실을 한다. 이는 명칭에도 나타나듯이 속치마 속저고리가 그것이며 위에 입은 옷은 옷저고리와 옷치마라고 한다.

버선은 男女 모두 솜버선이며 홑버선은 홑이기 때문에 혼자 된다는 의미로 禁忌이며 겹버선도 한가지만 신지 않고 솜버선과 같이 신는다.

새서방의 신발이 木靴 한가지로 단순한 반면 새각씨용은 지역에 따라 명칭과 색채 재료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男子는 衣冠을 치중하여 表衣로 官服과 紗帽를 씌으로써 正裝이 된다. 그러나 女子는 衣服 외에 얼굴과 머리치장에도 비중이 크다.

머리는 되도록이면 큰머리를 하므로써 호사와 자랑으로 여기는 허세 때문에 많

은 달비와 많은 비녀를 썼는데 비녀가 모자라서 젓가락을 쓰기도 하였으며, 큰머리 치장으로 인하여 머리 발이 뺨겨서 상처가 나거나 아파도 婚姻 날 큰머리가 무거워도 그 고생을 감수하였다.

婚禮服에 따른 禁忌도 “類는 類를 낳는다”는 類似律에 따라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과부나 八字 나쁜 사람은 옷을 만들거나 새각씨의 盛裝 시키는 일에 禁忌되고, 또 이런 날 八字 나쁜 사람은 접근을 삼가하고 있다.

저고리나 바지에는 반드시 솜옷으로 만든다 든가 모시나 삼베의 섬유가 갖고 있는 특징을 이용하여 흉하고 고된 시집살이를 逃避하려는 呪術的인 方便策으로 流入시키고 있다.

濟州地方의 男性 裏衣에서 두루마기는 두루막힌 옷이라는 語源과 그 형태로 인하여 子孫이나 그 自信의 앞길이 막히기 때문에 忌避한다는 개념은 옷을 단순히 입는다는가 實用的인 次元만이 아니라 옷에 대한 의미 부여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婚禮時 着裝服飾 가운데는 貴賤과 上下의 계급적 관념을 보이고 있으니 朝鮮時代 文官우대 사상에서 나타나는 雙鶴胸背를 단 官服을 선호한다든가, 濟州 島에서 女性들이 속에 입는 속중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옷의 색상도 多樣하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색상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알지 못하면서도 남(홍)치마라든가 綠色 분홍색 玉色등은 그들에게서 많이 익혀진 색상을 婚禮時 색상으로 즉 貴한 色, 吉한 色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다. 색상표현에 있어서도 배추색 푸린색 푸린물 오동색 꽃자주 꼭두선이색등 植物의 自然색깔대로 表現하고 있으며, 치마 색상으로는 藍 紅 빨강 분홍 玉色등을, 저고리 색상으로는 노랑 綠色 분홍 玉色 빨강이나 자주색 회장등이 사용되고 있다.

특별히 옷에 대한 명칭 가운데 圓衫은 地域에 따라 圓衫 장옷 활옷 나삼으로 쓰이고 있음은 매우 중요한 일로 자칫 잘못 記述되고 전달된 단어 하나로 엉뚱한 해석이 다르게 되는 일이다. 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옷들은 각기 다른 固有名詞로 용도나 형태가 다른 옷들이기 때문이다.

치마여밈에서 오는 혼동도 같은 것이다. 단순히 과거 정치적 지역적인 偏見에서 따른 것일 뿐 물론 계급사회에서 신분관계에 따라 上下의 계급차등은 있게 마

런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서로가 상대편을 낮게 헐뜯어왔던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파생된 時代的인 產物일 따름이다.

婚禮服에 使用된 재료는 地方이나 빈부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보이고 있다. 일반인에게는 明紬가 비단이었기 때문에 곁에 입는 옷 貴한 옷에는 주로 明紬를 사용하면서, 실용성에 의해 內衣로는 綿종류를 쓰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呪術的인 효험에 의해 삼베라든가 모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1910~30年代의 明紬나 비단에서 속옷감으로 人造絹이 등장하고 1930~50사이에 유흥과 하브 단 경도양단등이 유행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사진6 참조),메리야스 內衣가 보급되기 시작한다.

우리 固有의 傳統婚禮는 1940年代를 前後하면서 下限期를 맞게 되고 新舊 혼용의 과도기를 지나면서 차츰 新式(洋式) 婚禮期로 접어들게 된다. 1940年代가 되면서 시골에서 서울의 新式 婚禮를 가미한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새각씨가 꽃다발을 든다든가(사진2·4 참조), 새서방이 손에 장갑을 끼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사진7·8 참조).

끝으로 本 調査에 응답하여 주신 분들 가운데는 이미 故人이 되신 분 또는 筆者가 모르는 사이에 故人이 되신 분도 계실 것이다. 故人에게는 冥福을, 生存해 계신 분들에게는 萬壽無疆을 빌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들이 남겨준 口傳을 통하여 土着庶民의 服飾生活을 未盡하나마 기록이 되어 바르게 전달될 것으로 믿는다.

1) 「濟州島服飾의 民俗學的 研究」1971.2 梨大教育大學院 碩士學位 청구논문

「濟州島의 婚俗」1978.4 國際大學論文集 6輯

「濟州島 通過儀禮服의 民俗學的 研究」1980.2 檀國大學校 碩士學位 청구논문

『濟州地方의 衣生活』-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第十七冊(衣生活)-1986.6 文化公報部 文化재관리국.



〈사진1〉 婚禮服(家傳)1949년 慶北安東
 男：紗帽冠帶차림. 單鶴胸背
 女：圓衫 簇頭里차림. 곤지찍음.
 큰남자머리에 숨죽두리



〈사진2〉 婚禮服. 1949년 慶北 奉化
 男：紗帽冠帶차림
 女：簇頭里 치마 저고리차림.
 꽃다발을 안고있음.



〈사진3〉 婚禮服(家傳). 1943년 全北 井邑
 男：紗帽冠帶차림
 女：圓衫 花冠차림



〈사진4〉 婚禮服. 1951년 江原道旌善
 男：紗帽冠帶 차림
 女：치마 저고리차림. 손찌하고 꽃
 다발을 듬. 연지 곤지를 찍음.



〈사진5〉婚禮服.1942년 濟州市
 男:紗帽冠帶차림. 遮扇을 들.
 女:圓衫 花冠차림.



〈사진6〉婚禮服.1950년 濟州市
 男:紗帽冠帶차림.
 女:圓衫 簇頭里차림.



〈사진7〉婚禮服.1971년 慶北陝川
 男:紗帽冠帶차림. 장갑끼고 遮扇들.
 女:圓衫 簇頭里차림. 치마감을 어깨에 걸치고 손찌를 함.



〈사진8〉婚禮服.1965년 慶北陝川
 男:紗帽冠帶차림. 장갑을 낀
 女:圓衫 簇頭里차림. 저고리감을 걸치고 손찌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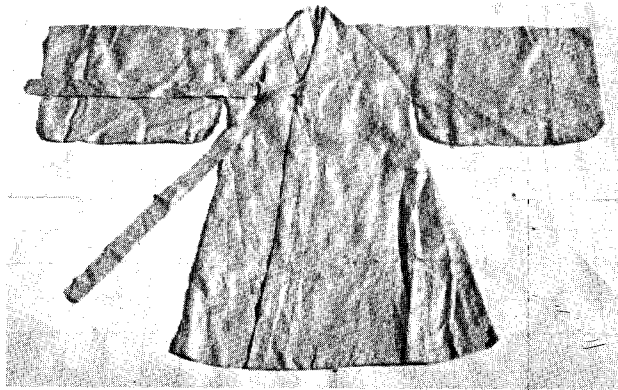
〈사진9〉婚禮服. 1945년 濟州島 서귀읍
 男: 紗帽冠帶차림.
 女: 장옷, 簇頭里차림



〈사진10〉婚禮服. 1960년 濟州島 安徳面
 男: 黑笠에 남바위를 쓰고 道袍입음.
 女: 장옷차림. 얇은머리에 이명거리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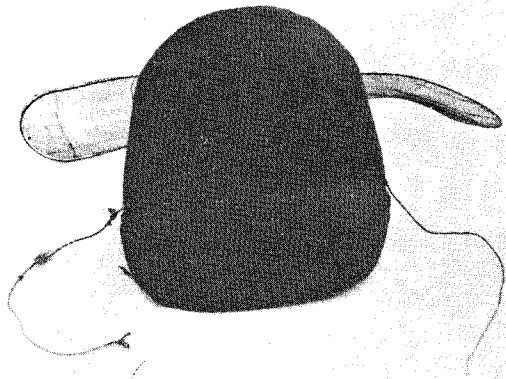
〈사진11〉장옷(婚禮服및 壽衣). 1907년 제작.
 濟州市 文癸生소장
 겉: 綠色길에 빨강색 깃과 옷고름,
 끝동을 담(재료: 明紬).
 안: 흰색 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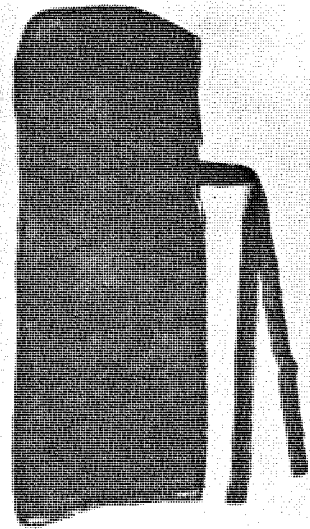
〈사진12〉 道袍(服)
 재료 : 삼베. 1940년 제작.
 濟州市 文癸生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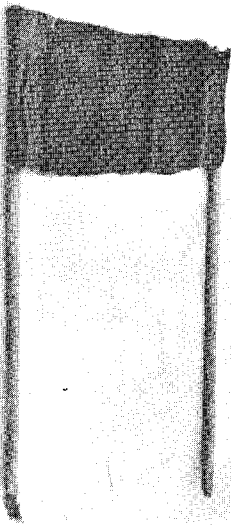
〈사진13〉 婚禮服(官服). 1940年代 濟州市 吾羅三洞
 재료 : 藍色 人造絹. 婚禮때 입기 위하여 마을에서
 契를 조직하여 만든 婚禮服 一襲(13~19번까지).
 濟州市 文癸生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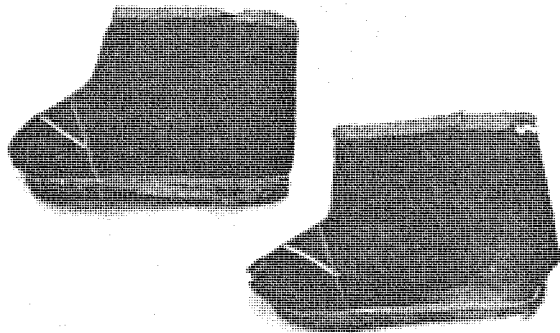
〈사진14〉 紗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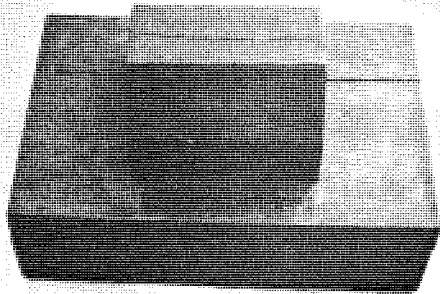
〈사진16〉 幅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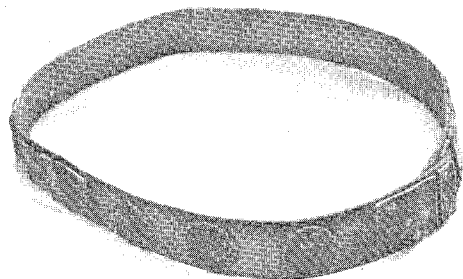
〈사진15〉 遮扇(俗稱: 선재)



〈사진17〉 木靴(俗稱: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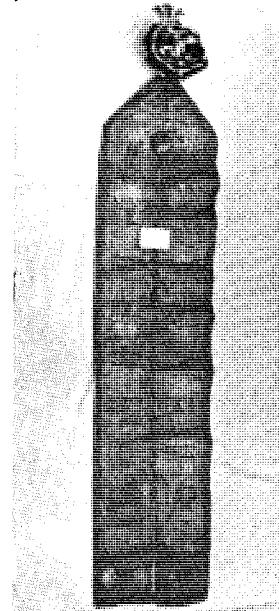
〈사진18〉 官服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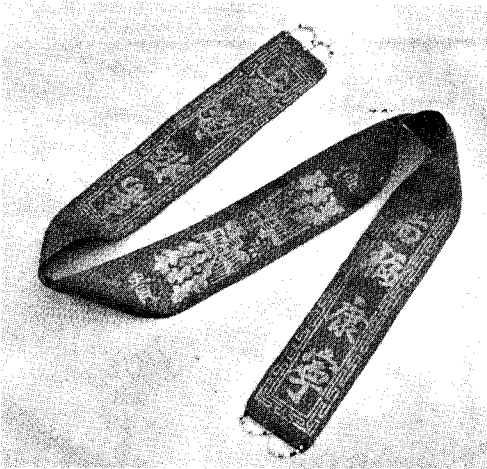
〈사진19〉 角帶



〈사진20〉 圓衫：綠色길에 五色색동과 汗衫을 담



〈사진21〉 簇頭里와 큰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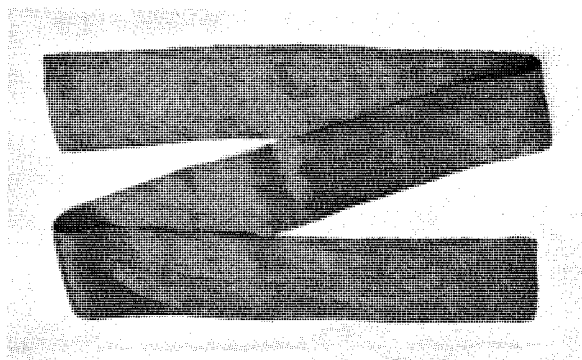


〈사진22〉 圓衫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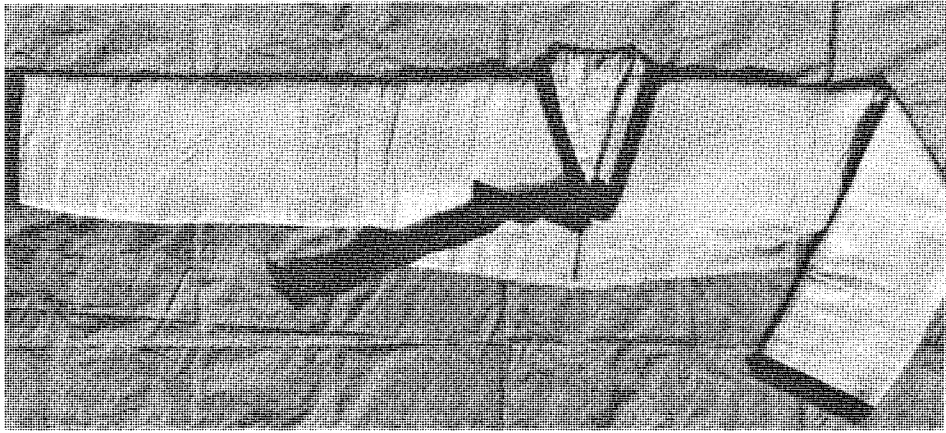


〈사진23〉 龍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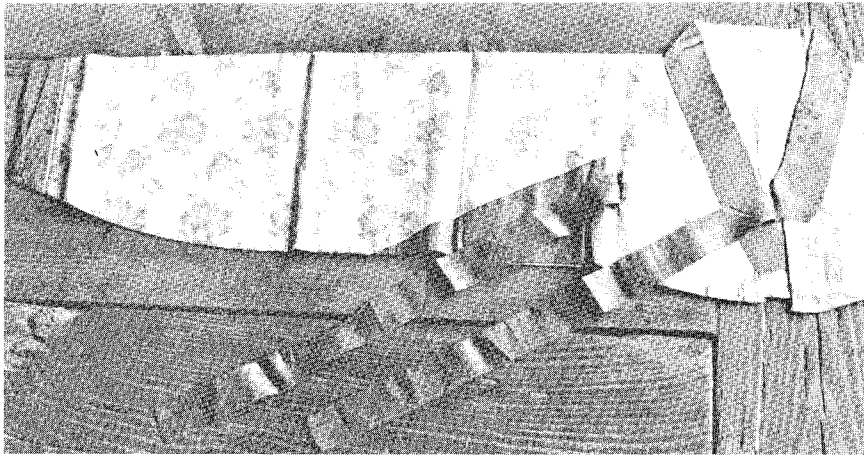
〈사진24〉 드림댕기(앞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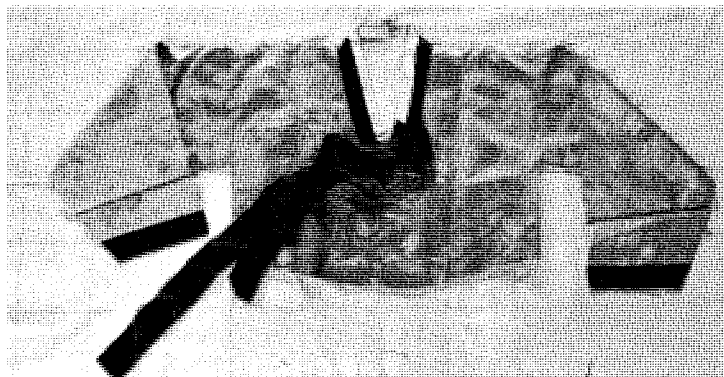
〈사진13~19〉번 男子의 婚禮服과 一襲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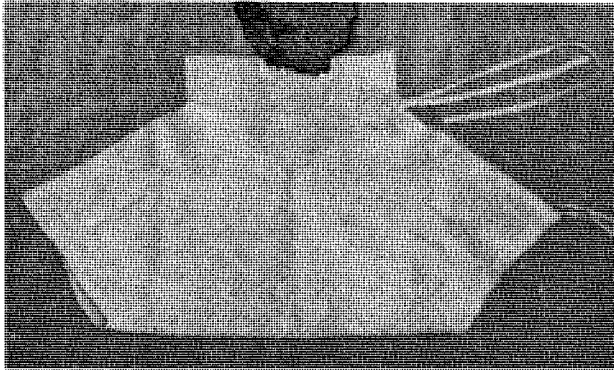
〈사진25〉 婚禮服：웃저고리.綠色 반희장 숨저고리(당코깃).1918년 江原道 旌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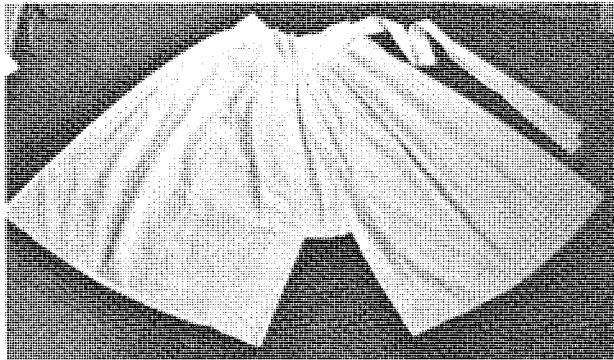
〈사진26〉 婚禮服：웃저고리.綠色 삼희장저고리(당코깃).1921년 慶北 慶州



〈사진27〉 婚禮服：웃저고리.綠色 반희장저고리.1940년 慶北 奉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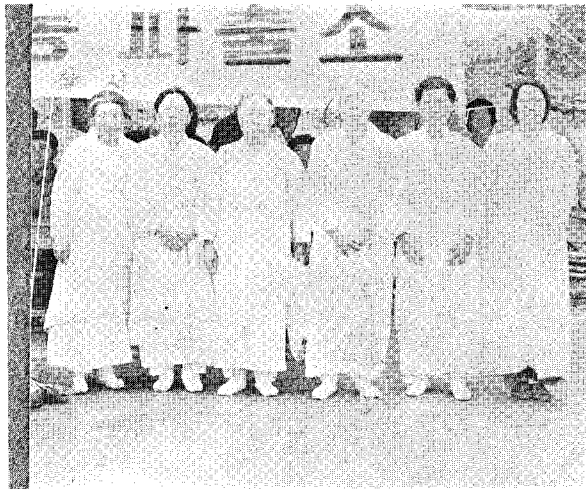
〈사진28〉 소중이 (濟州島 女性用 內衣)
 재료 : 삼베. 文癸生(1911年生)이 입었
 던 것. 濟州市 吾羅一洞



〈사진29〉 (단)속곳(俗稱 : 굴중이).
 재료 : 광목
 上同



〈사진30〉 치마여밈(왼짜락)全南 寶城, 1988년



〈사진31〉 치마여밈. 全南 珍島, 1988년. 왼쪽여밈과 오른쪽
 여밈이 섞여있음. 사진에 나타난 왼쪽여밈은 海南
 等地人 이고, 오른쪽 여밈은 珍島人임.

이름(本)	生年	婚姻년도	出生地및 成長地	出嫁地및 家門	현주소	비고	道
이규동(慶州)	1903	1919	서울시	경남창원(영일정씨)	서울시 노량진동		서울
崔富貴(강릉)	1906	1925	서울→公州	충남부여(광산김씨)	둔촌동		
김연식(청송)	1912	1930	서울시	경기도성남(구씨)	화곡동		
성기희	1921	1941	서울시	강원도강릉(전주이씨)	강원도 강릉시		
함명순	1922	1939	서울시 서초동	서울시서초(순흥안씨)	서울시 화곡동		
김순경(김해)	1907	1922	경기도 김포	경기도강화(광산김씨)	경기도 강화군		경 기 도
박옥분	1908	1922	강화군	강화군	〃		
하화봉(진주)	1911	1926	수원	시흥(김해김씨)	수원		
이효녀	1912	1926	강화군	강화(청풍김씨)	강화군		
김간난(광산)	1913	1926	황해도 개성	강화군	강화군		
나정윤	1917	1930	경기도 강화군	〃	〃		
한담실	1918	1933	〃	〃	〃		
황춘금	1916	1934	〃	〃	〃		
김봉진(안동)	1924	1941	고양군	충남아산군(예안이씨)	고양군	老論계	
이순영	1937	1955	강화군	경기도	〃		
허씨(양천)	1896	1914	강원도 명주군	강원도강릉시(강릉최씨)	강원도 강릉시	친사宅(總父)	강 원 도
金富南(김해)	1898	1916	삼척	(경주김씨)	서울시인월동		
엄태홍(영월)	1903	1921	강릉시	(강릉김씨)	〃	강릉김씨宗家	
김옥이(경주)	1915	1933	홍천군	〃	〃		
문정옥	1932	1950	정선군	강릉시	강원도 정선군		
이 씨(덕수)	1933	1951	〃	(전주이씨)	〃		
전재금(정선)	1933	1952	〃	〃	〃		
신죽생(고령신씨)	1915	1932	성산읍	충북 청주시(달성성씨)	충북 청주시		
장순임(인동정씨)			충북 청주시	옥천군(김해김씨)	옥천군		
민효석	1930	1952	옥천군	옥천군(연안이씨)	서울시 〃		
송학빈	1899	1914	충남 대천시	충남대천시	충남 대천시	老論계	충 청 남 도
한이뿐	1904	1919	예산군	연기군(충주유씨)	충남 예산군		
윤미순(파평)	1914	1919	정암군	연기군(풍양조씨)	서울시 북동	老論계	
김순영(경주)	1915	1931	부여군	연기군	목동		
양광호(남원)	1920	1938	경기도 안산시	논산	충남 논산	尹丞11代孫婦 小論(南人계)	
유복환(기계)	1926	1942	충남 홍성군	(함양박씨)	서울시 상도동		
최광자(해주)	1923	1943	〃	(경주김씨)	서초동		
손성분	1928	1945	천안군	〃	〃		
권은혜	1930	1948	부여군	〃	〃		
김중노미(의성)	1905	1919	경북 영풍군	경북봉화군(전주이씨)	경북봉화군		
전현이(옥천)	1906	1921	봉화군	〃	〃		
권남이(안동)	1906	1924	〃	〃	〃		
김효매(의성)	1914	1928	안동시	(안동권씨)	〃		
장기순(순천)	1915	1929	〃	(강릉김씨)	서울시 도봉구		
조복순(함안)	1911	1930	영천시	(밀양박씨)	〃		

황의언(창수)	1915	1933	문경군	경북예천군(김해김씨)	서울시 강동구	정약포 14代宗婦 南人계	북
이 결(경주)	1921	1940	안동군	예천군(청주정씨)	경북 예천군		
김정진(의성)	1922	1939	영풍군	봉화군(안동권씨)	경북 봉화군		
조동숙(함양)	1924		영양군	(전주이씨)	〃		
김주순(안동)	1917	1933	안동시	(안동권씨)	〃		
신제한	1925	1942	예천시	봉화군(진주장씨)	〃		
김효중(광산)	1926	1942	안동군	(의성김씨)	〃		
최소희(경주)	1929	1947	경주시	안동군(하회유씨)	안동군		
신선녀(평산)	1930	1948	예천군	봉화군(의성김씨)	〃		
홍수남(남양)	1935	1951	봉화군	〃	〃		
박 씨(함양)	1933	1952	예천군	(광산김씨)	봉화군	南人계	
박창순	1902	1921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산청군	老論계	경상남도
장호열(안동)	1907	1923	경남 산청군	산청(전주이씨)	산청군		
김규화(김해)	1907	1923	합천군	〃	〃		
윤무연(파평)	1908	1923	합천군	경북 봉화군(강양이씨)	경북 봉화군		
김복점(경주)	1914	1937	산청군	경남 산청군	〃		
신선임(평산)	1912	1928	부산시	남해군(김해김씨)	부산시		
박순선(밀양)	1913	1930	경남 산청군	함양군(진양강씨)	경남 산청읍		
이두우(월성)	1918	1936	울주군	함양군(경주김씨)	서울 서초동		
이준홍(재령)	1915	1931	합안군	산청군(함양오씨)	경남 산청군		
최틀선(진주)	1918	1933	고성군	산청군(김해김씨)	서울시 서초동		
정순달(영일)	1930	1950	진양군	하동군	경남 하동군		
최필순(진주)	1933	1951	고성군	하동군(진양정씨)	서울시 반포동	南人계	
김연여(김해)	1899	1914	전북 고창군	전북 고창(장흥고씨)	전북 고창군	전라북도	
성선녀	1904	1920	남원시	임실군	전북 임실군		
송 씨(예산)	1902	1922	무안군	임실군(행주은씨)	경남 하동군		
장정옥(인동)	1909	1924	거제군	전남 담양군(장흥고씨)	전남 담양군		
이규녀(전위)	1917	1931	진주시	〃 (여산송씨)	〃		
閔泳順(여흥)	1893	1919	경남 합천군	전남 보성군(광주이씨)	전남 보성읍	老論계	전라남도
고이문(장흥)	1890	1910	광주시	〃	〃		
김양순(광산)	1902	1919	구례군	〃	〃		
김상효(울산)	1905	1920	장성군	〃	〃		
조봉이(창녕)	1905	1920	송주군	(함풍이씨)	〃		
강도춘(진주)	1896	1913	광주시	(광산김씨)	〃		
정미열	1910	1924	해남군	진도군	진도군		
추순실	1907	1926	순천시	(경주이씨)	〃		
추순옥	1911	1929	광양군	순천시(전주이씨)	〃		
강 씨	1913	1929	진도군	〃	〃		
임양임(조양)	1915	1932	장성군	광주시(광산김씨)	광주시		
宋薦妃	1924	1943	정읍군	보성군(광주이씨)	보성읍		
이정순(연안)	1917	1935	구례군	〃	〃		
조숙남(창녕)	1926	1938	담양군	〃	〃		
						鄭松江宗婦	

허소자	1917	1944	진도군	〃	〃		
조연순		1932	승주군	〃	〃		
고복남(제주)	1902	1918	제주시	제주시(김해김씨)	제주시		
고정생(제주)	1907	1923	〃	〃	〃		
양일만(제주양)	1909	1928	〃	〃	〃		
김덕문(김해)	1910	1932	〃	(제주고씨)	〃		
홍남봉(남양)	1911	1929	〃	〃	〃		
문신생	1911	1927	〃	〃	〃		
양기순(제주양)	1913	1929	〃	〃	서귀포시		
홍구인	1914	1931	〃	〃	제주시		
허숙자	1922	1939	〃	〃	〃		
한순생	1898	1918	북제주군 애월읍	〃	死亡		
김가애	1910	1927	조천면	(김해김씨)	제주시	媿祖父濟州君	
김순생(광산)	1913	1935	〃	(제주고씨)	〃	守	
김순정	1915	1933	남읍	제주시	〃		
김주화(경주)	1923	1941	한림리	(제주고씨)	〃		
양처주(제주)	1899	1916	남제주군 안덕면	〃	死亡		
강경춘	1903	1921	〃	〃	〃		
김유두	1904	1920	성산읍	〃	〃		
정만영	1910	1926	〃	(군위오씨)	〃		
한신생	1911	1927	〃	〃	〃		
현경봉	1911	1930	서귀포시	(제주고씨)	〃		
신봉선	1912	1929	〃	(군위오씨)	〃		
현길춘	1915	1933	성산읍	〃	〃	父郷校訓長	
오영화(군위)	1916	1933	서귀포시	〃	〃		
전향녀	1916	1933	성산읍	(제주고씨)	〃		
오일성(군위)	1917	1943	안덕면	〃	〃		

第八回

出土服飾 特別展 吳傳統壽衣 復原展示

1. 東萊鄭氏 出土服飾(1529~1609)
2. 傳統壽衣 復原展示

때 : 1989. 5. 2(화)~5. 11(목)

곳 :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中央홀

城南出土 東萊鄭氏 出土遺物에 관한 小考

朴聖實(본 박물관 연구원)

高富子(본 박물관 연구원)

1. 출토일자 : 1986. 8. 5
2. 출토유물연대 : 中宗24년(1529) - 宣祖37년(1604)
3. 墓主人名 : 鄭休復

4. 出土경위 :

1986년 8월 5일 城南주민 이상도씨가 城南市 新興二洞 野山에 산책중 東萊鄭氏 思庵公派 宗親會에서 주관하는 동래정씨분묘 이장공사 현장에서 墓에서 나온 옷가지들이 널려있음을 보고 그중 깨끗한 3점을 수거하여 당일 오후 본 박물관에 연락을 주므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본 移葬工事は 종친회 소유 야산부근이 아파트 건설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곳에 있던 10余基의 동래정씨 묘를 이장하던 중이었다. 연락을 받고 곧 작업준비를 하여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날은 어두웠고 작업도 끝난 뒤여서 위치만 확인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 현장에서 종친회 정창현 회장을 비롯 정중현 총무 및 종친들과 만나 출토복식의 연구가치를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고 아직 開棺하지 않은 나머지 墓를 入會하여 보기로하고, 또 전날 이장하고 아직 평토화되지 않은 墓 주위에 널려있는 옷가지들을 수거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전날 移葬된 墓 현장에 가보니 1基를 제외하고 모두 작업이 끝나 평토화

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1基에도 부르도져가 대기중이었다. 파헤쳐진 흙더미 사이에는 북두칠성이 표시된 칠성판과 돛자리가 보였다. 흙과 함께 범벅이 되어 널려 있는 옷가지를 건지기 위하여 파헤쳐진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破棺 주위에 묻혀 있는 것들은 수거하였는데 이것이 이번 행사에 전시되는 鄭休復의 유물이다. 다행히 수거된 유물 속에서 墓主를 알 수 있는 銘旌(通訓大夫行礪山郡守鄭公之柩)이 발견되어 동래정씨 족보와 함께 확인되었다. 동래정씨 총무에 의하면 休復의 考인 大年(1507-1578)과 子인 灝의 墓에서도 多量의 出土유물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이미 작업이 끝난 뒤라 한점도 수거하지 못하였다. 이상도씨가 수거한 유물 3점(무명저고리1점과 바지2점)은 아들인 灝(1551-1609)의 것으로 후에 증친회 회장과 총무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너무도 깨끗해서 가지고 내려와 이를 본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한다. 8月6日 당일 입회한 자리에서 開棺된 몇 基의 墓에서는 단 한점의 유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루종일 開棺현장을 처음부터 지켜 보면서 정확한 연구자료를 얻고자 했던 기대가 허물어지고 말았다. 다행히 본 出土유물을 정리하던 중 1987.3.16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소재 동래정씨 묘역 이장공사 중 休復의 孫子 良佑와 그 아들이며 天君演義의 著者로 알려진 菊堂公 泰齊의 墓에서도 屍身과 함께 다량의 유물이 발굴되어 5代, 약2세기에 걸친 한 家門의 복식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본 박물관에 소장되게 되었음은 실로 행운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여러가지로 협조하여 주신 東萊鄭氏 宗親會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家門의 유물들은 현재 정리중에 있어 완성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에 있다.

5. 墓主의 인적사항 :

墓主人 休復(1529~1604)은 우의정까지 임명되었던 忠貞公 大年(1503~1578)의 長子로 東萊鄭氏 思庵公派 18世孫이다. 족보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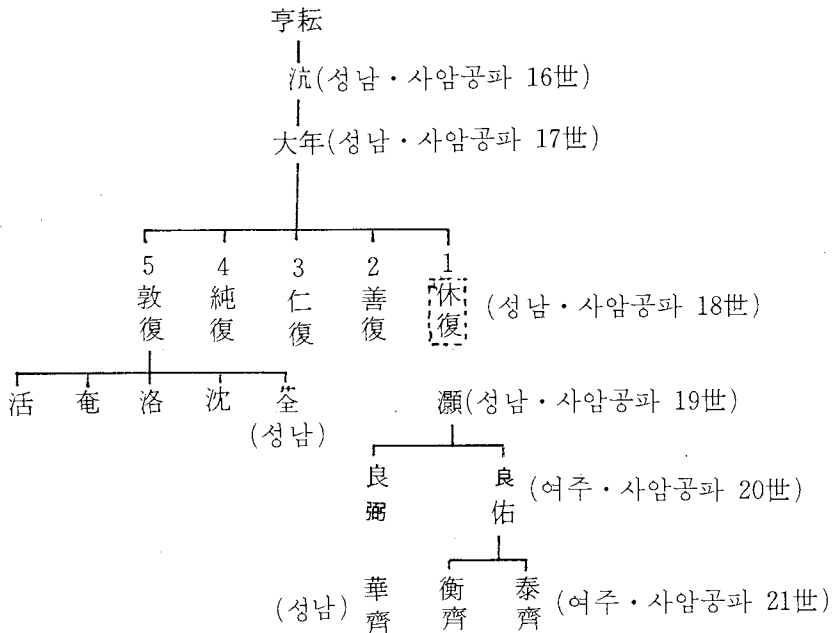
「字復初 嘉靖己丑九月三十日生 蔭補慶基殿參奉 歷開城都事 文義縣令 忠州水原判官 木川礪山郡守 俱有治蹟 萬曆甲辰九月二十二日卒 享年七十六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

旨 墓登亭山良坐原有碣 配淑夫人南陽洪氏父贈領議政聞 嘉靖壬辰八月二十八日生 萬曆戊戌八月十日卒享年六十七墓乾位同塋」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銘旌에는 「通順大夫行礪山郡守鄭公之柩」로 되어 있다. 君守는 郡의 으뜸 벼슬이긴 하나 外官職 文官 從四品의 벼슬로 앞으로 발표될 孫子 良佑와 그 아들 泰齊의 유물과 함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城南 東萊鄭氏 思庵公派 墓域現場



東萊鄭氏 思庵公派 世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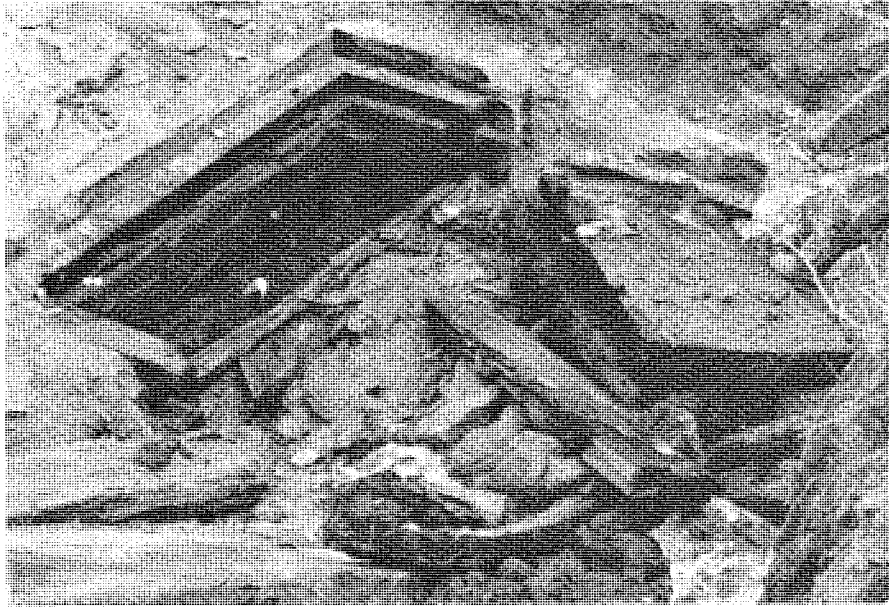
6. 出土服飾의 종류

休復의 墓 出土服飾은 이미 移葬이 끝난 후에 현장에 떨어져 있는 옷가지와 구덩이 속에 外棺, 內棺등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속에서 진흙더미와 엉클어져 여기저기 파묻혀 있는 것을 손으로 파면서 수거한 것으로 棺속에 있던 모든 옷들이 수거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며 配位의 棺內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종친회에서 전하고 있으나 유물정리중 여자저고리, 솜바지가 발견되어 보공품으로 추정되나 확실치 않다. 休復은 壬辰亂을 거친 인물로 이 당시의 出土服飾은 忠北大學 박물관 조사보고 8册등에서도 비슷한 복식을 볼 수 있는데 본 유물은 銘旌을 비롯해서 저고리1, 바지1, 團領1, 直領6, 액주음포3, 半袖 直領袍1, 天翼4, 버선2, 허리띠1, 지요1, 이불2, 柩衣1, 돛자리1점 및 屍身을 묶었던 삼베조각 등 총 26점이며, 이외에 제보자 이상도씨가 수거한 저고리 1점, 바지2점 등 3점이 있다.

7. 出土服飾의 특징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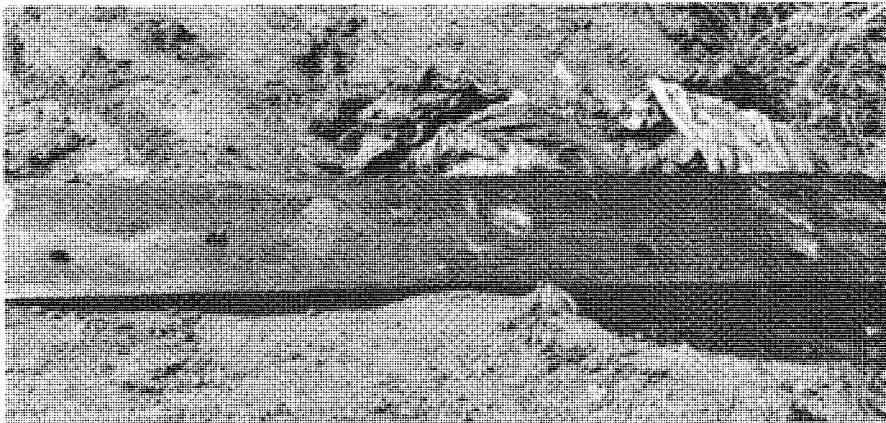
본 유물들은 주로 補空品으로 보이는 겉옷 종류가 골고루 나타나는데 같은 형태의 直領에 무가 넓고 좁은 2種이 있어 뚜렷이 구분되어 있고 옆주름포, 天翼, 半袖直領袍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중치막이나 창의형태는 볼 수 없었다.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開棺현장을 보지못했고 移葬작업이 끝난뒤 흙더미 속에서 버리고 간 것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棺 속에 있던 모든 유물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세한 형태를 제공하기 위해 유물마다 사진과 함께 축소하여 제도한 그림을 직물종류와 함께 다음에 소개코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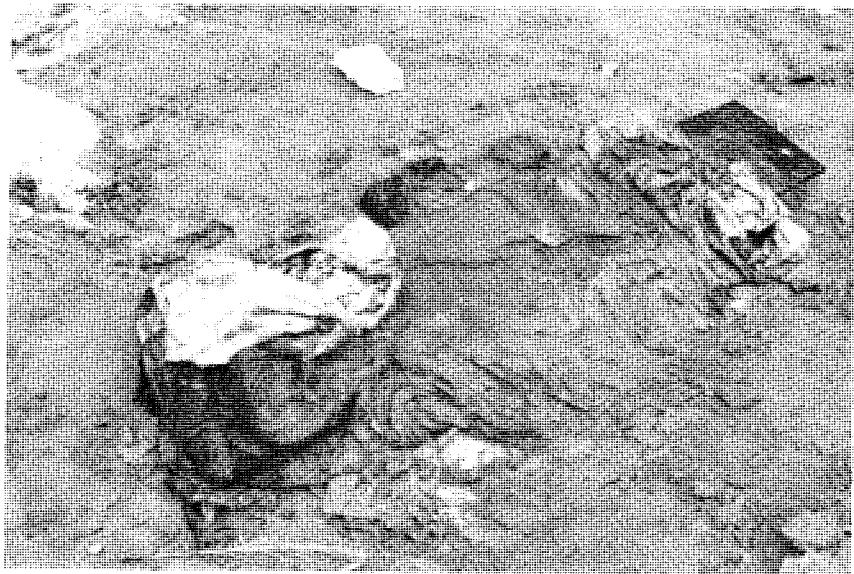
出土現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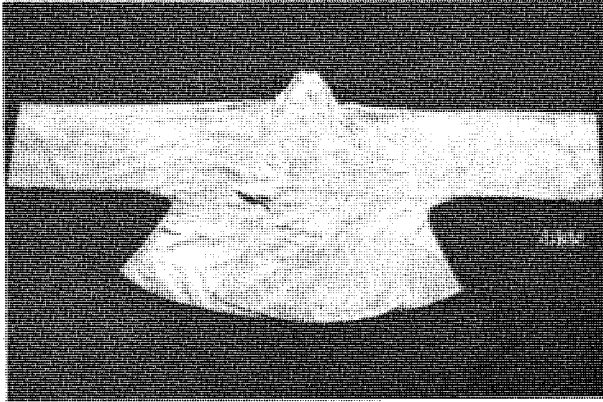
왼편은 夫人의 棺이며 오른편 메워진 곳이 休復의 棺.
休復의 棺에서 나온 出土物中 七星板과 옷가지 일부는 外部로 옮겨져서 흙속에 묻혀 있었으며 棺內部 및 壙中에 묻혀 널려 있는 衣類를 收去하였다. 夫人의 棺內部에 보이는 소주병과 종이컵은 屍身이 썩은 물은 萬病通治藥이 된다하여 담아가고 버려진 것임.

七星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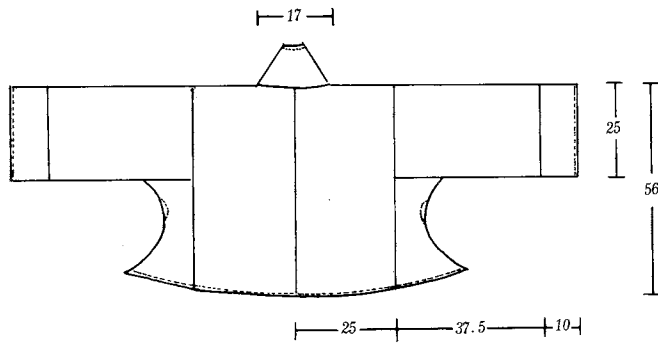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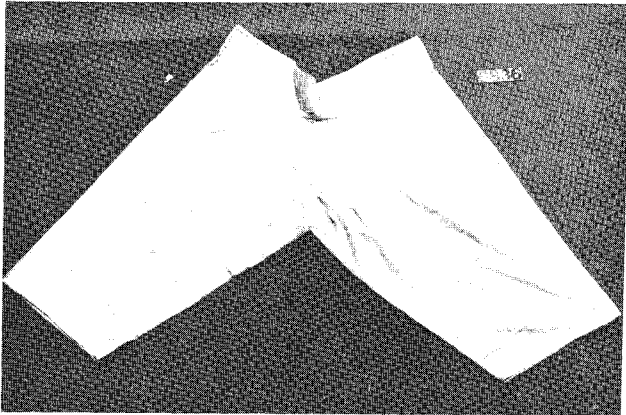
七星板위에 돛자리와 衣類를 收去하기 前 상태
屍身만 옮겨가고 七星板과 衣類등은 外部로 옮겨져서 흙속에 파묻혀 있었던 것임.



1. 겹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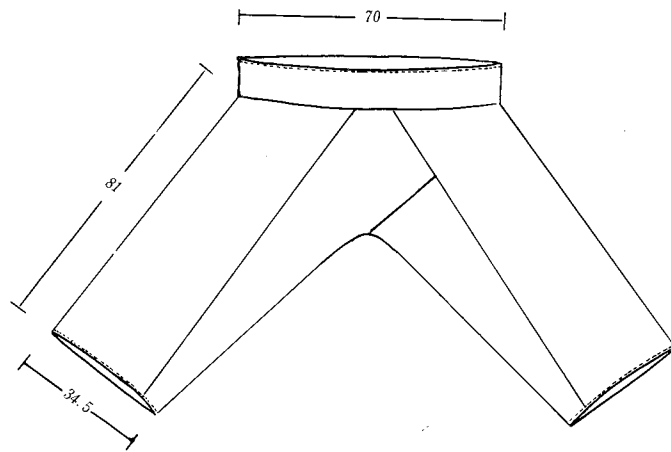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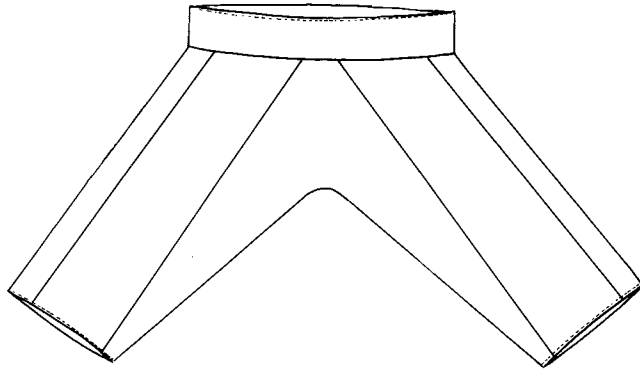
무명
완전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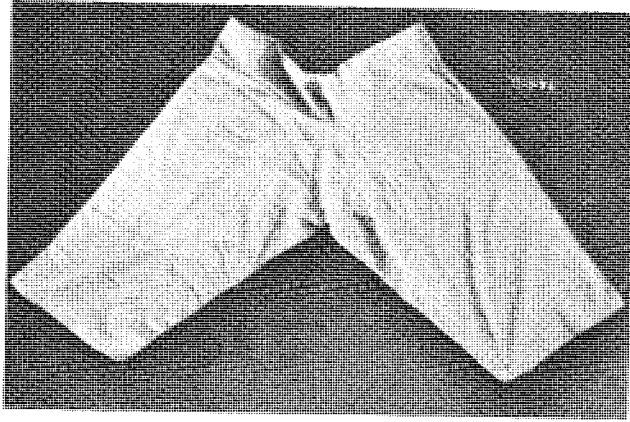




2. 袴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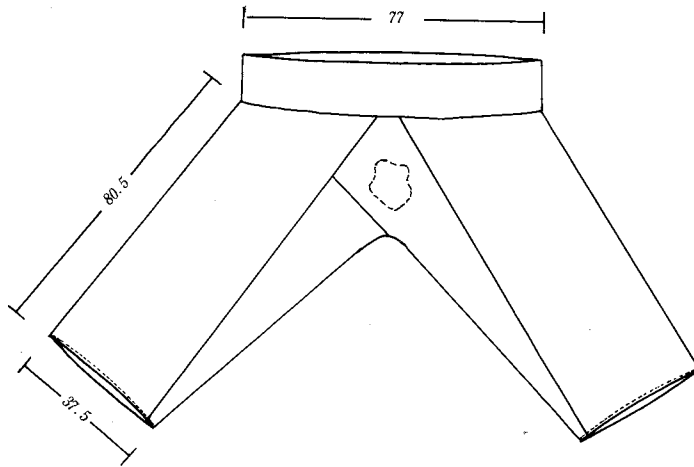
무명
겹상침바지





3. 袴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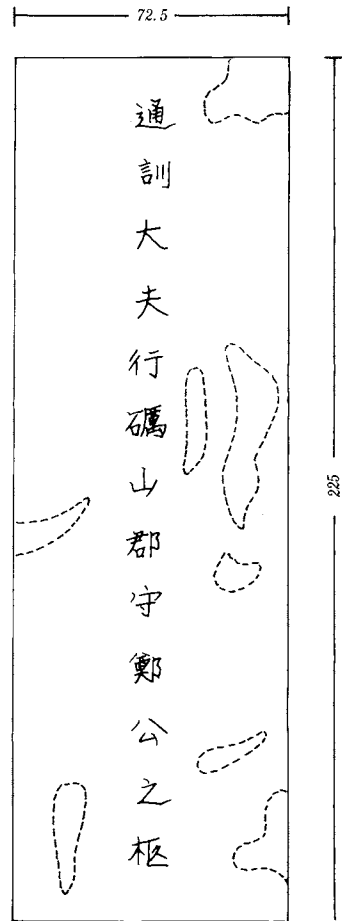
무명
홀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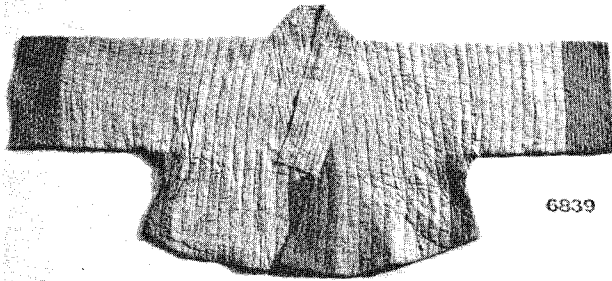


4. 銘旌

명주



5. 숨누비삼희장저고리



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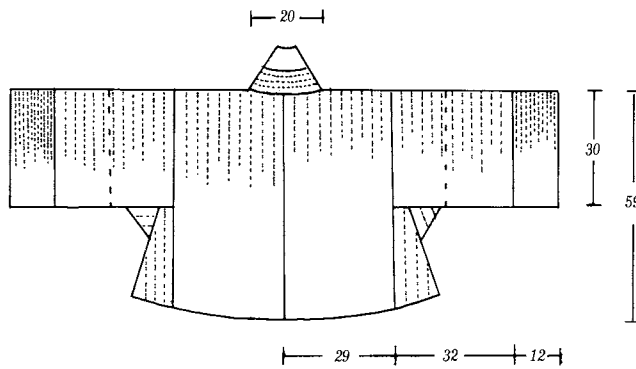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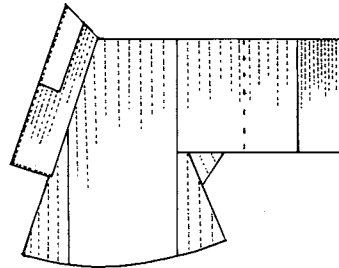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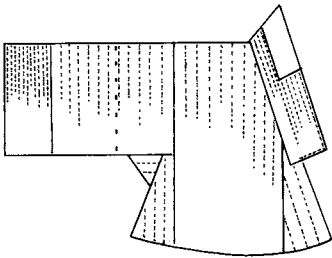
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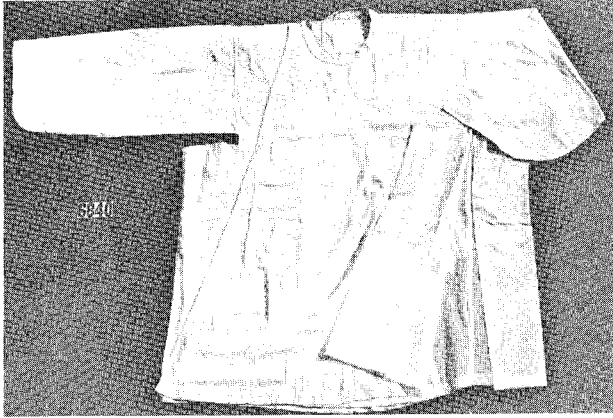
숨누비간격질 · 소매 : 2.5cm

끝동 : 1cm

깃 : 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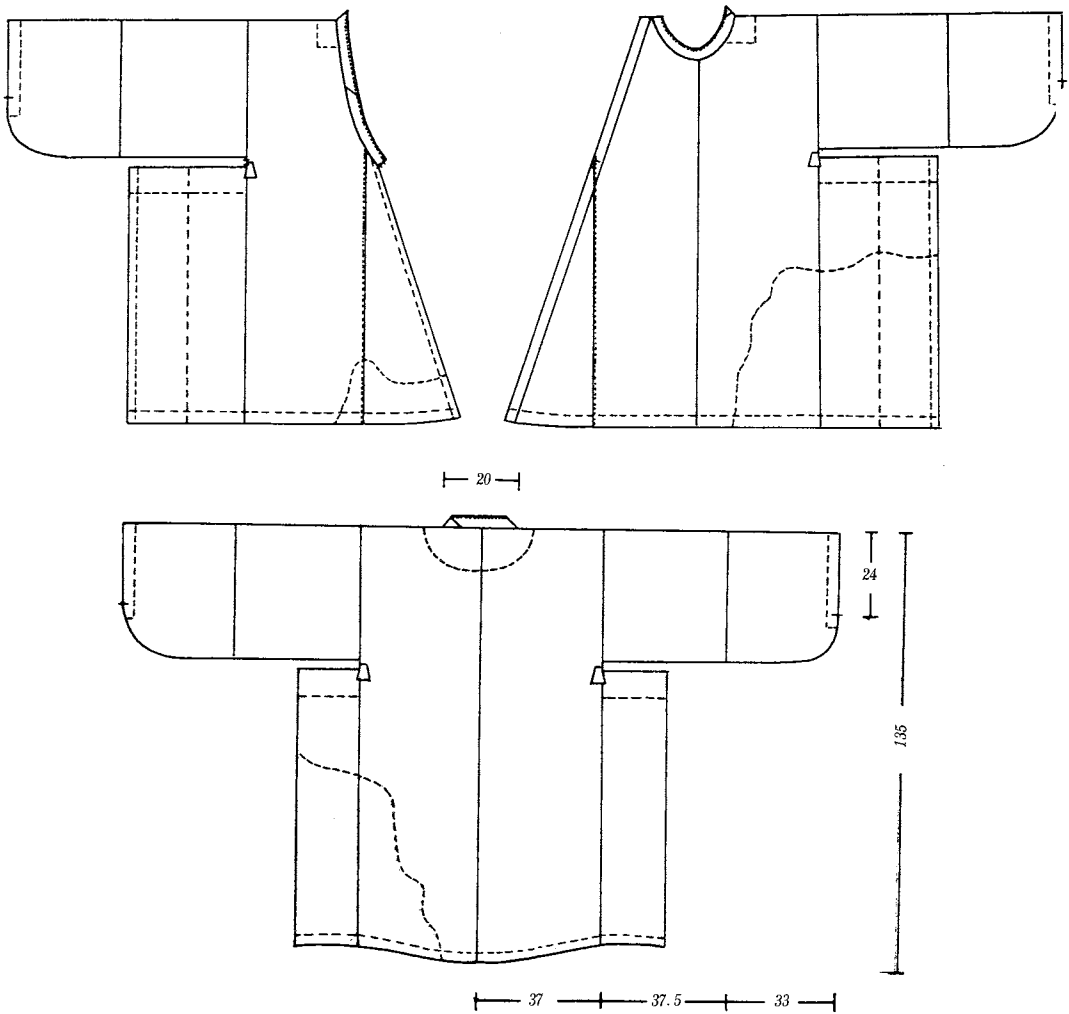
고름달렸던 흔적이 있음





6. 冠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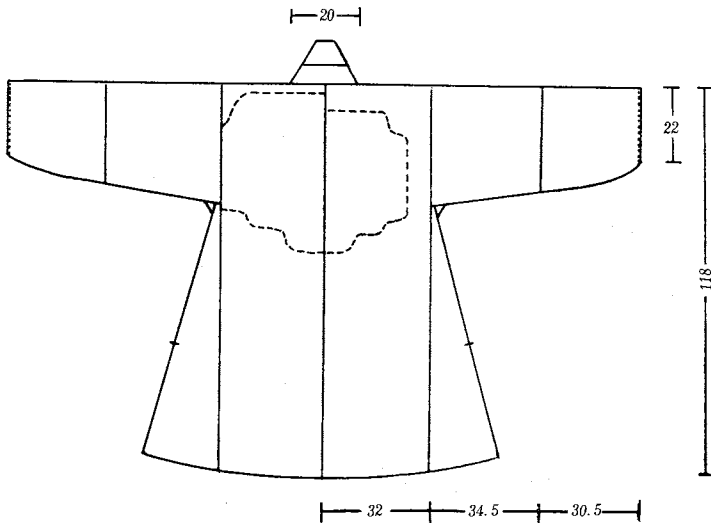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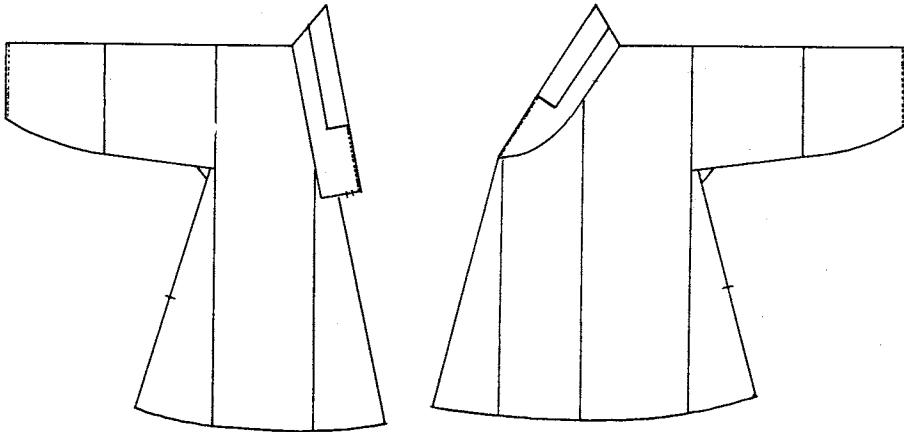
무명
 홑겹
 깃에 이음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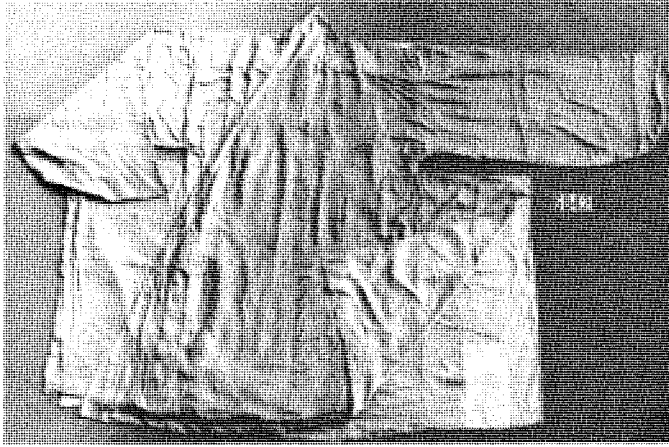




7. 솜 直領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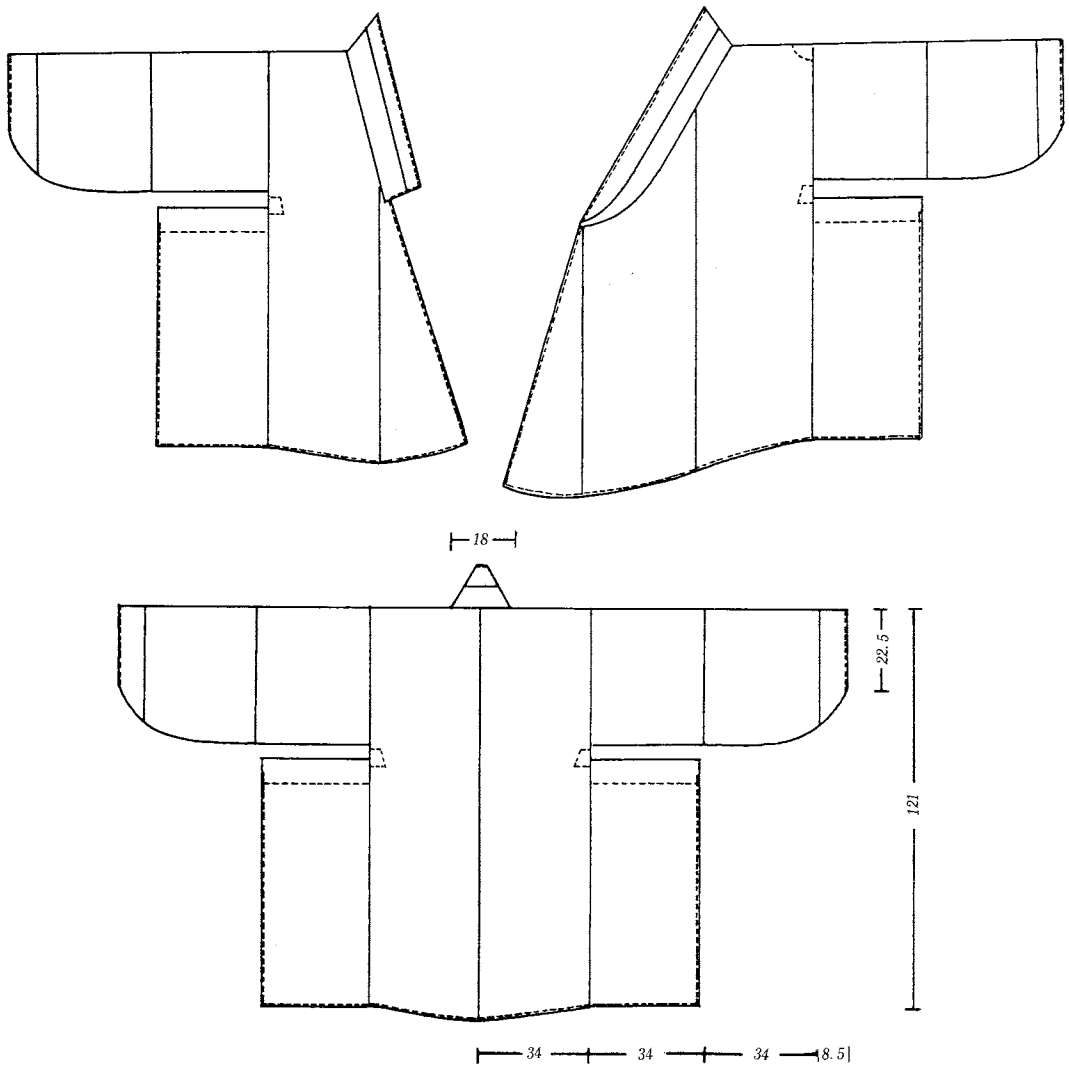
명주
 무릎아래 트임
 고름달렸던 흔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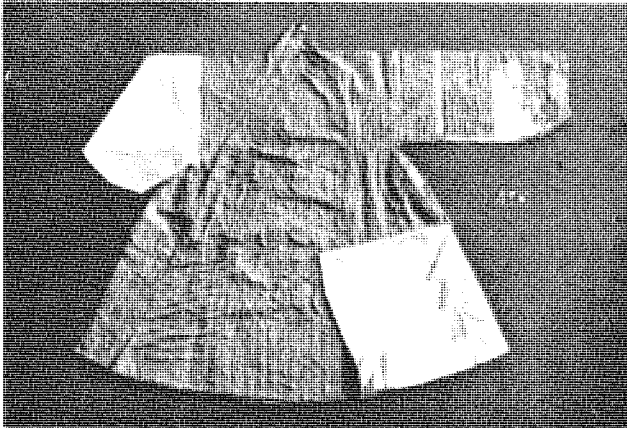




8. 솜 直領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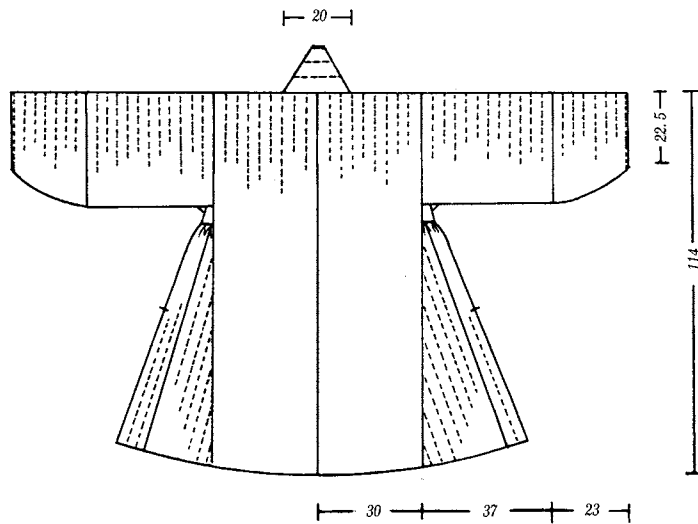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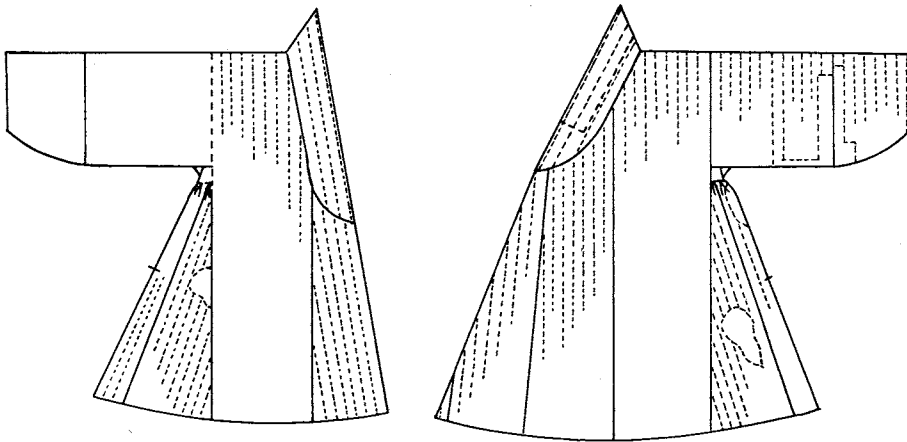
명주
이중깃
양옆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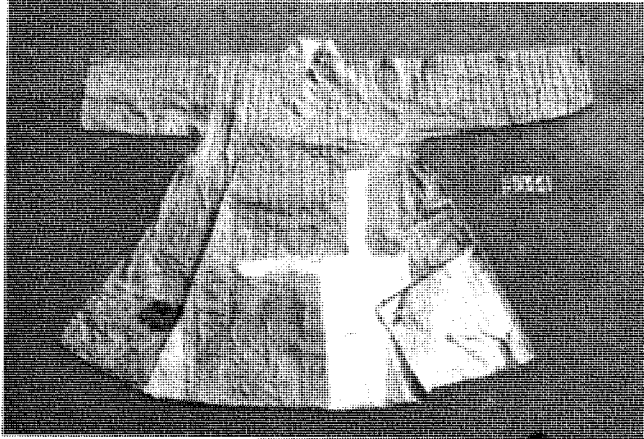




9. 숨누비 腋注音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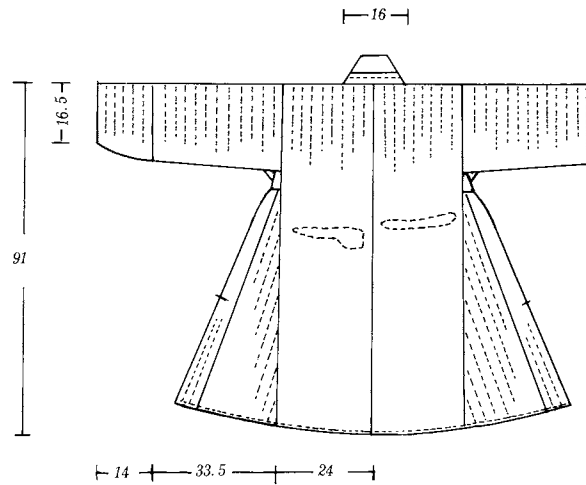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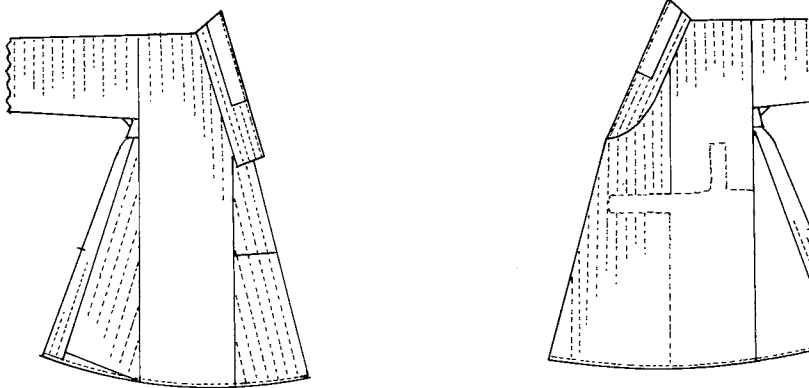
명주
 양옆트임
 숨누비간격 : 3-3.5cm
 고름달았던 흔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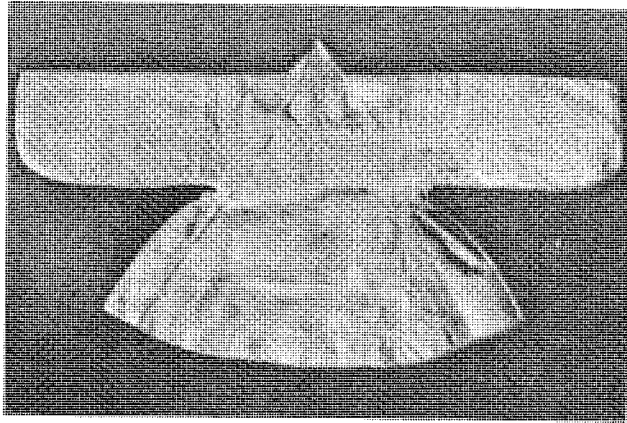




10. 솜누비 腋注音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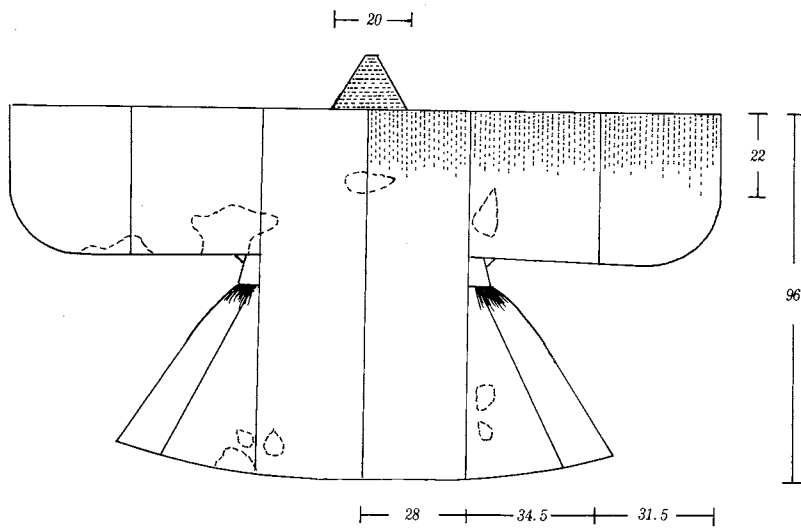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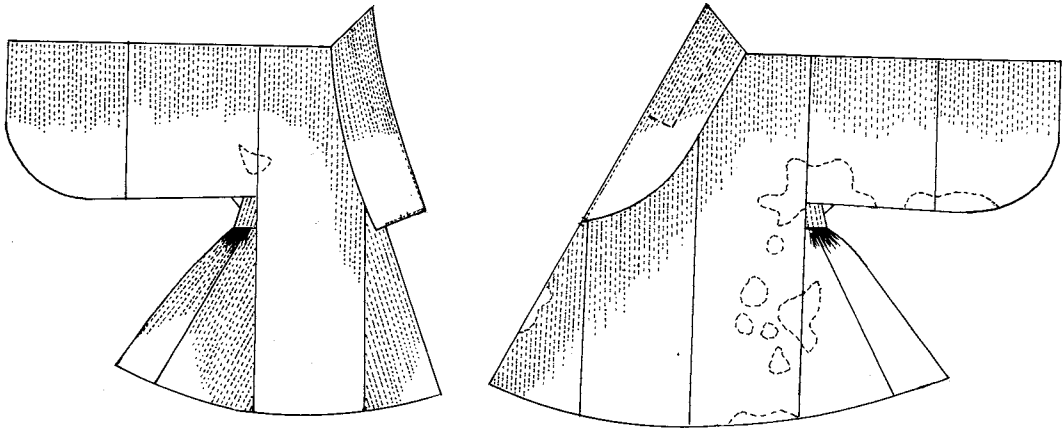
명주
아동용
양옆트임
솜누비간격 : 2.5-3cm
고름달았던 흔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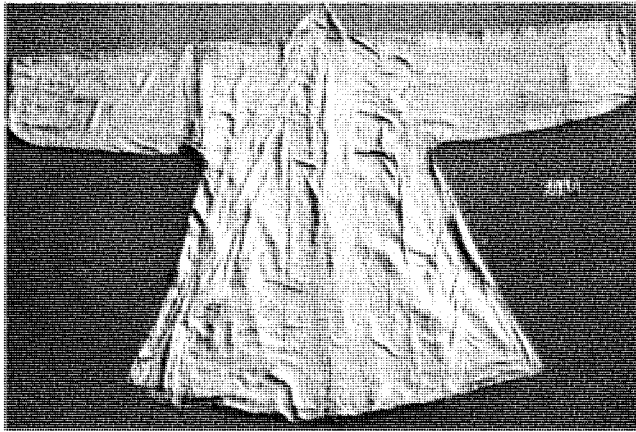




11. 숨누비腋注音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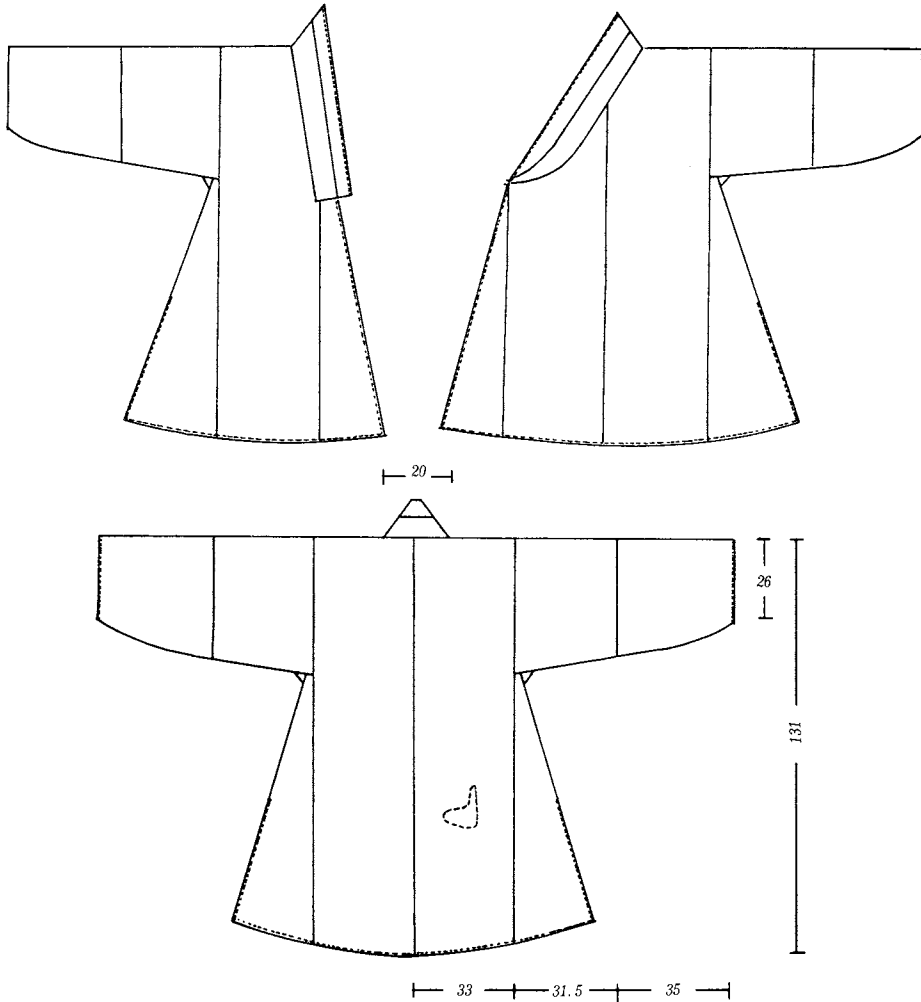
무명
옆주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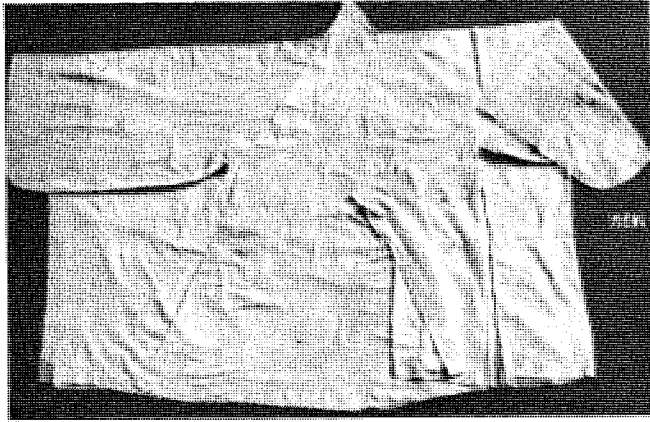




12. 褶直領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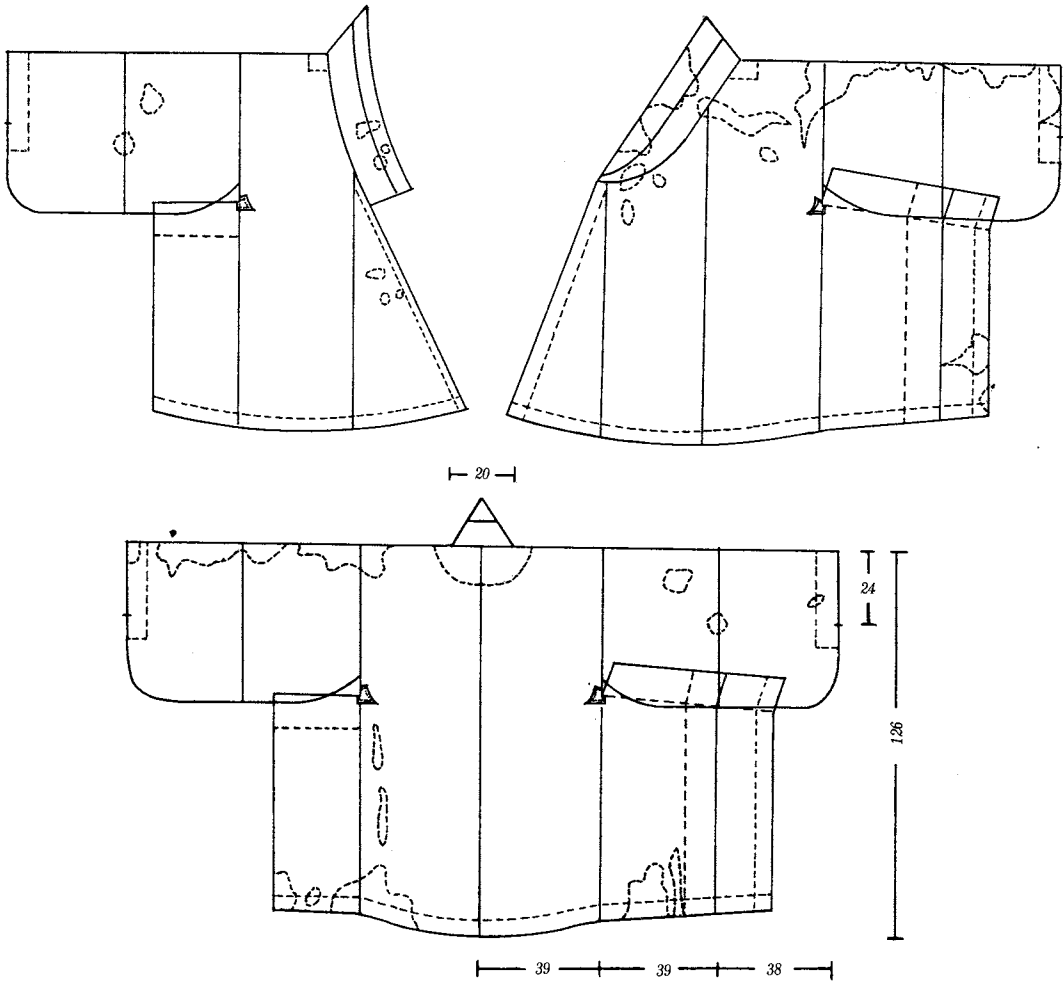
명주
 무릎아래 트임
 이중깃
 매듭단추
 고름있던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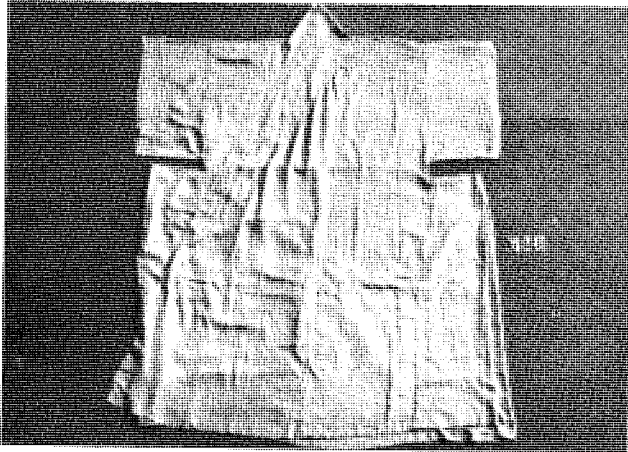




13. 直領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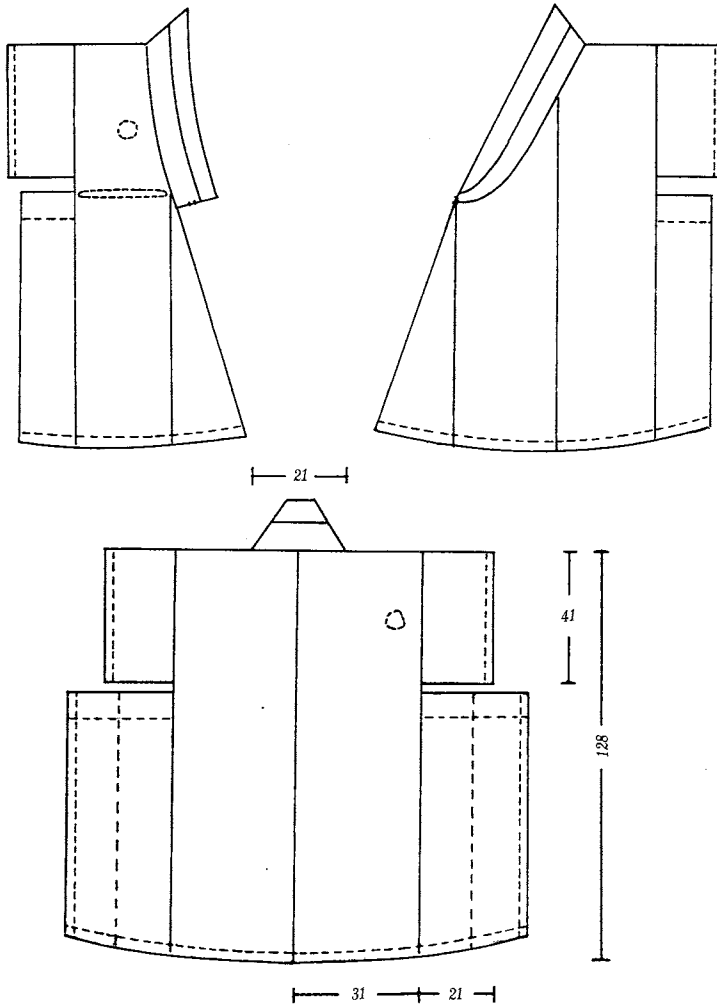
두명
양옆트임
출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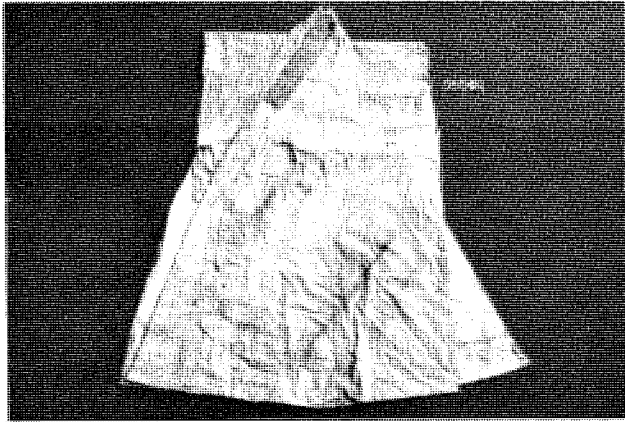




14. 半袖直領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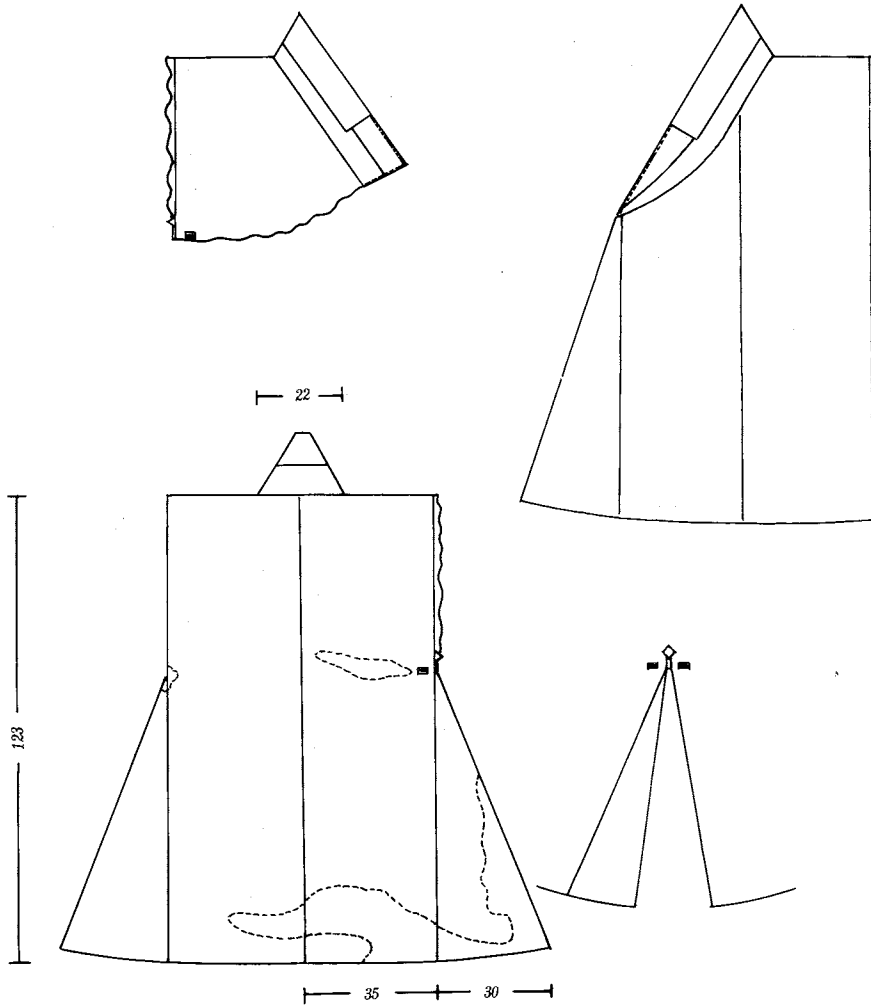
명주
이중깃
양옆트임
고름있던 혼적
홀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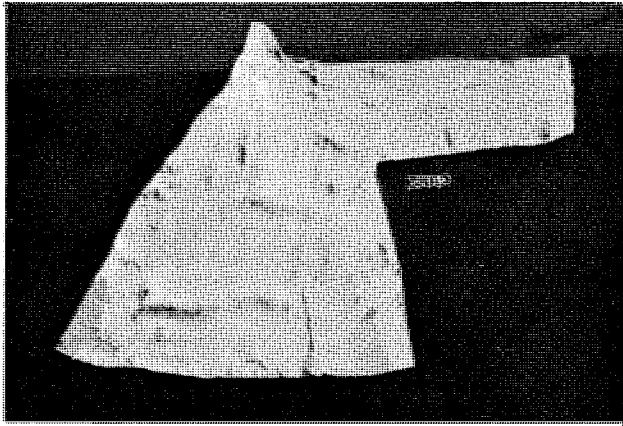




15. 솜直領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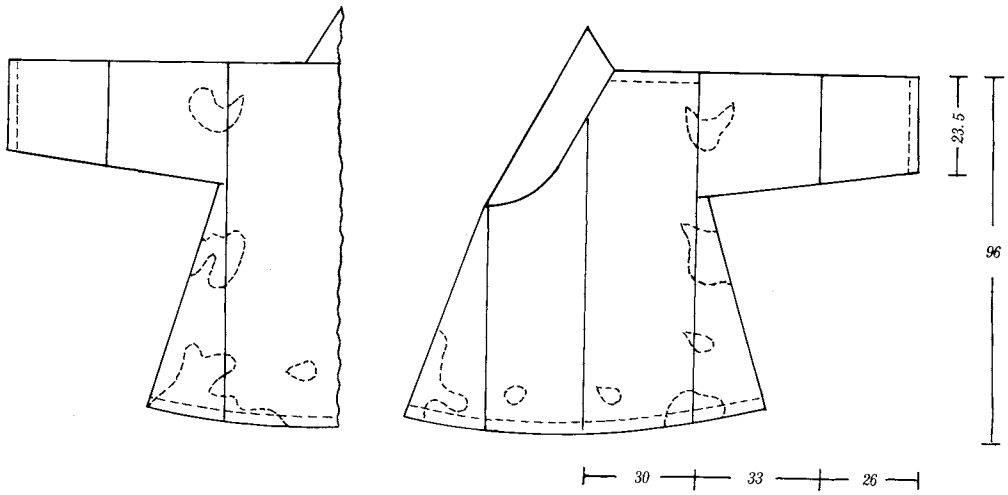
무명
반파





16. 直領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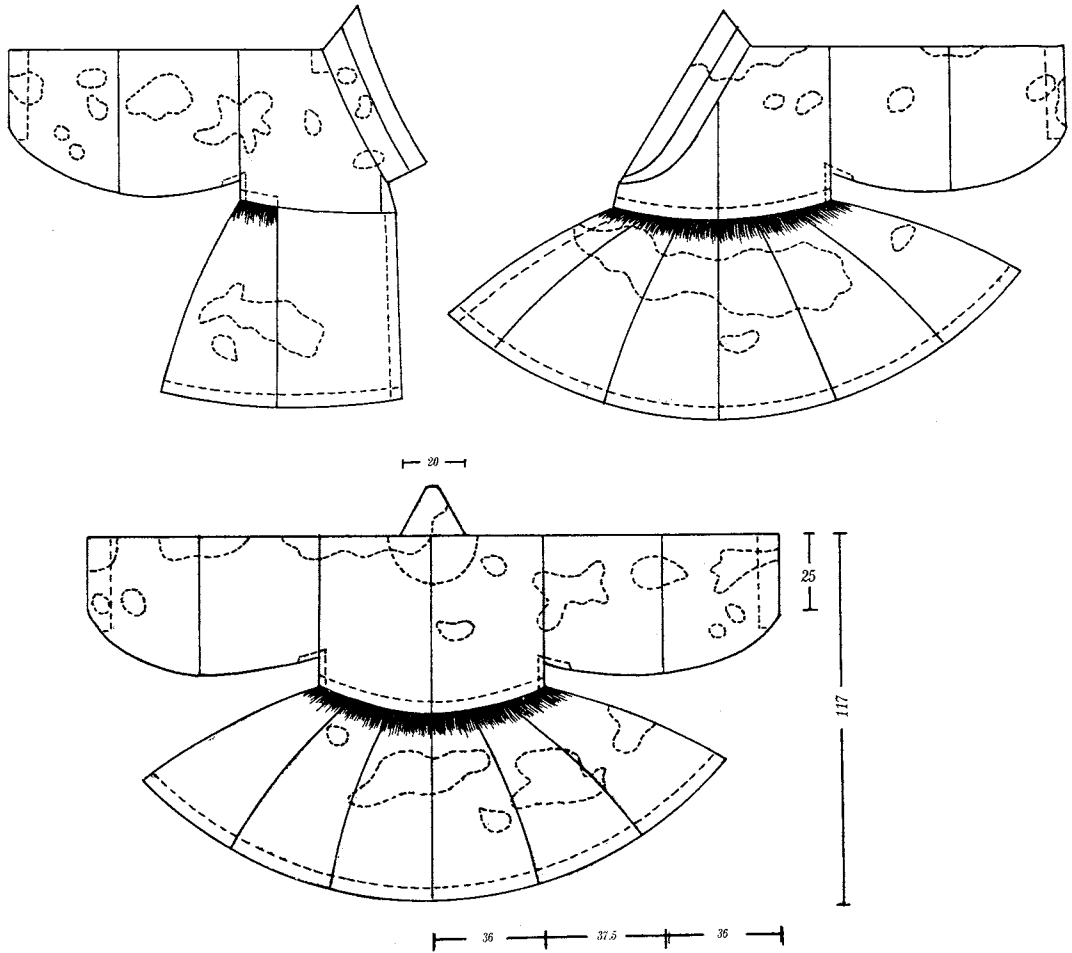
삼베
반파
폴겹





17. 天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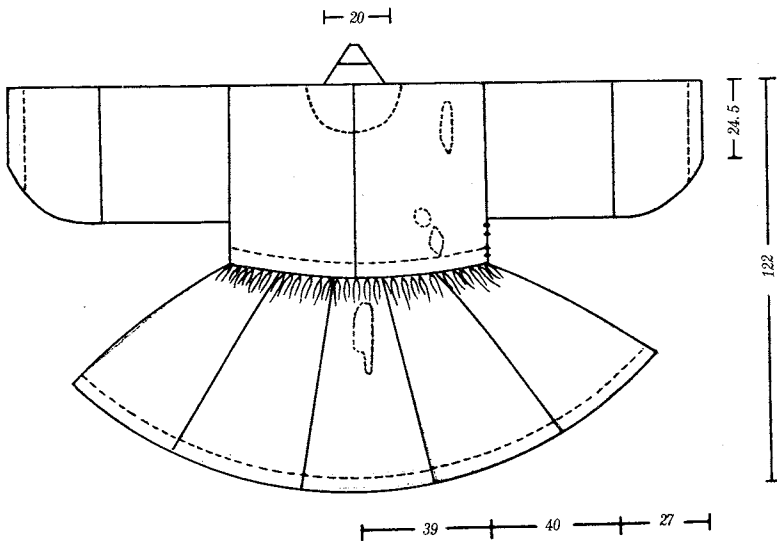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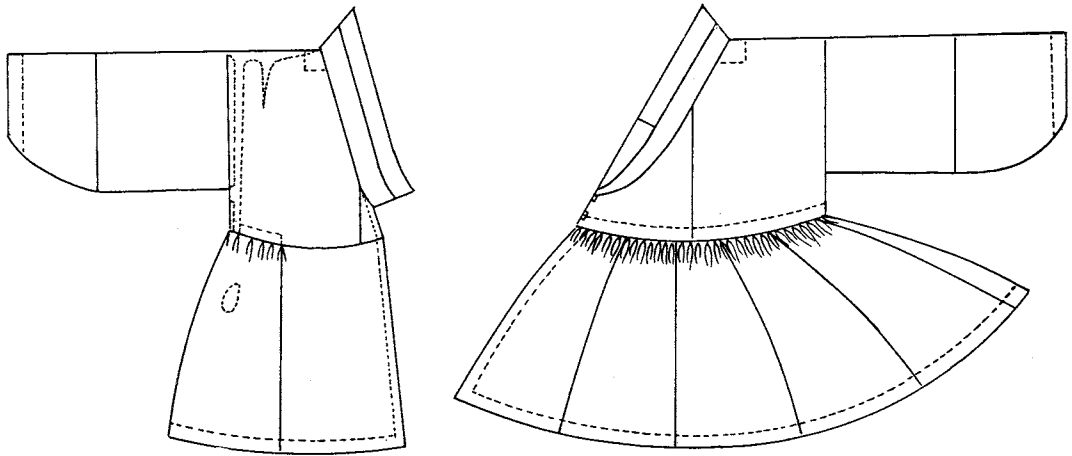
白紵
이중깃
홀겹





18. 天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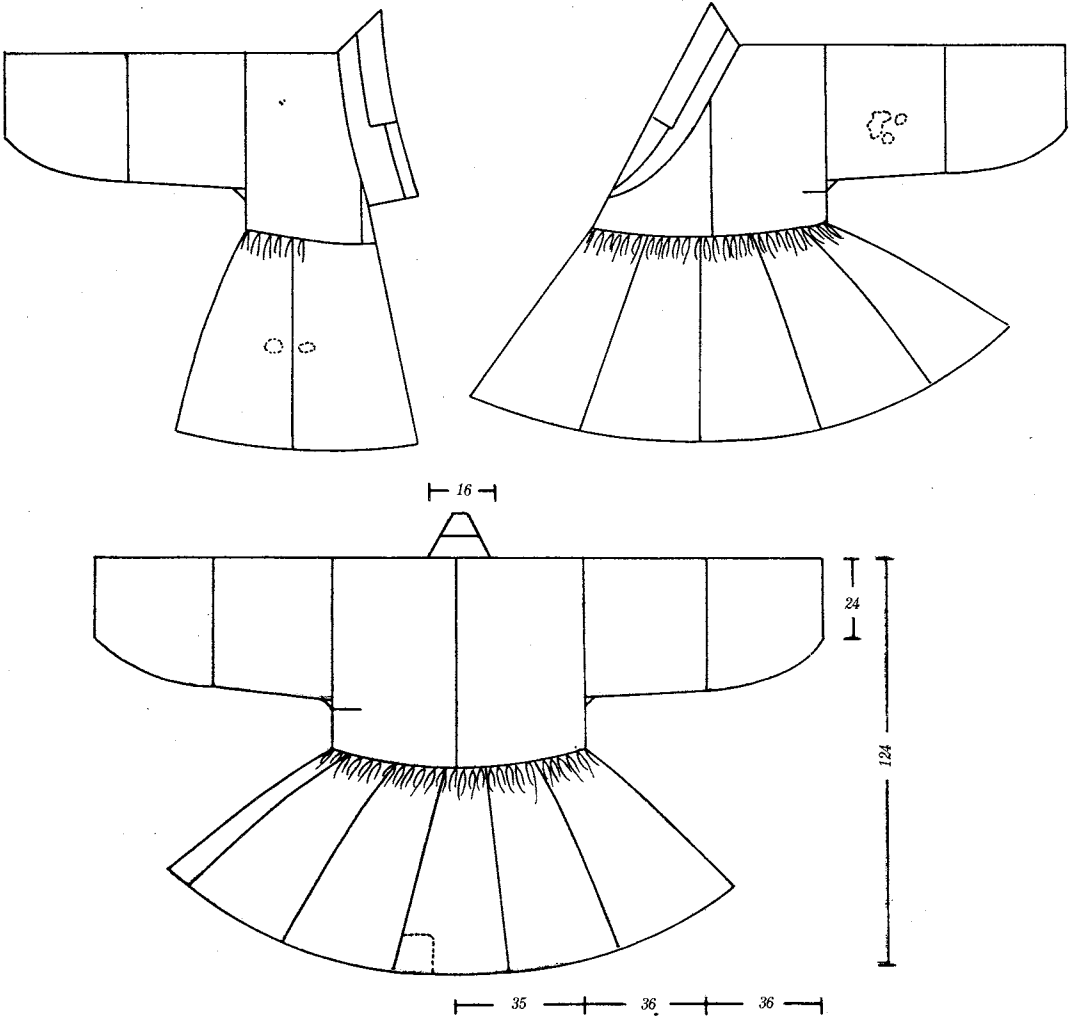
명주
 고름달았던 흔적
 이중깃





19. 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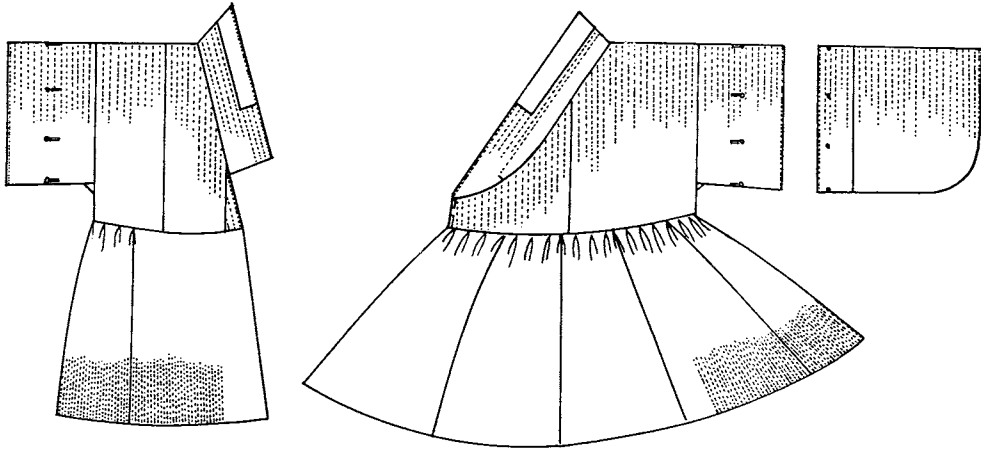
명주
이중깃
소매 이음없이 연결
솜이 약간 남아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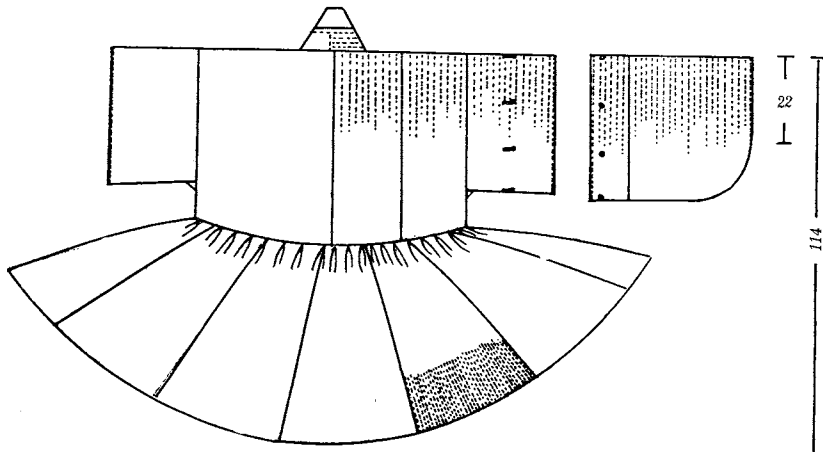


20. 솜누비天翼

명주
 솜누비간격 : 1.8cm
 고름 달았던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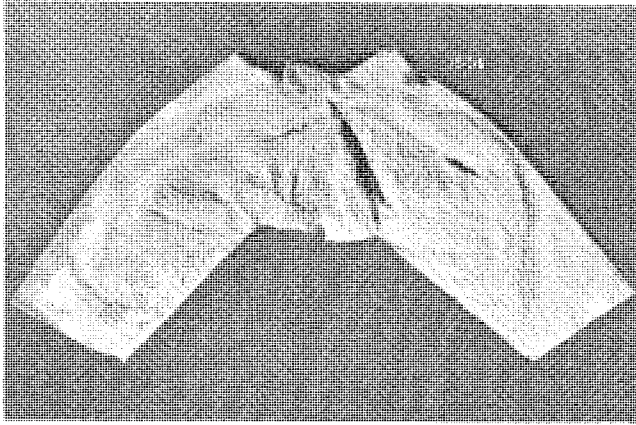
20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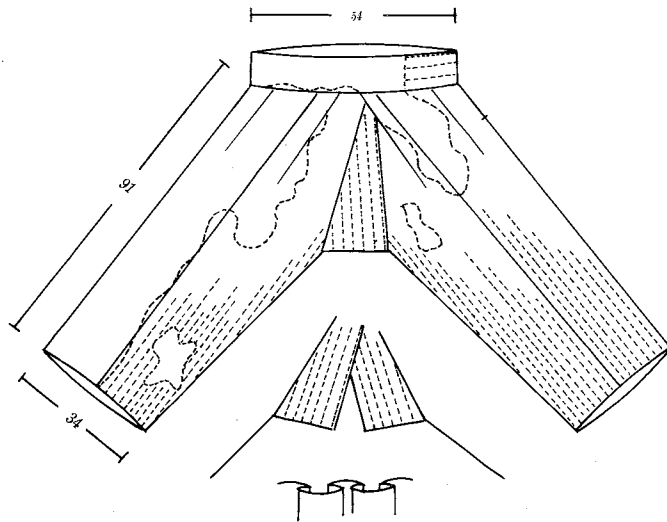
114

39 25 11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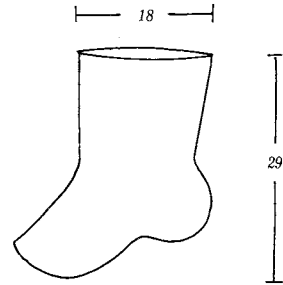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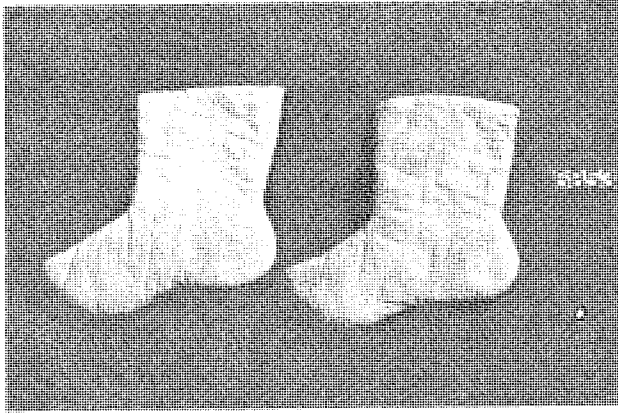


21. 솜누비바지

무명
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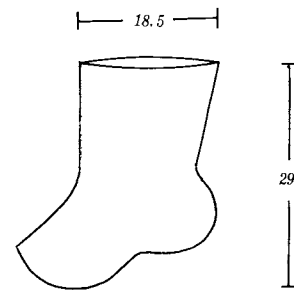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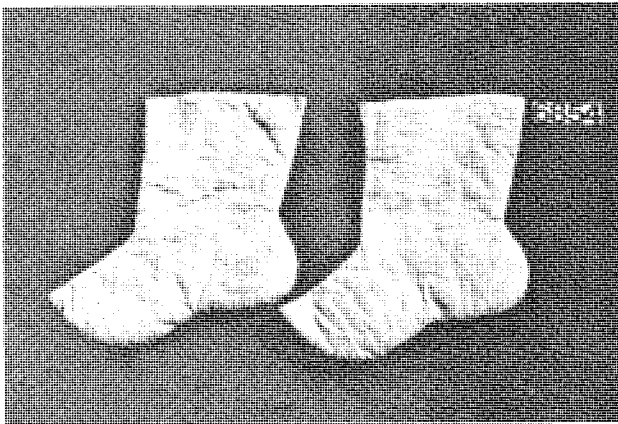


22. 슝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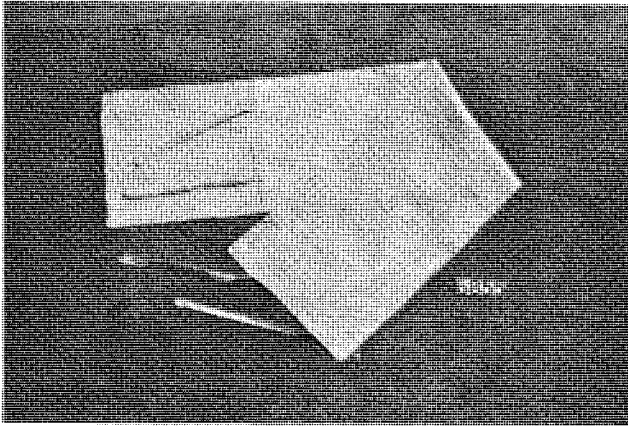


무명
두꺼운 슝

23. 슝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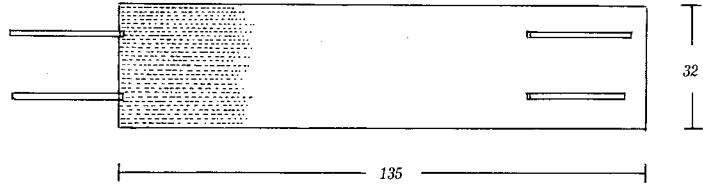


무명
중간슝



24. 숨누비허리띠

무명
누비간격 : 1cm



25. 지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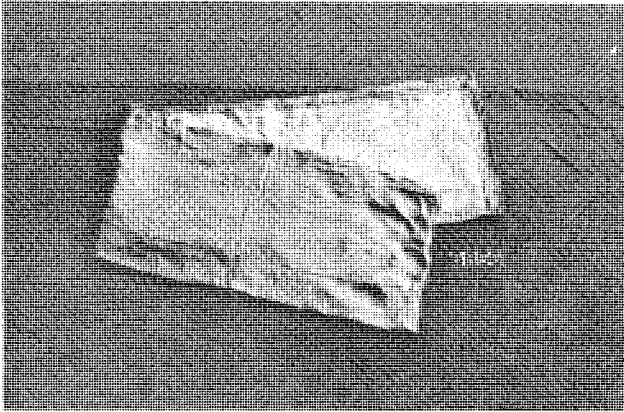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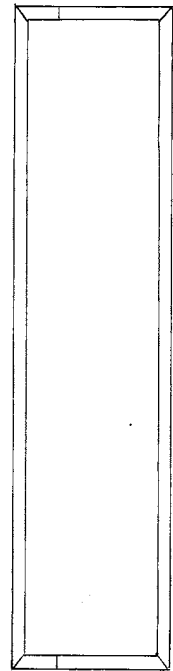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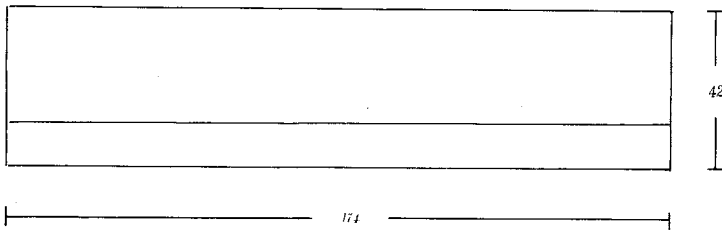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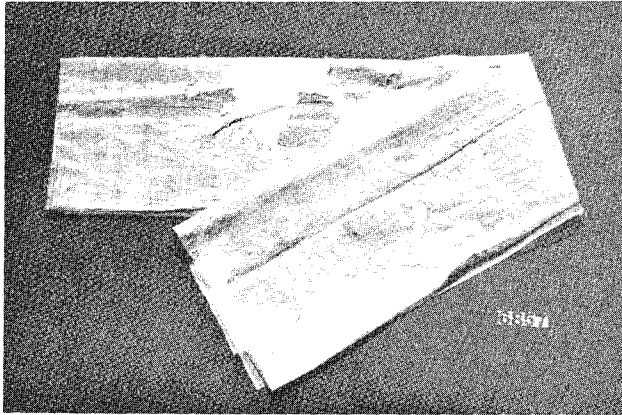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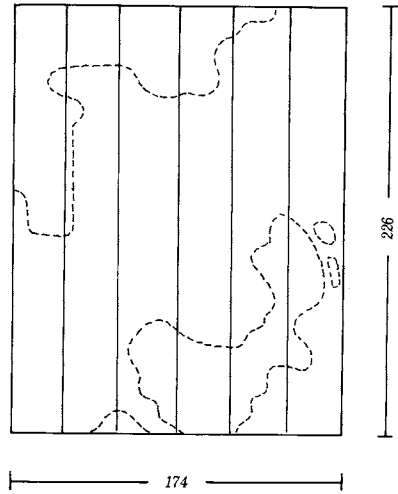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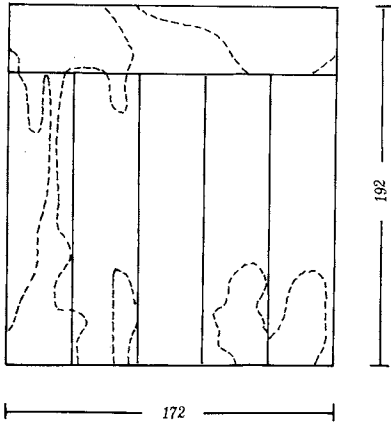
表 : 명주
裏 : 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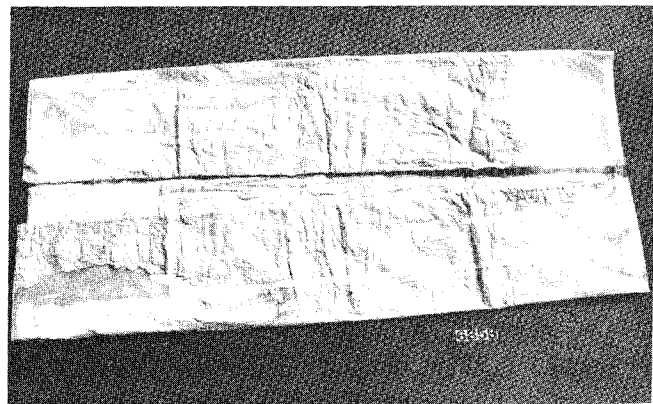
26. 숨이불

무명5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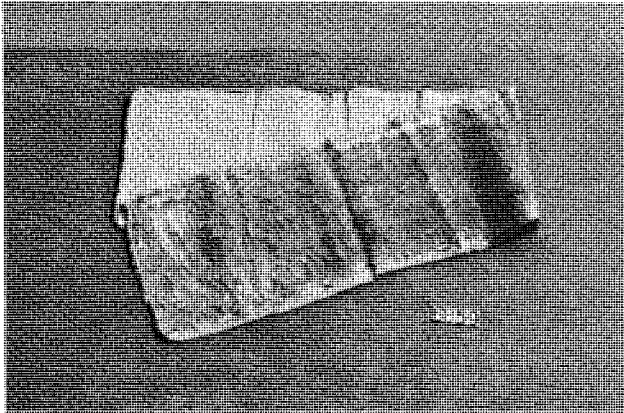


27. 대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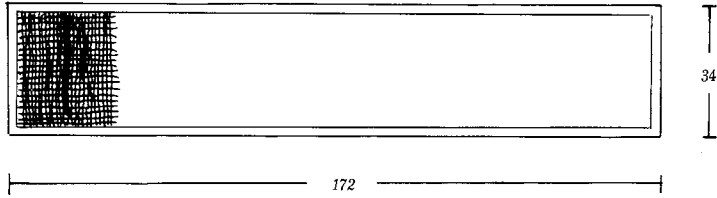
삼베6폭



28. 돛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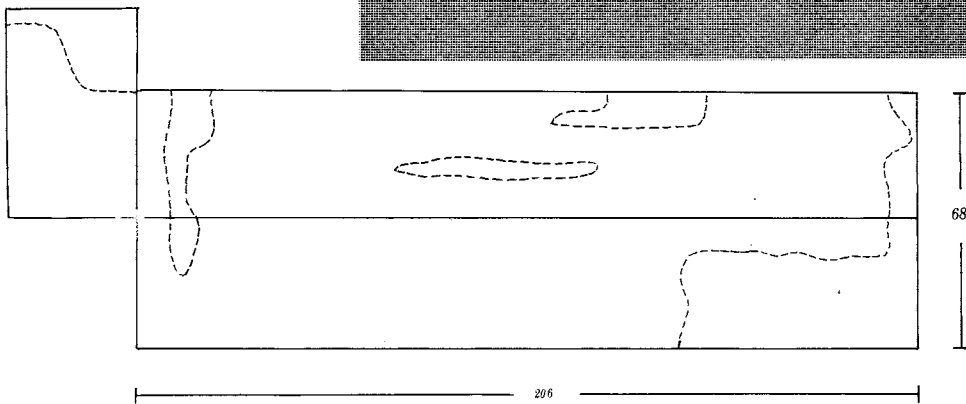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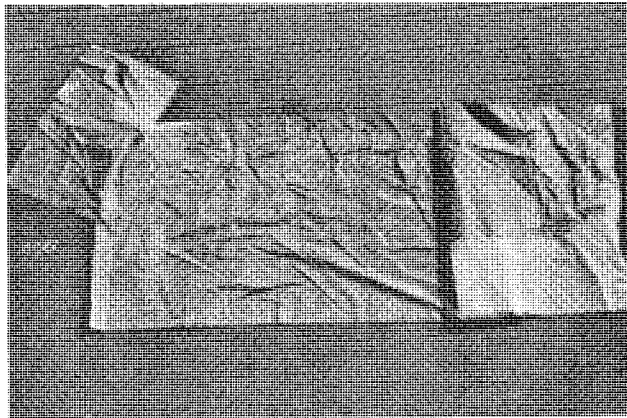


麻
명주(襪)



29. 柩衣

명주



“日本 服裝史에 있어서의 日・韓關係”

山邊知行

지금 紹介받은 山邊입니다.

오늘 일본 服裝史에 있어서의 日・韓關係라는 거창한 제목을 내세웠습니다마는 日・韓의 복장이라고 해도 사실 본인은 한국복식에 있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본인이 이번에 이곳에 오게된 것도, 실은 여기 계시는 석주선 선생님과 김영숙 선생한테 한국복장에 대하여 배우고자 한 것이 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와같은 동기는, 본인이 이전에 동경 국립박물관에 근무하던 때, 즉 戰後 1956년에 英親王妃 李方子여사가 1920年 英親王진하와의 婚禮時 사용하였던 의상 전부를 국립박물관에 기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왕실의 것이니만큼 화려하고 훌륭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대로 박물관 창고에 보관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양복식연구원의 김영숙선생이 오랜 시일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조사를 한 결과 “朝鮮朝末期王室服飾”이라는 거대한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金先生은 몇 차례 동경에 왔고 석주선 선생도 와서 金선생과 같이 국립박물관에서 강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단국대학교 부속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에 관한 말씀을 듣고 꼭 한번 가봐야겠다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데에서 본인의 오늘 이야기는 일본의 복장이 上古시대에는 한국의 복장과 근본이 같았던 것이 그후 어떤 경로를 거쳐 오늘과 같은 변화를 가져온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고대복장을 생각해 볼때 우선 年代부터 설명할까 합니다.

위의 표를 보면 일본 복장의 형태를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일본복장의 전통적인 스타일로 되기까지는 대체로 3세기말에서 6세기반경의 古墳시대라고 하던 때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당시의 분묘의 주변을 장식하였던 “하니와”같은 土製의 人物, 動物, 武具, 또는 축소형의 집등에서 그 시대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모양을 보면 남녀 모두 짧은 上衣를 입고 있으며 男子는 禪을, 女子는 裳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를 胡服型的 服裝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은 中國北方의 騎馬民族인 胡人の 복장이 朝鮮半島를 거쳐 전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6세기까지 지속되는 동안 그 당시 朝鮮半島에서 큰 勢力을 갖고 있던 高句麗 服飾의 영향을 받아, 당시에 尖端的인 복장으로 上流階級에서 착용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이 高句麗系의 服裝에 대해서 우리들은 현존하고 있는 日本의 資料를 통해 2가지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7世紀 前半(621年)에 죽은 聖德太子의 冥福을 빌기 위하여 만들어진 “天壽國繡帳”이라는 刺繡幕에 나타난 人物像으로 破損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昭和47년(1972年)에 발견된 高松塚 壁畫의 女人像인데 양쪽 모두 袖口에는 襷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7세기 말에서 8세기 初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과 高句麗 壁畫(平安道の 雙楹塚과 輯安通溝의 舞踊塚, 또는 三室塚등)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흡사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朝鮮半島系의 服飾은 8세기에 들어와서 中國 唐의 文化가 日本에 밀려 들어오면서 궁정을 中心으로 한 貴族階級の 복장이 一變하여 中國 스타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半島系 복장은 上류계급의 복장에서 이탈하여 대체로 身分이 낮은 서민 사이에 남아 있는듯 합니다.

그 이후에 日本服裝史上 크게 注目을 끌만한 두가지 길이 나타납니다.

(1)中國風인 唐式 服裝의 흐름에 따른 宮廷 貴族服飾과 (2)半島系 服裝에 따른 武家와 庶民 服飾의 두가지 길입니다.

奈良時代가 끝나고 다음의 平安時代(794~1191)에 들어서면서 약 1세기후에 唐이 망합니다(907). 그 십수년전(894)에 遣唐使의 派遣이 停止되면서 日本과 中國 간의 공식교류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唐風의 中國文化는 점점 日本風으로 變해 갑니다.

즉 貴族들은 前代의 唐風形式을 繼承하면서도 점차로 이를 日本風으로 바꾸어 갑니다. 한편 庶民도 胡服型의 복장을 그들의 生活에 맞도록 변형해 갔습니다.

男子는 威嚴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매와 옷매를 풍성하게 하고, 女性은 긴 袴에 몇가지라도 껴 입었는데 한꺼번에 20가지를 껴 입기까지 하였습니다. 치마는 뒤에서 끌리는 정도입니다.

平安時代 다음이 鎌倉시대인데 이때에는 貴族계급의 세력이 쇠하여 드디어 武家에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武家の 대표적인 복장 모양은 역시 소매와 앞에서 여미는 것등 庶民服裝의 흐름에 따랐던 것입니다.

다음 室町時代(1392~1573)는 (日本에서는 戰國時代라고 했었지요) 武家들이 서로 세력을 다투어 싸우던 시대로 貴族계급은 완전히 沒落하고, 한편 전쟁에 시달려온 서민사이에서 上部에 대해 反抗하는 下克上의 기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貴族의 복장은 점차 간소화 되면서, 특히 여자들이 겹겹이 입던 양상이 점점 사라지면서 드디어는 속옷과 袴 뿐으로 변해집니다.

한편 庶民으로 女人의 服裝은 소매와 길이가 약간씩 길어집니다. 그리고 袴와 에이프론 같은 것을 벗으면 이것이야말로 貴族服飾에서 나타나는 下降線과 庶民服飾에서 나타나는 上昇線과의 交叉되는 데서 上下가 서로 통하여 같은 日本 키토의 형태가 됩니다. 이것이 대개 15세기 중반에서 16세기 정도입니다.

17~18세기는 平화가 계속되던 江戸時代로 복장은 점차 화려하고 아름다워지면서 소매와 길이가 길어지고 허리띠의 폭도 넓어지면서 마치 시이소게임 같이 발달하였고 結髮도 화려해져서 소위 日本 키토는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오랜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日本의 服裝歷史를 회고해 보면 오랜동안 中國

系の 服装 영향이 컸었지만 半島系 服装이 一般 庶民間에 확연히 남아있어 이것이 日本 キモノ 形의 基本으로 되어있었다는 점을 理解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변화해 온 日本의 服装과 韓國의 服装과를 비교해 볼 때 韓國의 服装이 日本보다 훨씬 옛 모양이 잘 남아있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韓國에 와 본 일이 세번쯤 됩니다. 처음 온 것이 이미 60년전의 일로 제가 中學生시절 16~17세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가 마침 봄이었는데 서울의 교외에 꽃이 만개한 곳을 울긋불긋한 색색의 韓服을 입은 여인들이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치 日本 奈良時代의 회화를 보는 것 같이 아름다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번에 戰後 처음으로 와서보니 서울은 올림픽 전이라서 대단히 活氣에 넘쳐 있었으며, 완전히 近代化한 발전상에 刮目하였습니다. 服装도 매우 변하여 洋服化되어 있습니다. 이는 日本도 같은 일로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마는 회고해 보면 옛날 수년전에 동질적이었던 韓·日의 服装이 洋服이라는 것으로 또 다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서로 韓國옷, 日本옷이라고 할것 없이 오랜 傳統을 지켜온 民族옷이라는 것을 언제까지라도 길이 소중하게 지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靜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옷 글은 1988년 5월 2일 본 박물관 개관 7주년 기념행사 때 초청되었던 山邊知行 先生의 논문으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과 함께 번역물을 수록한 것입니다.

(번역 : 본 박물관 석주선 관장)

“日本の服装史における日韓の関係について”

山邊知行

只今 御紹介戴きました 山邊(ヤマノベ)で御座います。

本日は「日本服装史における 日韓の関係」という大へん大きな題目を 掲げましたが 日韓の服装と言いましても 私は韓国の服飾については ほとんど何も知りません。

私が この度 こちらへ参りましたのも 實は 此處にいらっしゃる石宙善先生や 金英淑先生にいろいろ韓国の服装について教えて戴くというのが その大きな目的なので御座います。

こういうことになった動機と申しますのは、私が 以前東京の国立博物館に勤めて居りました時 戦後1956年 英親王妃李方子様が1920年に 英親王殿下の御婚儀の際に用いられた御衣装全部を 国立博物館に御寄贈になり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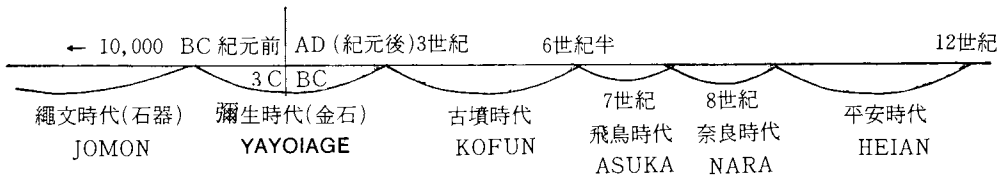
これは 大へん立派なものなのですが 残念ながら私共には何も判りませんので、手がつけられず そのまま博物館の倉庫に納められて居りました。

これを 東洋服飾研究院の金英淑先生が長い時間と 大へんな費用をかけて 調査されまして、その結果が「朝鮮朝末期王室服飾」という大變立派な御本となって刊行されました。

その間、金先生は何度も東京に來られ 又 石宙善先生も一度御見えになって 金先生と御二人で 国立博物館で講演をなさったことが 御座いました。そして、その折 檀國大學の「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のことを承ってこれは是非一度行って見たいと 念願して居たわけで御座ります。

このようなわけで 私の今日の御話は日本の服装が 古い時代には韓国の服装と同根のものであったのが、その後 どのような経過をたどって 今日のように變つて來たか ということ を 申上げて見たいと 思うので御座います。

日本の古代の服装を考えますのに まず その年代について 御説明いたします。



上の圖の中で 日本の服装の形がはっきり判って これが日本の服装の傳統的な スタイルとして出來上るのは 大體3世紀末から6世紀半頃の古墳時代といわれる時代 で これは その頃の墳墓の周邊を飾ったと言われる 埴輪という土製の人物や、動物、武具や家などの雛型(ミニアチュア)の中の、人物埴輪によって知ることができます。今 この中の代表的な形を見ることに致します。



男も女も短い上衣を着て、男は褌(ハカマ) 女は裳(モ)を穿いて居ります。女は大きな髪(マゲ)を結つて居ます。

われわれはこれを「胡服型」の服装と居ります。つまりこの形はもと中國北方の騎馬民族である朝鮮半島を経て傳つたものと考えられます。

そしてこれが6世紀ごろまでにそのころ朝鮮半島に大きな勢力を持って居た、高句麗の服飾の影響を受けて當時の先端的な服装として上流階級の間で用いられるようになったと考えられます。

このような高句麗系の服装について、われわれは現在日本に残っている資料から少くとも二つの例をあげることができます。

その一つは7世紀前半(621年)に亡くなられた聖徳太子の冥福を祈って作られたといわれる「天壽國繡帳」という刺繡の幕にあらわされた人物像で破損して居りますが、次のようなものです。

(天新口繡帳)



(高松繡帳)



もう一つは 昭和47年(1972)に発見された高松塚の壁画の女性像です。 いずれも袖口には襪がついて居ります。 これは 7世紀の終りから8世紀はじめのころのものと 言われて居ります。

双楹塚(女)



三室塚(男)



これらと高句麗の壁画(平安道の雙楹塚や輯安通溝の舞踊塚や三室塚などのもの)とくらべて見ると 非常によく似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

さて、このような朝鮮半島系の服飾はその後8世紀に入って中國唐の文化が日本に押しよせて來ますと 宮廷を中心とした貴族階級の服装は 一變して 中國スタイルのものに變って行きます。そして 今までの半島系の服装は 上流階級の服装から離れて 大たい身分の低い人たちや庶民の間に残って行った様です。

唐式服装



ここで、これ以後の日本の服装史の上に 大へん注目すべき二つの道が現われて 來ます。

①中國風な唐式の服装の流れによる宮廷貴族服飾の道と、②半島系の服装による 武家や庶民の服装の道であります。

奈良時代が終って 平安時代(794~1191)に入って約一世紀後(907)唐が亡びます。そして、その十數年前(894)に遣唐使の派遣が停止されて 日本と中國との間の公式の交流が絶えます。

そこで、それまでの唐風な中國文化は 次第に日本風なものに變って行きます。即ち 貴族たちは 前代の唐風な形式を受け継ぎながら 次第にこれを日本風なものに變えて行きます。一方庶民も胡服型の服装を 自分たちの生活に合ったものに作り上げて行き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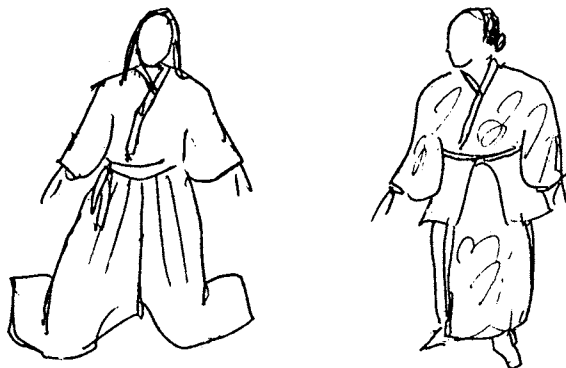


男は威厳を示すように 袖や身幅が大きくなり女性は長い袴に何枚も 一時には 20枚も重あを着をしました。裳は後の方に曳くだけになります。

平安時代の次が鎌倉時代で(1192~1333)貴族階級の力が衰へて、遂に武家が政権を取ります。武士の代表的な服装の直垂(ヒタタレ)を見ますと形は、やはり袖は前合わせで 庶民の服装の流れに そったもので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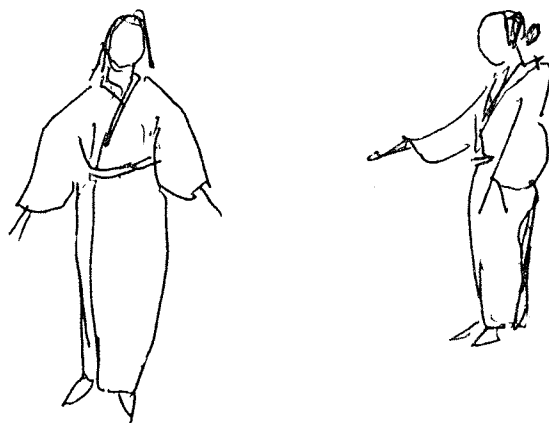
次の室町時代(1392~1573)は、日本では戦国時代と言われ 武家がたがいに勢力を争った時代で、その間に 貴族階級は完全に没落し 一方戦争にいためつけられた 庶民の間には 上に對して反抗する下克上の氣分が出て來ました。そして、貴族の服装は次第に簡略化し行き、特に女装では厚いかさあを着が段々薄くなり 遂には 下着と袴だけになります。一方庶民の服装(女装)は 少しづつ袖や身丈が長くなって來ます。





そして、この袴やエプロンのようなものがとれると、ここで、はじめて貴族服飾の描く下降線と 庶民服飾の描く上昇線とが交叉して、そこに上下を通じて同じ日本のキモノの形が出来上がりました。

これが大たい15世紀の中ごろから16世紀ぐらいのことです。



17～18は平和の續いた江戸時代で 服装は次第に華やかに美しいものになり、袖も長くなり、帯の幅は廣くなり シーズーゲームのように發達して、結髪も派手になり、 いわゆる日本のキモノが完成しました。



大へん長い御話を致しましたが、日本の服装の歴史をふりかえって見ますと、その間には、中国系の服装の大きな影響も御座いましたが、半島系の服装というものが、一般庶民の間にたくましく生き残り、これが日本のキモノを形造る基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御判り戴けたと思います。

最後にこのように變化して來た日本の服装と、韓國の服装とをくらべて見ますと、韓國の服装の方が日本よりも、その古い形がよく残されて居る様に思われます。

私は、今までに韓國へ來たことが三回ございます。一番はじめに來たのは、もう60年も前のことで、私は中學生で16才か17才の頃であったと思います。その時は、ちようど春で、このソウルの郊外に、花が一杯咲いているところを、いろいろの色の韓國服を着た女の人が歩いて居るのを見て、まるで日本の奈良時代の繪を見ているように、美しいと思ったことで御座いました。

今回、戦後はじめて來て見たソウルは、オリンピックを前にして、大へん活氣に溢れて居り、すっかり近代化したその發展振りに目をみはりました。そして服装は、すっかり變つて洋服になって居ります。これは日本も同じことで、少し寂しいことですが、考へて見ますと、昔、千年前に、同じ形であった日韓の服装が洋服というもので、また同じになったと言えるのかも知れません。

しかし、御たがいに、韓國服、日本服という長い傳統を持たれた民族服というものは、いつまでも大切にまもって行きたいものと思います。御靜聽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山邊知行 館長

學歷及 經歷

- 1931年 京都大學文學部 哲學科卒業(美學美術史專攻)
- 1935年 東京國立博物館學藝課染織室勤務
同館染織室長
- 1968年 停年退任
- 現在 多摩美術大學客員教授
遠山記念館 館長

主要著書

- | | | |
|--|-------------------------|-------------|
| 「染織」 | 日本美術大系 | 講談社 |
| 「能装束」 | | 中部日本新聞社 |
| 「染」 | 日本の美術7 | 至文堂 |
| 「紅型」 | 日本の美術127 | 至文堂 |
| 「世界の染織(1)」 | 1984年 | 源流社 |
| 「世界の染織(2)」 | 1985年 | 源流社 |
| 「庶民の染織」 | | 中央公論社 |
| 「近代の染織」 | | 日本の染織シリーズの中 |
| 「徳川將軍家墓地發掘報告(染織の部)」 | 東大出版 | |
| 「藤原三代墓所調査記録(染織服飾)」 | 朝新聞社 | |
| 「伊達政宗墓所發掘記録」 | 東北大學「中尊寺」 | |
| 「Chinz 印度更紗」 | 染織と生活社 | |
| 「Colours of Japanesetheatrical costumes」 | (英文) Basel, Switzerland | |
| 「日本染織文様集」 | 解説 染織アギイン センター | |
| 「日本の服飾美術」 | 昭和40 東京國立博物館 | |

檀國大學校 附屬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開館紀念行事內譯

開館 1981. 5. 2.

1. 開館紀念“廣州李氏 壽衣 特別展”開催
 - ・ 日 時：1981. 7.13～7.19
 - ・ 場 所：本博物館 세미나실
 - ・ 1979. 3. 京畿道 果川出土. 1580年代
 - ・ 1980.11.29 重要民俗資料 第114號 指定

2. 開館一周年紀念“第2回 壽衣 特別展”開催
 - ・ 日 時：1982. 5. 8～5. 15
 - ・ 場 所：本博物館 중앙홀
 - ・ 南陽洪氏 壽衣 1980. 京畿道 楊州 出土 1450年代
 - ・ 廣州李氏 壽衣 1979. 3 京畿道 果川 出土 1580年代
 - ・ 全州李氏 壽衣 1981. 6 京畿道 龍仁 出土 1730年代

3. 開館二周年紀念“第一回 學術 세미나”開催
 - ・ 日 時：1983. 5. 2～5. 3
 - ・ 場 所：本博物館 세미나실
 - ・ 論題 및 演士
 1. 染織品の 保存과 陳列
田實榮子 先生(東京 國立文化財研究所 主任研究官)
 2. 朝鮮時代 出土服飾의 實態
石宙善 博士(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長)

4. 開館三周年紀念“第二回 學術세미나 및 朝鮮朝 衣裳 復原 特別展” 開催

- 日 時：1984. 5. 1~5. 4
- 場 所：本 博物館 세미나실 · 중앙홀
- 論題 및 演士
 1. 民俗博物館의 課題와 方向
河孝吉 館長(國立民俗博物館)
 2. 古代 우리나라의 機織技術
閔吉子 教授(國民大學校)
 3. 舊韓末 宮中禮服 및 一般女服飾 研究
金英淑 院長(東洋服飾研究院)
- 特別展：朝鮮朝 衣裳 復原 特別展
袞龍袍外 20 여점

5. 開館四周年 紀念“第三回 學術세미나 및 朝鮮朝女人 襯衣類 特別展” 開催

- 日 時：1985. 5. 1~5. 7
- 場 所：本 博物館 세미나실 · 중앙홀
- 論題 및 演士
 1. 텔레비전 사극의 고증과 실제
朴貞植 教授(培花女專)
 2. 우리나라 傳統染色에 관한 考察
蘇晃玉 博士(中央大學校)
 3. 翟衣制度의 變遷研究
朴聖實 研究員(本 民俗博物館)
- 特別展：朝鮮朝 女人 襯衣類 特別展
단속곳외 40여점

6. 開館五周年紀念“第四回 學術세미나 및 第五回 朝鮮朝 여자저고리 特別展” 開催

- 日 時：1986. 5. 2~5. 10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 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1. 한국고대의 장신구
김기웅박사(문화재 전문위원)
 2. 高松塚의 복식사적 연구
박경자교수(성신여대 가정대학장)
 3. 濟州島 女人의 속옷에 대한 民俗學的 研究
高富子연구원(本 民俗博物館)
 - 特別展：朝鮮朝 여자저고리 特別展
光海君妃 青衫 外 57點
7. 開館六周年紀念 “第五回 學術세미나 및 第六回 朝鮮朝 冠服 特別展” 開催
- 日 時：1987. 5. 2~5. 9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1. 우리나라의 甲冑實態
李康七 先生(前軍史博物館長)
 2. 濟州道 갈옷의 實態調査에 대한 應用方案研究
孫敬子 教授(世宗大學)
 3. 親蠶禮 및 親蠶服에 관한 研究
朴聖實 研究員(本 民俗博物館)
 - 特別展：朝鮮朝 冠服 特別展
興宣大院君 紫的團領(重要民俗資料第214號)外 22 點
8. 開館七周年紀念 “第六回 學術세미나 및 第七回 出土 服飾 特別展” 開催
- 日 時：1988. 5. 2~5. 10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1. 道教服飾小考
任榮子教授(世宗大學校)
 2. 日本의 服裝에 있어서의 韓日關係
山邊知行館長(遠山紀念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1. 金海金氏(涵. 1568~1598. 重要民俗資料 第209號)
 2. 楊川許氏(1450년대 추정)
 3. 慶州李氏(泰坤. 1672~1763)

博物館 利用案内

관람기간 : 매주 화, 목 2일간

시간 : 오전10시 - 오후 4시

휴관 : 1. 국경일과 공휴일

2. 본교의 여름 및 겨울방학기간

3. 기타 본 박물관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때

단, 본 박물관 사정에 의하여 특별한경우 변경할 수 있다

(알림 : 본 박물관 행사에 논문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10월 말일까지 논제와 개요를 알려주시고 간단한 절차를 거쳐 채택된 원고는 명년 5월 2일 본 박물관 개관기념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하시게 됩니다.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이며 소정의 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韓國服飾

제 7 호

1989年 4月 15日 印刷
1989年 4月 25日 發行

編輯製作 檀國大學校
石南善紀念民俗博物館

發行 檀大出版部
서울特別市 龍山區 漢南洞 山 8
(우편번호 140-714)

登錄 1968年 2月 27日 No.가 제3-95
印刷 白山文化社
전화 : 926-8533

非賣品

